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2010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2010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9 September 2010

❶ 주차_09.01-09.05	1. 대내 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5
	3. 대남 16
❷ 주차_09.06-09.12	1. 대내 2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29
	3. 대남 31
❸ 주차_09.13-09.19	1. 대내 3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44
	3. 대남 45
❹ 주차_09.20-09.26	1. 대내 50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57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59
❺ 주차_09.27-09.30	1. 대내 64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73
	3. 대남 76

인쇄: 2010년 11월 발행: 2010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정재은·최재령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주)에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10 October 2010

❶ 주차_10.01-10.10	1. 대내 8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98 3. 대남 100
❷ 주차_10.11-10.17	1. 대내 10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2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26
❸ 주차_10.18-10.24	1. 대내 13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143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47
❹ 주차_10.25-10.31	1. 대내 15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16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66
■ 9월 일지 / 174 ■ 10월 일지 / 176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9.01-09.05

9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8월 25일을 ‘선군절’로 제정(9/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 영도’를 시작했다는 8월 25일을 ‘선군절’로 제정
 - 방송은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24일 시·군 당위원회에서 장군님(김정일)이 선군영도를 개시한 8월 25일을 ‘선군절’로 제정할 데 대한 중앙의 결정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매년 이날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말함.
 - 소식통은 “아직 ‘선군절’이 대외에 공표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기념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임.
 - 또 량강도 혜산시의 기계공장에 다닌다는 주민도 ‘선군절’ 제정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8월 25일 오전에는 직장에 나가 일하고, 오후에 집체적으로 강연회와 학습회를 했다”면서 “당시 강연회에서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충실하게 받드는 김정은 대장에 의해 우리 혁명의 대가 곳곳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방송에 전함.

- **당대표자회 앞둔 北, 사실상 ‘계엄상태’(9/2, 자유아시아방송(RFA))**
 - 44년 만의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북한 곳곳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낙서’ 행위가 늘어나고 일부 전단 살포 사건까지 발생, 당국이 비상경계에 들어가는 등 사회 전체가 사실상 ‘계엄상태’에 빠짐.
 - 방송은 복수의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 “평안남도 평성과 황해북도 사리원 등 도시 지역의 아파트 벽과 공장 울타리에 국가정책을 비난하거나 당 간부를 비방하는 낙서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이번 당대표자회를 비방하는 전단이 평성과 함흥에 뿌려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밝힘.
 - 양강도 소식통은 이 방송에 “지난달 18일과 27일 반동적 낙서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져, 당 조직과 근로단체 조직별

- 로 낙서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하라는 교양을 받았다”면서 “모든 간부들의 출장과 여행도 금지됐고, 주민들은 반드시 공민증을 갖고 다니되 야간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받고 있다”고 분위기를 소개
- 또 평안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25일 모든 간부들과 사법기관에 비상경계 태세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대낮에도 길거리에 40~50m 간격으로 보안원들이 배치돼 있다”고 말함.
 - 이밖에 지난달 25~28일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던 ‘전시비상대피훈련’이 이유없이 취소됐고, 지난달 25일부터 1주일간 평양시 인민보안부 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제47차 전국 청소년국방사격경기대회’의 경우 개막일이 23일로 앞당겨지고 일정도 사흘로 단축됐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이어 노동당 대표자회라는 큰 행사가 목전에 다가오자, 북한 당국이 군대가 움직이는 군사훈련이나 주민 이동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평소 쌓였던 사회적 불만이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집단 분출되는 상황을 우려해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
 - 국내 탈북자단체 관계자는 “북한에서 당국에 대한 불만을 낙서나 삐라로 분출하는 것은 평소에도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 “2002년도인가에는 2.16(김정일 생일) 행사 때 항흥 만세교 다리에 김정일을 비난하는 삐라가 뿌려지고, 다리 난간에서 ‘백성은 굶는데 김정일만 잘 산다’는 낙서가 발견돼 근처 주민들이 전원 필적 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고 소개
 - 이 관계자는 또 “대기근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던 1999년에는 함경남도 허천군의 보위부장이 납치,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북한의 젊은층은 당간부 등 기득권 세력이 부패했다는 걸 다 알아 돈벌이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당국 때문에 피해를 보면 낙서나 삐라로 복수를 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1일 이번 당대표자회 일정이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으로 잡혔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하는 의식이 예정돼 있다고 전함.

● 北, 당대표자회 앞두고 ‘김정은 찬양’ 고조(9/3, 교도통신)

- 통신은 평양발 보도를 통해 북한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은 찬양가요로 알려진 ‘발걸음’이 유독 많이 불리고 있다고 보도
- 이어 평양역 주변에서 북한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나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함께 ‘발걸음’을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평양 시내에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고 쓴 간판이 설치됐다고 덧붙임.

● 北TV, 김정일訪中 기록영화 방영...‘활기찬 모습’(9/4, 조선중앙TV)

- TV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의 호금도 총서기와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10분간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장면을 내보낸 뒤 곧이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이라는 제목으로 35분간 김 위원장의 나머지 방중 일정을 자세히 전함.
- 내레이션에서는 김 위원장 귀국 당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처럼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이 공동의 지역 문제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뒤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으며 내내 ‘조·중친선’과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상을 강조함.
- 회담 후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나란히 앉아 중국측이 준비한 무용과 합창 등 예술공연을 관람했으며 공연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을 고정하고 오른손을 이용해 박수를 칩.
- 이어 김 위원장은 부친 김일성 주석이 다녔던 지린(吉林)시 위원(毓文)중 학교를 방문해 김 주석의 동상 앞에 고개를 숙였으며 환영행사 차 두 줄로 늘어선 학생들에게는 오른손을 흔들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기도 함.
- 김 위원장이 숙소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온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소파에 앉아 친밀한 표정으로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나옴.
- 창춘시의 농업박람회와 궈도객차공사, 하얼빈(哈爾濱)시의 해강식품공사와 전기그룹 등을 참관하는 장면도 방영됐으며 김 위원장은 안내원에게 질문을 하고 생산 제품을 만져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열차에 탑승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배웅을 나온 다이빙귀 국무위원 등에게 인사하기도 했으며, 영화는 말미에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김정일동향

- 9/ 1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수 ‘김영환’, 문평제련소 지배인 ‘우두태’ 등에게 생일상 전달(9/1, 중방)
- 9/ 1 김정일, 평양곡산공장 기술개건에 이바지한 기술자 등에게 「감사」 전달(9/1, 중방)

기타 (대내 정치)

- 黨 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황해북도(김만식·黃北 당비서), 황해남도(서원철·黃南 당비서), 남포시(강양모· 남포시당 책임비서) 黨 대표회들’ 진행(9/1, 중방)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057호, 8/24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등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 26호 모범기대명예상’ 수여(9/1, 중방)
- 黨 평양시 대표회, 8/28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일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 및 집행부와 대표자들 선거(9/2, 중방)
- 김정일의 비공식 訪中(8/26~30)은 “전통不變의 中朝친선 진수를 보여줬다”며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선군전통을 중시하는 나라의 외교방식에는 원칙에 어긋나는 양보는 없다”고 代辯(9/1, 조선신보)
- 김보현(김일성 祖父) 사망(1955/9/2) 55돌 관련 생애 그의 “조국애와 혁명위업” 회고, 칭송(9/1, 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말레이시아 대사에 장용철 임명(9/1, 중통)
- 社說, 김정일 訪中(8/26~30)을 “조-중 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키려는 역사적 사변”으로 평가하며 “黨 대표자회의 성과적 개최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진군” 선동(9/2, 중통·노동신문)
- 김보현(김정일 曾祖父) 사망(1955/9/2) 55돌 즈음 최태복, 양형섭 등 黨·政간부들, 만경대 묘에 헌화(9/2, 중통)
- 黨 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자강도(도당비서 김춘섭), 양강도(도당비서 김히택) 黨 대표회’, 8/28 진행(9/3, 중방)

나. 경제

● 라선 국제가공무역구로 개발(9/2, 연합뉴스)

-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副相)은 2일 “라선을 국제 가공무역지구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날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개막한 제6회 창춘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한 구 부상은 ‘동북아경제무역협작 고위층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이미 라선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했으며 이 특구를 국제적인 가공·중계 무역 지구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소개
- 구 부상은 이어 “이를 위해 행정적, 법률적 조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라진항을 포함한 라선시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
- 그는 또 중국의 경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 공동 번영을 이루려면 개발도상국 간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혀 중국과의 경협에 의욕을 보임.
- 구 부상의 이런 발언은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한 직후 나온 북한 고위 인사의 첫 공식 발언으로, 중국과의 경협을 통해 라선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
- 구 부상은 “미국의 부책임하고 투기적인 금융관리가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거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진행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과 전쟁 위협으로 동북아시아가 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국가 간 경제 발전과 합작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

● 北라진, 中과 해상운송 협약 체결(9/2, 연합뉴스)

- 북한 라선특별시가 2일 중국 훈춘(琿春)의 해운업체와 해상 운송 합작 협약을 체결
- 훈춘중련(中聯)해운공사와 라선시, 라진항, 라선대외운수회사는 이날 오후 제6회 동북아무역박람회가 열리는 중국 창춘(長春)에서 만나 라진항에서 컨테이너 운송선을 공동 운항키로 합의, 협약서에 서명
- 중련과 라선은 우선 라진-칭다오(靑島)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운항키로 했으며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면 한국과 일본 운항 노선도 개척할 계획
- 훈춘중련해운공사는 1998년 라진에 자회사를 설립, 라선시와 공동으로 4척의 화물선을 이용해 북한 내 해상 운송 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 5월

- 훈춘시로부터 훈춘-라진 통로를 이용한 해상 운송 사업을 승인받았음.
- 중렌은 라선시와 합작해 중국 동북지역의 물류를 북한 내 도로와 철로를 이용, 라진으로 수송한 뒤 해상 항로를 통해 중국 남방이나 해외로 운송할 계획
- 중렌 관계자는 “금년 내에 라진항에서 출발하는 해상 항로가 개통될 것”이라고 말함.
- 이날 협약식에는 리룡시(李龍熙) 연변조선족자치주장과 김수열 라선시장, 배호철 라진항장 등이 참석

기타 (대내 경제)

- 北, 고압주파수변환기·고압배전반 등 전력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전자장치 도입으로 경제적 효과성 이룩 선전(9/2, 중통)

다. 사회·문화

● 北, 태풍 ‘곤파스’에 긴장…북상 소식 거듭 전해(9/1,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제7호 태풍 ‘곤파스’가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태풍 북상 소식을 반복적으로 전함.
- 방송은 1일 “제7호 태풍 ‘곤파스’가 북상해 1일 밤부터 북한 일부 지역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풍 경보’를 내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모든 지역들에서는 태풍과 큰물(홍수)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
- ‘태풍 경보’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방송 정규 뉴스 말미에 처음으로 전해졌고, 이어 방송이 오전 10시 40분과 11시 47분, 평양방송이 오전 10시 43분에 다시 전하는 등 이날 오전에만 네 차례 방송됨.
- 중앙TV는 자막으로 ‘곤파스’의 북상 소식을 전함.
- 방송은 “중심기압이 960hPa인 태풍7호가 시속 28km의 속도로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서방향으로 이동해오고 있다”면서 “이 태풍의 영

향으로 1일 밤부터 2일 밤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방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고

● **北신의주 농경지 92% 홍수 피해(9/1, 미국의 소리(VOA))**

- 지난달 하순 압록강 범람으로 북한 신의주 일대 농경지의 92%에 해당하는 7천282ha가 홍수 피해를 봄.
- 방송은 유엔 피해조사단의 보고서를 인용, “피해 농경지에 재배되던 쌀, 옥수수 등 농작물도 침수(85%), 매물(14%), 유실(1%)로 못쓰게 됐으며, 관개시설 9곳이 파손됐다”면서 “수재민 대부분이 농부인데 집에 보관해 온 식량도 모두 홍수에 쓸려갔다”고 말함.
- 이 피해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기구의 북한 상주 요원과 현지 직원들이 지난달 26~27일 신의주 일대를 현장 조사해 작성한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
- 방송은 이어 “신의주 당국은 기반시설 복구에 40일쯤 걸릴 것으로 보고 당초 10일간으로 잡혔던 WFP의 긴급 식량지원 기간을 25일간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식량 외에도 식수, 경구용 수액제(ORS), 필수 의약품 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현재 수재민들은 신의주 시내 학교 11곳과 천막촌에서 지내고 있는데, WFP의 영양비스킷 외에 북한 당국도 쌀, 옥수수, 감자를 섞은 비상식을 나눠주고 있지만 이 비상식 물량은 일주일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방송은 덧붙임.

● **러, 벌목공 출신 탈북자 2명 내주 미국행(9/2, 자유아시아방송(RFA))**

-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 2명이 한두 주 안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예정
- 방송은 대북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 관계자를 인용, “지난 3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 영사관에 진입했던 벌목공 출신 탈북자 2명이 내주쯤 미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며 “이들은 5개월간 한국 측의 보호를 받다 지난달 25일 모스크바로 이동해 현재는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함.
- 관계자는 또 “이들 탈북자는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뒤 곧바로 미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혀 3월 중순 모스크바 주재 유엔 난민기구와 미 대사관 측 관계자와 면담했다”면서 “이들이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의 공보담당관은 “안전상 이유로 이들 탈북자의 난민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RFA에 말함.
- 러시아의 북한 벌목공은 노임의 절반 가까이를 북한 당국에 바치는데다 러시아 현지 연합기업소와 벌목장 사업소에도 돈을 떼여 평균적으로 월급의 17%(미화 70달러) 정도만 자기 손에 쥘 수 있다고 RFA는 덧붙임.

● **北, 구릉지경작 성과…‘남은 식량 내다팔 정도’(9/3, 미국의 소리(VOA))**

- 세계농림업센터의 동아시아 담당관인 쉰 지안추 박사는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햇볕은 언덕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법’을 2008년부터 현지에 전수하고 있다”면서 “덕분에 북한의 식량안보가 크게 호전되고, 참여 주민들은 당국에 할당량을 내고도 먹고 남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고 말함.
- 쉰 박사는 또 “주민들이 시범사업 참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면서 “종전에는 경사지에서 주로 옥수수과 감자를 수확했지만 이제는 밭벼, 채소, 고구마, 수박, 과일, 호두, 밤 등 다양한 작물을 심고 있다”고 덧붙임.
- VOA는 “이 시범사업에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와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면서 “사리원시, 수안군, 황주군, 서흥군, 연산군, 연탄군, 린산군 등 황해북도 내 경사지 345ha에서 주로 가정주부나 은퇴한 노인들이 1인당 1만㎡씩 밭아 경작하고 있다”고 밝힘.

● **北평양서도 퇴근길엔 ‘닭발에 선술 한잔’ 인기(9/3, 조선신보)**

- 북한 평양에도 요즘엔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 ‘선술집’에 들러 닭발튀김이나 닭꼬치구이를 안주삼아 한잔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짐.
- 신보는 3일 “최근 평양에서 닭발, 닭내장 같은 닭 부산물로 만든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하루 업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많이 들르는 ‘광복 결혼식 식당’의 경우 이런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는 손님이 매일 수백명에 달한다”고 소개

- 이어 “이전에도 닭 부산물을 조리해 파는 식당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닭공장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요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말함.

● **평양 암시장서 한국산 봉지라면 판매(9/3, 교도통신)**

- 북한의 평양 시내 암시장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이 신문은 7월말에 평양 서성구역의 암시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한 여성이 좌판에 한국산 ‘신라면’과 ‘김치라면’ 등을 진열해 놓고 파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함께 공개
- 주로 야채나 과일, 물고기, 소고기 등을 팔고 있는데, 약 50cm 길이의 물고기 한 마리가 북한 돈 1천500원, 한국산 봉지라면은 500원에 팔리고 있었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전국 붉은청년근위대(9/12, 창건 40돌)원들의 국방체육경기대회, 역포구역 용산리에서 진행(8/26 ~, 평양시와 각도 선발 360여명) 및 8/31 폐막(9/1, 중방)
- 함흥문화전시관(연건평 5천㎡) 개관식 진행(9/1, 중통)
- 경희극 ‘산울림’의 10여 일간 함흥시 공연성과 선전(9/1, 중방)
- 北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구려 벽화무덤(평양시 낙랑구역 동산동) 발굴(9/2, 중통)
- 김일성상 계관인이자 인민예술가인 고려청자 거장 ‘우치선’(1919/11 ~ 2003/11)과 ‘임사준’ (1921/8 ~ 2007/4) 소개(9/2, 중통)
- 태풍7호 ‘곤파스’의 영향으로 北 여러지역에서 폭우와 강풍 발생(9/2, 중통)
 - 黃南 태탄군 74mm(9/1 20시~21시), 수안군 65mm(21시~24시), 9월1일 오전 6시~2일 오전 6시 사이 강원도 원산시 167mm, 봉천군 165mm, 黃南 신천군 154mm, 黃北 송림시 152mm의 폭우,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부지방 황해남도 대부분 지방에서 초속 10~18m의 강풍
- 북한 추석 및 13~15일, 제8회 ‘대황소상 전국민씨름경기’대회 개최(9/3, 조선중앙TV)

2 대외

가. 일반

● 北김영남 “중국군과 협력 강화할 것”(9/1, 신화통신)

- 북한의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일 “북한은 앞으로 중국과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북·중 양국군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瀋陽)군구 사령관인 장요우샤(張又俠) 중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중국과의 군사 분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최근 한미 양국의 동·서해 합동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중 양국은 최고 지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혁명1세대들의 노력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장 중장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중국 지도부의 인사를 전한 뒤 중국도 양국 우호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면서 선양군구는 양국의 군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 이날 접견에는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박재경 인민군 대장이 배석했다
- 선양군구 대표단은 지난달 25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같은 달 31일 김영춘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을 만났다

● 北노동신문, 中 개혁개방 경제발전 ‘극찬’(9/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조·중(북·중) 친선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획기적 사변’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나라의 번영을 담보하는 비약적 발전이 이룩되고 있다”면서 “호금도(후진타오) 동지를 충서기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 인민은 등소평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의 가치를 내걸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

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호평

- 신문은 이어 “우리 인민은 중국의 면모가 나날이 달라지고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있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중국 인민의 사회주의 위업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 인민이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전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임.
- 사설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높게 평가한 뒤 “우리 인민은 새로운 신심과 낙관에 넘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면서 “세기를 이어오는 조·중(북·중)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강조

기타 (대외 일반)

- 北-쿠바 외교관계설정 50돌 즈음 중앙기념집회, 8/27 권승철(쿠바駐在 北 대사) 등 참가下 쿠바에서 진행(9/1, 중통)
- 김영남, 리비아 9월 1일 혁명 41돌 즈음 ‘카다피’ 국가원수에게도 축전(8/31, 중통)
- 김영남, 우즈베키스탄 독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9/1, 중통)
- 김영남과 최영림 내각 총리, 슬로바키아 헌법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9/1, 중통)
- 베트남 정부수상, 8/31 최영림 내각총리에게 신의주시 수해관련 위문전문(9/2, 평방)

3 대남

● 北, 한미 대잠훈련에 또 “무자비한 타격” 위협(9/3, 우리민족끼리)

- 사이트는 이달 5~9일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에 대해 “호전광들이 분별을 잃고 무모한 도발에 나서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자비한 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
- 사이트는 논평에서 “미국은 이번 ‘연합 대잠수함훈련’ 이후에도 연말까지 10여 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병력과 전쟁수단들을 항시적인 공격상태에 뒀다가 임의의 순간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것”이라고 주장

● 北, 南드라마·불법 휴대전화 강력 단속(9/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경찰 장비를 지원받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은 물론 국경지역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전함.
- RFA는 국경 지역의 보위부와 접촉했다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보안 당국이 중국으로부터 금속탐지기와 같은 새 장비를 지원받았으며 이 장비로 불법 휴대전화 보유 및 남한 드라마 소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에 따르면 예전엔 배터리를 분리해 놓으면 불법 휴대전화 탐지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장비의 현대화로 이런 방법이 소용이 없으면서 이 때문에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만 수십 명이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함.
- 또 한국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이들도 가택 수색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북한이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려고 만든 '130상무'가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들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나섰다고 전함.
- 소식을 전한 통신원은 “과거에는 간부의 집을 검열할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130상무가 조직되면서 간부들도 검열 대상에 들어갔다”고 밝힘.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9.06-09.12

9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신문, 당대표자회 정론서 ‘당은 영원한 향도’(9/6, 노동신문)
 - 44년만의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노동신문은 6일 “백전백승에로의 향도는 영원히 조선노동당의 것”이라며 당의 역할을 강조
 - 신문은 ‘위대한 향도자’란 제목의 정론에서 “오늘 우리 인민이 격정에 설레는 것은 우리의 당과 당 중앙위원회가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향도자임을 온 넋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또 “선군으로 승리한 이 땅 위에 휘황한 내일을 펼쳐 놓으려는 우리 당의 포부와 이상은 원대하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주위)에 철통같이 뭉치고 당을 결사옹위하며 영원히 따르고 받들 것”이라고 밝혀 향후 북한의 국정 운영에서 노동당이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
 - 신문은 이어 “수령님(김일성)께서 두 차례의 피어린 혁명전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끄셔서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전통을 마련하셨다”면서 “전통은 계승되어야 빛난다”고 강변
 - 이 신문은 “위대한 향도자, 그것은 백두산 장군들의 업적에 매혹되고 장군님을 높이 모셔 승리와 영광의 대를 이어가는 세대의 한결같은 민심”이라고 덧붙임.
- 北당대표자회 무슨 사정?...‘지방대표, 열흘 대기중’(9/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이번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지방 대표들을 각 ‘도 소재지’(도청소재지)에 모아 열흘 가까이 대기시켜 놓은 채 본회의 개막을 계속 미루고 있음.
 - 방송은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 “당초 이달 1일 평양으로 출발한다는 계획 아래 미리 ‘도 소재지’에 집결했던 시군 지방당 대표자들이 열흘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면서 “당 중앙위원회가 회의 날짜도 알려주지 않은 채 아무 때나 출발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지시만 되풀이해 오도가도

- 못하는 상태”라고 밝힘.
- 량강도 대흥단군의 소식통은 6일 이 방송에 “우리 군 대표들은 지난달 29일 저녁까지 도 소재지인 혜산시에 도착하라는 도당의 지시를 받고 하루 전인 28일 출발했다”면서 “그 때 도당은 늦어도 9월 1일에는 도 소재지에서 평양으로 출발하니 열흘간 갈아입을 속옷과 현금 4천원씩을 준비해오라고 했다”고 말함.
 - 이 전언대로라면 북한 당국은 당초 ‘3일(금) 행사 등록, 4~5일 김일성 동상 참배 등 평양시내 일정, 6일(월) 본회의 개막’ 정도로 당 대표사회 계획을 잡았다가 뭇지 알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량강도 혜산시 소식통은 “현재 시당과 군당 대표들은 혜명동의 ‘외국인 호텔’에, 방청객 참가자들은 혜명여관에 각각 투숙하고 있다”면서 “계속 오늘 간다, 내일 간다 하며 출발을 계속 연기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함.
 - 방송은 “혜산시에 발이 묶인 지방당 대표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 현지시찰 했던 공장과 기업소,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 사적관 등을 돌아보며 처음 이틀간을 때웠다”면서 “그 후에는 계속 도당 회의실에 모여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기록영화 등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
 - 방송은 이어 “참석자들이 대부분 5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이다 보니 건강 이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일부 나오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행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방중 후 첫 공개활동…공연관람(9/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비공식 방문(8/26~30) 이후 첫 공개활동으로 인민군 호위사령부인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
- 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한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공연주체가 호위사령부라는 점에서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의 공개활동 보도는 지난달 30일 중국 투먼을 거쳐 북한 남양으로 귀환한 직후 북한 언론매체들이 중국 비공식 방문을 일제히 보도한 이

후 9일만이며, 특히 이번주나 내주초에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대표자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림.

- 예술선전대는 혼성중창 ‘경례를 받으시라’, 여성독창 ‘어머니당이어’, 여성 5중창 ‘당은 장군님의 품’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을 무대에 올렸으며, 공연 관람 후 김 위원장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밝힘.
- 공연 관람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기남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간부들이 함께 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김 위원장의 호위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은 지난 2월(중앙통신 보도날짜 2월 18일)과 6월(중앙통신 보도날짜 6월 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 평양시민 “후계자는 정은 동지”(9/9, NHK)

- 방송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한 평양시민이 “후계자인 김정은 동지가 혁명의 위업을 더욱 진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라는 인식이 북한 국민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방송은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이날 중국의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평양 시민임을 자처한 한 남성은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 대한 NHK 방송의 질문을 받고 “우리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동지가 혁명의 위업을 더욱 진전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이 남성은 이어 김정은의 존재에 대해 북한 국민은 이미 알고 있으며 4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지금까지 북한의 매체들은 김정은의 이름과 모습을 단 한 차례도 전한 적이 없지만 이 남성의 발언으로 볼 때 김정은이 김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북한 국민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임.

● **당대표자회 지연에 김정일 건강이상설 확산(9/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개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함경북도 라진시 간부인 소식통을 인용, “지난 7일 함경북도 도당과 행정 간부회의가 도당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도당 비서가 당대표자회 참석차 평양에 가 있는 책임비서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장군님(김정일) 건강이 좋지 않아 회의를 미뤘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 도당 비서는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해 장군님 건강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회의 참석자들을 비판하면서 무의식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임.
- 방송은 또 “당대표자회 개막이 늦어지면서 ‘김정일 와병설’이 주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신의주 소식통의 말을 전함.
- 이어 “김 위원장이 연사흘 공연을 관람했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도 ‘건강 이상’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
-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방중 귀국 이후 1주일 이상 공개활동을 하지 않다가 인민군 호위사령부 예술선전대(보도날짜 8일), 인민군 직속 공훈국가합창단의 ‘9월 음악회’(보도날짜 9일),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보도날짜 10일)를 잇따라 관람

● **北당대표자회 앞두고 내부 통제 극심(9/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사실상 ‘계엄상태’를 선언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함경북도 연사군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각 지방별 당대표자회가 열린 지난달 25일부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등을 총동원해 계엄상태에 들어갔다”면서 “모든 도로를 통제할 뿐 아니라 국경지역의 도시에서는 마을 주변의 오솔길에 잠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짐을 살살이 뒤지고 있다”고 전함.
- 그는 방송에 “각 인민반별로 경비초소를 보강하고 경비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경비를 강화했고, 밤에는 공동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말함.

- 양강도 혜산시의 소식통은 “양강도는 겨울이 길어 9월 초에는 감자수확을 시작해야 하는데 ‘당대표자회가 끝나고 하라’는 상부의 지시때문에 미루고 있을 정도”라고 밝힘.
 - 방송은 함경북도 회령의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초 조직된 ‘130상무’가 시도 때도 없이 금속탐지기로 불법라디오, 휴대전화, DVD, 컴퓨터 등 모든 가전제품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으로부터 기술장비를 지원받은 뒤 노동당 간부의 집까지 수색범위를 넓히는 등 전례없는 통제에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함.
- 北김정일, 자강도 광산 시찰…당대표자회는 언제?(9/1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에 위치한 ‘3월5일청년광산’을 현지 지도(시찰)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노천채굴장, 대형파쇄장, 선광장 등의 생산공정을 오랜 시간 돌아보고 기술개진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이해)했다”면서 “생산공정을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술개진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힘.
 - 이번 현지지도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경희·태종수·홍석형 당 부장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소개
- 北김정일, 이틀째 자강도 시찰…당대표자회 ‘감감’(9/1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만포시에 위치한 만포문화공장을 현지지도하고 공장 안팎을 돌아봤다고 전함.
 - 통신은 김 위원장은 이 공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생산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힘.
 -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과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태종수·홍석형 당 부장,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가 수행

■ 김정일동향

- 9/7 김정일, 백두산선군혁명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한세, 대학병원 의사 최용림 등) 「감사」 전달(9/7, 중방)

- 9/ 8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및 「감사」 전달 (9/8, 중통·중방)
 -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黨 비서) 등 동행 관람
- 9/ 8 김정일, 중국 호금도 주석의 큰물피해 관련 위문전문에 대한 답전 발송(9/8, 중방)
- 9/ 9 김정일, 정권 창건 62돌 즈음 공훈국가합창단의 '9월음악회' 관람(9/9, 중통)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태종수(黨부장들), 김명국·김원홍·현철해(軍 대장들) 등 동행
- 9/10 김정일, 정권 창건 62돌 즈음 '은하수 9월 음악회' 관람(9/10, 중통)
 -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黨 비서),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총참모장),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과 함께 관람
- 9/10 김정일, 시리아 대통령과 베트남 총비서 생일 축전 각각 발송(9/10, 중통)
- 9/11 김정일, 자강도에 위치한 '3월5일청년광산' 현지지도(9/11, 중통)
 - 박도춘 자강도 당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경희·태종수·홍석형 당 부장이 동행
- 9/12 김정일, 자강도 만포시에 위치한 만포문화공장을 현지지도(9/12, 중통)
 -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과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태종수·홍석형 당 부장,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가 수행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비공식 訪中(8/26~30) 성과(조-중 친선의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 사변 등) 持續 칭송, 선전(9/7, 평방)
- 김일성父子 영상 모자이크벽화, 룡하림산사업소·대흥단군 감자연구소·무산군·조양탄광과 사리원시 봉의협동농장에 각각 건립(9/8, 중통)
- 정권창건 6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9/8, 중통·중앙TV·평방)
 - 김영남, 최영림(보고), 김영춘, 이용무, 오극렬, 전병호, 최태복, 이영호, 김정각, 김국태, 김기남, 양형섭, 김연대, 유미영 등을 비롯한 당과 국가간부들, 우당위원장들 등 참가
- 항일빨치산 출신 '강건' 사망 60돌 중앙추모회,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9/8, 중통)
 - 김영남, 오극렬, 이영호(추모사) 등을 비롯한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등 추모회 참가
- 정권 창건 62돌 즈음 사설을 통해 金父子 혁명위업·선군영도 찬양과 金민은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을 맞은 올해 김정일의 두리에 일심단결로 △군력강화 △강성대국 건설 △인민생활향상 전환 △조국통일 투쟁 등 주문(9/9, 평방)

나. 경제

● 北, 게임 개발로 외화벌이(9/6, 블룸버그 통신)

- 북한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통신은 북한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합영회사 '노소텍' 경영진의 말을

- 인용, 북한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 영화 ‘위대한 레보스키’와 ‘맨 인 블랙’에 바탕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경기부양에 나서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
- 이들 게임은 특히 ‘오즘(Ojom)’사에서 출시했다가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의 ‘뉴스코프’가 이 개발사를 매입한 뒤 ‘폭스 모바일’이라는 업체로 개편, 관리하고 있음.
- 유럽의 정보기술 자문회사인 ‘GPI 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북한이 중국 등 해외기업과 연계해 게임을 개발, 출시하면서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소프트웨어 개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추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 북한의 게임 개발 및 해외 판매와 관련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 수석연구원은 “북한 정부에 돈을 건네는 거래는 모두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에 반한다”면서 북한이 모바일 기기와 프로그램 개발로 해킹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오즘 계열사를 운영하다 2007년 북한과 함께 노소텍을 창립한 볼커 엘로서 대표는 게임 프로그램과 사이버 첩보활동은 무관하며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 엘로서 대표는 나아가 북한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기술 교육이 크게 개선됐다면 북한에는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직원을 둔 소프트웨어 업체가 다수 있다고 전함.

기타 (대내 경제)

- 北중앙물리탐사단과 중앙광물자원조사단 및 함경남도탐사관리국 등의 정보과학기술탐사방법을 도입, 검덕지구 등 지질구성과 광물매장량 탐사성과 등 자랑(9/6, 중통)

다. 사회·문화

- **끓주린 北주민들, 中國경 넘어 ‘원정 절도’(9/8,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끓주림에 건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이 국경 부근 중국 마을까지 건너가 농작물을 훔치거나 나무를 도벌하는 사례가 급증, 북·중 양국간 갈등을 빚고 있음.

- 방송은 함경북도 연사군 주민의 전언을 인용, “적계는 5~6명, 많게는 10여 명씩 무리를 지어 두만강을 건너간다”면서 “대부분 식량을 훔치려고 국경을 넘지만 약초를 캐러 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밝힘.
-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고사리, 생열귀, 오미자, 룡담초 등의 약초를 중국에 내다팔아 부족한 식량을 충당해왔는데 이런 현물 거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요즘 북한 땅에는 약초 씨가 거의 말랐다고 방송은 덧붙임.
- 중국 투먼(圖們)의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중국 땅에 들어와 나무를 도벌하는 사례가 늘어 비상이 걸렸다”면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산림훼손과 농작물 절도죄로 구속됐다가 투먼 세관을 통해 돌려보내진 북한 주민이 200명 이상”이라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투먼교도소에 북한 주민 30여명이 수감돼 있는데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중국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월경 절도가 늘자 연변자치주 공안 당국이 북한 측에 국경질서를 더 엄격히 잡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임.
- 북한 량강도 소식통은 “중국에 들어가 약재용 나무껍질을 벗기다가 제지하는 산림감독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혜산시 주민 6명이 지난 4일 압록강세관을 통해 인도됐다”면서 “조만간 모두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함.
- 이런 사례가 잦아지면서 국경 근처의 중국 주민들은 밭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치고 사냥개를 여러 마리 기르거나 사냥총으로 무장하고 경작지 주변을 지키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北주민들, “남한 구호물자 수재민에 도움 안돼”(9/9,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수해 구호물자를 지원해도 이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함.
- 친척을 방문하려고 보름 전 중국에 왔다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 림주리(가명)씨는 “이곳에서 남조선 텔레비전을 보고서야, 남조선이 수해지원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간부들만 배불리

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방송에 말함.

- 림씨는 “조선(북한)에 있으면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도 전혀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면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만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임.
- 5년 전 북한을 빠져나왔다는 장모씨는 “과거 남조선에서 쌀과 비료를 대량 지원했을 때도 직접 혜택받은 주민은 없었고, 지원 물자 일부가 장마당에 흘러나와 팔리는 정도였다”면서 “당시 북한 당국은 장군님(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두려움을 느낀 남조선이 쌀과 비료를 보내왔다고 선전했다”고 소개
- 그는 “이번에 남조선이 구호물자를 보내도 북조선에서 그대로 보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쌀의 경우 품질이 좋으면 당과 군 간부나 일부 외화벌이 식당 등에 공급되고, 중장비와 시멘트는 수해복구 현장이 아니라 평양 10만세대 주택건설 현장이나 희천발전소 공사장 같은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함.

● **북한 영유아 19%, 설사로 고통(9/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과 수질 상태가 나빠 5세 이하 어린이 10명 중 2명꼴은 수인성 설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함.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세계 물 주간’(World Water Week)을 맞아 RFA와 가진 회견에서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한 물 공급 상태와 수질이 좋지 않아 설사 환자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5세 이하 영유아 중 19%가 설사를 앓고 있다”고 밝힘.
- 유니세프는 이어 “북한에서 설사가 영유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영유아의 설사병 전염률도 높아 아프리카 최빈국들의 평균 수치인 24%에 근접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신의주 주민, 식량 부족 호소’(9/12, 조선신보)**

- 신보는 “(신의주) 현지에서 주민 생활안정에 절실한 식량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연료, 천막 등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
- 평안북도 큰물피해방지대책 연합지휘부의 책임자 홍정호(46)씨는 조선

- 신보와 인터뷰에서 “각 도와 성, 중앙기관에서 보내온 식량과 국제기구 등에서 보내온 식료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홍씨는 “8월 30일까지 많은 주민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수해로 집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주민들은 안전한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멘트와 목재 등 건설자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피해를 본 수 천여명의 주민들에게 제때에 구호물자가 지급되도록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소개
 - 홍씨는 “복구작업에 쓰이는 흙이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복구에 상당한 노력과 힘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黃南 신천·재령·안악·태안 등지에서 태풍 7호에 의해 수십채의 살림집·공공건물 등이 파괴, 특히 3천여 정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김용구(黃南道 인민총책임무원)의 피해복구소식 보도(9/6, 평방)
- 태풍9호 ‘말로’의 영향으로 오늘(9/6) 전반적 지방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렸으며 “동서해 중부해상과 내일 동서해 북부해상은 강풍이 예상되니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것” 당부(9/6, 중방)

2 대외

가. 일반

- **홍콩, 역내 對北투자증개사 조사착수(9/8, 자유아시아방송(RFA))**
 - 홍콩 당국이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인 역내 투자증개사의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
 - 방송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지난 5일 경찰과 재정사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에 북한 ‘대동신용은행’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피닉스커머셜벤처사(社)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를 지시
 - 피닉스커머셜벤처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대북 투자증개 전문회사로 홍콩에도 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자금을 추적해온 가토 켄(加藤健) ‘아시아국제

인권' 대표는 이 방송에 “대동신용은행의 나머지 지분 30%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대외거래 결제은행인 ‘조선대성은행’이 갖고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홍콩 관리들에게 이메일로 알리고 조사를 촉구했더니 지난 5일 조사하겠다는 답장이 왔다”고 밝힘.

- 북한의 대동신용은행과 조선대성은행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경고대상 금융기관 목록에 올라 있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처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은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금융제재 대상 가운데 하나임.
- RFA는 “홍콩 관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카토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다른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제금융의 중심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홍콩이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차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임.

● **버진아일랜드, 北계좌 ‘돈세탁’ 조사 착수(9/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조선대풍투자그룹(대풍그룹)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역내 은행에서 불법 무기거래 자금 등을 세탁한 뒤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버진아일랜드 당국이 조사에 착수
- RFA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자금을 추적해온 일본의 인권운동가 가토 켄(加藤健) ‘아시아국제인권’ 대표는 버진아일랜드 정부에 북한의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 지난 7일 버진아일랜드 금융거래위원회의 재클린 윌슨 법집행국장으로부터 “그 같은 의혹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요지의 이메일을 받았음.
- 한편 데일리NK는 지난달 30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 “대풍그룹이 버진아일랜드의 퍼스트캐리비언은행에 개설된 ‘하나홀딩스’란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불법 무기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북한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고 전함.
- 대풍그룹은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개발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외자유치 창구임.
-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추가제재 대상에는 대풍그룹이 포

함대 있지 않지만, 홍콩 금융당국은 역내에서 영업중인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풍그룹과의 거래 내역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브라질 독립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9/7, 중통)
-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조선관의 날' 행사, 9/6 北 정부대표단(단장 : 황학원 도시경영상)·박명호(駐中 北 대사관 공사)·곽윤중(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등 참석下 진행(9/8, 중통)
- 中 인민대외우호협회 등, 9/7 北 정권 창건 62돌 즈음 연회 마련(9/8, 중방)
- 駐쿠바 北 대사관, 9/3 北 정권 창건 62돌 즈음 연회 마련(9/8, 중방)
- 김영남, 9/7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의 61돌 생일 관련 축전(9/8, 중통)
- 中 국가 주석 '호금도' 등 黨 및 국가 지도자들, 9/8 김정일·김영남·최영림 내각 총리에게 北 정권 창건 축전 발송(9/9, 중방·중통)
- 이란·레바논·인도 대통령 등 親北 국가 지도자들과 「총련」 등에서 각각 축전 발송(9/9, 중방·평방)
- 中 인민대외우호협회와 中朝우호협회(회장 : '무동화')의 9/7 최병관(駐中 北 대사) 등 초청下 연회 개최 및 「총련」의 경축연회와 중앙강연회 소식도 보도(9/9, 중통·중방)
-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제브', 김정일에게 정권 창건 축전 발송(9/9, 중통)
- 쿠바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김정일과 김영남에게 축전 발송(9/9, 중통)
- 김영남, 타지키스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9/9, 중통)

3 대남

● 北, “남조선 어선, 선원 송환 결정”(9/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대승호 선원과 어선을 송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통신은 기사에서 “우리 경제수역을 침범했던 남조선 어선과 선원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선원) 본인들이 행위의 엄중성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남조선 적십자사가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해온 것을 고려했다”고 밝힘.
- 통신은 구체적인 송환 날짜와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8월 8일 남조선 어선 ‘55대승호’가 우리측 동해경제수역에 침범해 비법적인 어로활동을 하다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해 단속됐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행위”라고 덧붙임.

● 北적십자 “대승호선원 7일 오후 4시 송환”(9/6, 연합뉴스)

- 북한이 나포한 대승호와 선원 7명(한국인 4명, 중국인 3명)을 7일 오후

4시 동해군사경계선(동해 북방한계선)에서 남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적십자 채널을 통해 통보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힘.

- 통일부는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오늘 오후 2시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하며, “우리 해경이 북측이 언급한 시간인 7일 오후 4시 해당 구역에서 대승호 및 선원들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말함.
- 북측이 대승호와 선원들의 송환 장소로 언급한 동해군사경계선은 과거 우리 어선 나포 당시 송환 장소로 이용했던 지점인 것으로 알려짐.
- 북측 조선중앙통신은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과 비슷한 시각에 구체적인 송환 시간과 장소는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경제수역을 침범했던 남조선 어선과 선원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선원) 본인들이 행위의 엄중성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남조선 적십자사가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해온 것을 고려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북측의 대승호 및 선원 송환 발표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北, “쌀, 중장비, 시멘트 달라”(9/7, 연합뉴스)

- 북측이 최근 적십자 채널을 통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4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쌀과 중장비, 시멘트 지원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음.
-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북측의 수해와 관련해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의한 데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보임.
-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26일에 조선적십자회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도 지원품목과 규모(100억원), 지원경로 등 세부 계획을 담은 통지문을 다시 발송했었음.
-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지원 계획에는 북측이 요구해온 쌀과 중장비, 시멘트는 포함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북측의 지원요청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가 북측의 제의를 수용할 경우

천안함 사태로 뽐뽐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임.

● 北, 南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의(9/1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0일 대한적십자사측에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전함.
-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유종하 한적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시기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한 좋은 전례를 가지고 있다”며 “올해에도 이날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밝힘.
- 장 위원장은 이어 “이번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금강산 상봉을 계기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북남적십자관계자들의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함.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9.13-09.19

9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북한서 김정일한테 ‘위대한 수령’ 호칭(9/14, 미국의 소리(VOA))**
 - 최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친애하는 지도자’ 대신 고 김일성 주석을 지칭하던 ‘위대한 수령’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목격됨.
 - 지난달 초 북한을 방문한 국제 기독교선교단체 ‘오픈 도어즈’의 폴 에스 타부룩 국장은 “6월까지만 해도 ‘BBC방송’ 등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북한 주민과 안내원들이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은 ‘친애하는 지도자’로 구분해 호칭했다”면서 “이번 방북 기간 관찰해 봤더니, 김일성한테 붙였던 ‘위대한 수령’을 김정일한테 쓰고,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바꿔 불렀다”고 이 방송에 밝힘.
 - 에스 타부룩 국장은 이어 “김정일한테 쓰던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호칭은 전혀 듣지 못했는데, 후계자 김정은(김 위원장 셋째 아들)을 위한 남겨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임.
 - VOA는 그러나 에스 타부룩 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호칭을 들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 또 “평양 봉수교회 예배의 설교 주제도 ‘평화와 통일’이고, 비무장지대(DMZ)의 북한군 구호도 ‘평화와 통일’이었다”면서 “가는 곳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선전구호가 나타나 인상적이었다”고 말함.
- **北노동신문 ‘당 중심 유일영도체제 확립’ 촉구(9/14, 노동신문)**
 - 44년만에 소집된 북한 노동당의 제3차 대표자회를 앞두고 신문이 당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을 촉구
 - 신문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당 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당의 강화 발전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 혁명의 전도가 달려 있다”면서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당 조직과 일꾼(간부)들은 당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 역량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

- 신문은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 지칭)의 두리(주위)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면서 “전체 당원들이 주체형의 붉은 피로 심장을 끓이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전진하는 것이 우리 당의 참모습”이라고 강조
- 이 사설은 또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이 다가오는 지금”이라는 표현을 써 14일 오전 현재 당대표자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시사
- 신문은 이날자 2면에도 ‘논설’을 실어 “조선노동당은 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주는 위대한 향도자”라고 밝힘.

● 北김일성방송대 홈페이지, “후계자 유일영도 확립해야”(9/15,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이 44년만에 소집된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직영 교육기관인 ‘김일성방송대’ 홈페이지에 ‘수령 후계자’를 제대로 뽑아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주목됨.
- 남한의 방송통신대에 해당하는 ‘김일성방송대’는 북한의 노동당 당원과 일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노동당 직영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각에서는 내각 교육위원회 산하라고 추측
- 15일 김일성방송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민족강당’을 보면 ‘수령의 후계자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2장 분량의 글이 올라옴.
- 이 글은 “수령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정치적 수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고, 수령의 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 담보”라며 우회적으로 김정은(김정일 위원장 셋째 아들) 후계체제의 당위성을 부각시킴.
- 글은 또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지 못하면 후계자가 아무리 준비된 인물

이라 해도 오랜 기간 진통과 곡절을 겪게 된다”면서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철저히 세워야 후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 후계자 중심의 유일영도체제 확립을 재차 강조

- 글은 후계자의 요건과 관련,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과 공헌으로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 권위와 위신을 지닌 걸출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추대해야 한다”면서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후계자를 옳게 세우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지만 후계자를 잘못 내세우면 정치적 야심가와 음모가들에게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탈취당하게 된다”고 경고

● **北당대표자회 연기…수해로 정족수 미달(9/15, 좋은벗들)**

- 북한 노동당이 ‘9월 상순’에 연다고 했던 제3차 당대표자회가 수해로 인한 개회 정족수 미달로 결국 연기
- 북한 현지소식통을 인용, “14일 저녁까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당대표자회를 연기하기로 결정됐다고 한다”면서 “평양에 모여 개회를 기다리던 전국 각지의 대표자들이 15일 아침 이런 방침을 통보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힘.
- 이 단체는 연기 배경과 관련, “수해로 도로가 끊기고 교통이 두절되는 바람에 상당수 지방 대표자들이 평양에 올라오지 못해 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달 말쯤 당대표자회 일정을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내달 10일 ‘당 창건일’ 이전으로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 단체는 “원래 이번 당대표자회는 지난 4일부터 참가자 등록을 시작해 7~8일 본회의를 갖고 그 다음날 9.9절(정권수립일)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짜여졌는데 계속 미뤄진 것”이라고 덧붙임.

● **北당대표자회, 결국 김정은 때문에 연기(9/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달 상순에 열린다고 했던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북측의 공식 언급이 나오지 않아,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도 엇갈리고 있음.
- RFA는 이번 당대표자회가 연기된 배경과 관련, 후계자 김정은(김정일

- 국방위원장 셋째 아들)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6일 전함.
- 이 방송은 북한 고위층과 연계가 가능한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이달 초 평양에서 당대표자회 관련 예비회의가 열려 김정은을 공개할지 여부가 논의됐다”면서 “김정은의 공개와 관련된 당 지도기관의 재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20대인 김정은을 당내 지도급 인사로 추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본 것 같다”면서 “김정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난 데다, 수해와 태풍 피해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방송에 말함.
 -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 “연기 이유로는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가장 크고, 다음은 김정은의 공식 등장을 앞두고 선군정치 체제에서 어느 정도로 개혁·개방 수위를 가져갈지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 북한이 6월 하순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 방침을 공표할 때만 해도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되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개혁·개방은 배척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난달 하순 김 위원장의 방중 때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으로부터 개혁·개방을 주문하는 압박을 강하게 받아 ‘수위조절’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이 방송은 설명
 - 북한인민해방전선은 지난 13일 양강도 국경경비대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 스스로 ‘후계자 자질과 품모를 더 갖추고 나서 공식석상에 나서겠다’며 당대표자회에서 추대되는 것을 거부해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

● 北, 김정은 사진 당간부들에 배포(9/17,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 당국이 이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 사진을 노동당 간부들에게 배포했다고 전함.
-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전언을 인용,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인 이달 초부터 노동신문 특집화보가 중앙당과 지방 시·도당 간부들에게 배포했다”면서 “이 화보는 대부분 김 위원장의 방중 활동 사진들로 채워졌지만 김정은 사진도 4~5장 실렸다”고 밝힘.

- 또한 “내주부터 일반 주민들도 화보를 보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면서 “김정은 사진을 일반 주민들에게 회람토록 하는 것은 조만간 열릴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등장시키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지적

김정일동향

- 9/14 김정일, 러시아 ‘메드베제브’ 대통령 생일 관련 축전 발송(9/14, 중통)
- 9/16 김정일, 100살 장수자 리학녀(女, 平南 문덕군 읍 거주) 노인에게 ‘생일상’ 전달(9/16, 중방·중통)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訪中(8/26~30) 관련 “北-中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고, 東北亞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의의있는 계기”로 평가(9/13, 중통·노동신문·평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062호, 9/1 26개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 수여(9/14, 중방)
- 김일성 저작 ‘중국 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자’ 발표(1945/9/15) 65돌 즈음 “조-중 친선은 특수하고 공고한 관계”로 김정일의 이번 비공식 訪中도 ‘조-중친선 불변을 다시금 만방에 보여 주었다’고 선전(9/14, 중방·중통)

나. 경제

● 北, 관세 대폭 인상…中변경무역 위축(9/16,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
- 중국 연변(延邊)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최근 함경북도 일대 북한 세관들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종전보다 배 이상 높게 적용하고 있음.
- 북한을 오가며 보따리 무역을 하는 연변의 한 무역상은 “종전 10t 트럭 한 대당 2만 위안(북한 돈 400만 원)가량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이 지금은 5만 위안(북한 돈 1천만 원)으로 배 이상 인상됐다”고 말함.
- 이 무역상은 “북한 세관들이 지난 두 달여 동안 ‘상부에서 검열이 나왔다’는 이유로 중국산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며 “최근 통제가 완화됐지만 관세가 너무 올라 무역상들이 북한으로 물건을 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최근 투먼(圖們) 카이산툰(開山屯)에서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세관을 통해 7t 가량의 중국산 생필품을 들여간 북한 무역일

꾼이 3만5천 위안의 관세를 물었다”며 “중전에는 1만4천 위안이면 족했다”고 말함.

- 또한, “관세뿐 아니라 북한 세관원들이 요구하는 TV나 가구 등도 장만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무역일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중국과의 변경무역도 크게 위축됐다”고 말함.
- 그는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가지고 나온 돈이 얼마 안 된다”며 “관세를 물고 나면 물건을 해갈 돈이 얼마 안 되는데다 이익을 남기려면 가격을 많이 올려 팔아야 하는데 화폐개혁 이후 경제가 악화된 북한에서 제대로 팔릴지도 의문이어서 이번엔 그냥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함.
- 그는 또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중국산 물품 반입이 크게 줄면서 최근 북한의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말함.

기타 (대내 경제)

- 北국가우표발행국, 김일성 생일 100돌 즈음 연재우표(소형전지 2종, 묵지 5종, 2012년 4월까지 발행) 발행(9/13, 중통)
- 北함흥시, 용성기계연합소의 선군주철공장 건립·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대상 건설·28비날론연합기업소 주체섬유 생산 등 경제강국건설 투쟁에서 성과 이룩(9/13, 중통)
- 北‘봄향기’(신의주화학공장 생산) 화장품, 전국의 백화점과 농촌상점들에서 판매되어 주민들에게好評(9/13, 중통)
- 黃南 해주시·안악군 등지의 협동농장, 강냉이 가을걷이에서 성과 이룩(9/16, 중방)
- 北,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제작한 ‘심장수술용 봉합실 고정기’, ‘고려의학진단치료기’ 등 소개(9/16, 중방)

다. 군사

● 北, 전국 규모 군사훈련 진행중(9/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당대표자회 지연으로 흐트러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전국 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음.
- 방송은 다수의 북한내 소식통들을 인용, “지난 15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특수부대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면서 “양강도, 함경남

- 도, 황해북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쌍방훈련’이, 그외 지역에서는 민간대피훈련과 등화관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이어 “쌍방훈련은 특수부대가 적군으로 가장해 공장, 기업소, 국가 주요기관 건물을 습격하고, 민방위 무력이 해당 지역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특수부대는 강원도, 황해도와 북부 산간지대 사이를 이동하면서 낮은 지형의 목표물을 찾아 기습 타격하는 능력을 키우고, 민방위 부대들은 적의 침투에 실전 대응하는 능력을 기른다”고 설명
 - 양강도 혜산시 소식통은 “대개 쌍방훈련은 겨울철에 10~15일간 한다”면서 “이처럼 가을철에 짧게 훈련하는 것은 당대표자회가 열리지 않아 민심이 흉흉해지자 주민들을 긴장시키려는 의도인 듯하다”고 말함.
 - 소식통은 또 “훈련 기간 적위대원은 공장방어를, 교도대원은 특수부대 추격·소탕을, 부녀자들로 구성된 ‘3.18부대’는 부상병치료와 전투식량 전달 임무를 맡는다”면서 “이처럼 인민반 부녀자들까지 동원돼 주민 대부분이 훈련에 매달려 있는 분위기”라고 전함.
 -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임의의 시각에 사이렌이 울리면 이틀분 식량을 갖고 시내에서 30~40리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아무리 정세가 긴장돼도 일손이 바쁜 가을철에 군사훈련을 한 적은 없었는데, 당국이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거론하며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말함.
 - 방송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실전을 방불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당대표자회 연기로 어수선해진 북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하다”고 지적

라. 사회·문화

● 北, 곤파스로 수십명 사망(9/15, 조선중앙통신)

- 이달 초 한반도를 관통한 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주택 8천여 세대가 파손
- 통신은 “폭우와 강한 비바람, 산사태로 전국적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8천380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돼 많은 사람들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힘.

- 통신은 또 “일부 지역에서 송전선이 끊어지고 수원지와 상수도망이 파괴돼 전기와 식수 공급이 중단됐으며, 교통 두절로 식량과 의약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난관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 이밖에 250m 구간의 철길에서 6천200㎡의 노반이 무너지는 등 총연장 66km(6만5천980m)의 철길이 태풍 피해를 봤다고 통신은 말했다.

● **평양서 북한·영국여자축구 친선경기(9/17, 조선신보)**

- 신보는 영국 프로축구클럽 미들즈브러의 여자팀이 친선경기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
- 신보는 “미들즈브러시 여자축구팀이 오늘(17일) 평양에 도착해 조선(북한) 여자축구팀과 19일과 21일 두 차례 친선경기를 갖는다”면서 “미들즈브러는 조선 남자축구대표팀이 1966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팀을 이긴 곳으로, 조선 축구와 인연이 깊은 도시”라고 소개

● **北추석 씨름대회 리조원 우승…상금은 1t 황소(9/17, 조선신보)**

- 신문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시 ‘릉라도 씨름경기장’에서 열린 ‘제8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에서 리조원이 우승을 차지했다면서 그에게는 “980kg짜리 대황소와 금소방울, 상장이 수여됐다”고 보도
- 이어 “지난 15일 열린 결승경기에서 99kg인 리조원은 105kg으로 자신보다 덩치가 큰 평양시의 박광철(31)을 맞아 재치있는 ‘들배지기’와 ‘들어잡지기’로 승리했다”고 소개

● **평양 신축 아파트에 방공호 건설(9/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부터 아파트 단지 내 지하대피소 설치를 의무화한 데 따라 평양시에 건설 중인 10만 세대 아파트에 지하 방공호가 마련되고 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평안북도 삭주군의 소식통을 인용,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공사에 참여하면서 지하대피소가 건설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지하 대피소는 유사시 적의 공습이나 화학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이 피신할 수 있게 만든 공간으로 아파트 건물기초 벽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량강도 혜산시의 한 주민도 RFA에 “지난해 5월 ‘150일전투’(주민 동원형 증산운동)가 시작되면서 일반 아파트도 대피소를 설치하라는 당 중앙군 사위원회 지시문이 내려왔다”고 밝힘.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7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평양대외문화교류센터에서 개막(9/13, 평방)
- 제7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폐막식, 최태복(黨 비서)·김정숙(대외문화연락위원장/폐막 연설) 등 참가자 진행(9/15, 중통)
- 경희극 ‘산울림’ 공연, 함경북도 청진에서 진행(9/16, 중통)
- 平北 신의주시 당원들과 근로자들, 8월에 내린 폭우피해 복구사업(침수된 섬마을 살림집 건설, 철길·제방복구작업 등)에서 성과 이룩(9/16, 중방)
- 北 조선요리협회, 약산미나리·낙규·산들쪽 등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남새와 과일을 이용한 새로운 ‘음식가공방법’ 완성(9/16, 중방)

2 대외

가. 일반

● 유엔총회 北 대표로 박길연 부상 참석(9/15, 연합뉴스)

- 제64차 유엔총회 북한 측 대표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참석할 것이라고 유엔 고위관계자가 밝힘.
- 이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박 부상이 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기타 (대외 일반)

- 北 인민보안부 대표단과 라오스 안전보위성 대표단 사이 회담, 주상성(인민보안부장), ‘통반 썬아 편’(라오스 안전보위장) 등 참가자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9/14, 중통)
- 캄보디아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 9/11 ‘리인석’ 캄보디아駐在 北 대사를 통해 平北 신의주시 큰물피해 위문금 전달(9/14, 중통)
- 박의춘 외무상, 北-멕시코 외교관계 설정 30돌 즈음 상대국 외무상에게 9/4 축전(9/14, 중통)
- 北 외무성 대표단(김형준 부상), 쿠바,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방문차 평양 출발(9/14, 중통)
- 김영남, 訪北 라오스 안전보위성 대표단과 담화(9/15, 중통)

- 최태복(黨 비서), 訪北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싼크트 펠텐시’위원회 대표단과 담화(9/15, 중통)
-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9/15 과테말라 독립 189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9/15, 중통)
- 『제5차 北-美 군부 대좌급 실무접촉』, 판문점에서 진행(9/16, 중통·중방)
 - 북측은 朝-美 공동검열단 명칭, 단장급수, 인원수 등을 각기 자기측에 편리하게 정하고 될수록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진입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제6차 접촉을 28일경 판문점에서 가지기로 하였음.
- 김영남,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스웨덴 대사(바르브르 엘름)에게 신임장 접수(9/16, 중방)
-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멕시코 독립 200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9/16, 중통)

3 대남

- 北, 남한쌀 수용 ‘일제때 보급투쟁 비슷’ 선전(9/14, 열린북한방송)
 - 남측 대한적십자사가 수해구호용 쌀지원을 제안하기 전부터 북한 당국은 남한의 쌀 지원을 받는 것이 일제 때 ‘보급투쟁’과 비슷하다고 선전
 - 방송은 함경북도 무산의 소식통을 인용, “지난 11일 당원만 참석하는 토요강연회에서 ‘남조선 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수해구호용 쌀 지원을 제안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달됐다”면서 “하지만 강사는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도 남북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또 “강연에서는 남조선 쌀을 받는 것을 항일 무장투쟁 시기 일제로부터 쌀을 빼앗아 보급품으로 썼던 것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를 전해들은 주민들은 ‘모두 군대에 주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남조선 쌀이 지원된다는데도 주민들의 기대는 ‘시장에서 중국산 쌀값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전단살포와 NLL문제 논의하자”(9/16,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전단살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확인
 - 정부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전날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정부 관련부처에서 회담 수용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소식통은 “북한은 전통문에서 전단 살포와 북방한계선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북한의 회담 제의 진정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전통문에 명시한 의제로 봐서는 생산적인 회담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제라면 현재로선 회담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함.
-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지난 2008년 10월 2일 개최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음.

● 北, “10월 21~27일 이산가족상봉 갖자”(9/17, 연합뉴스)

- 북측은 1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오는 10월 21일에서 27일까지 금강산 지구 내에서 1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실무접촉 기초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봉 장소로는 ‘금강산 지구 내’를 제시했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남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봉을 정례화할 것과 이번 상봉에서는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고 전함.
-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일자로 오는 10월 19일~24일을 제시했으며, 북측이 ‘금강산 지구 내’로 언급한 상봉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 장소를 명시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
- 북측이 제의한 상봉 일정이 하루 더 긴 것은 보통 2박 3일씩 1, 2진으로 나눠 진행되는 상봉 일정 사이에 하루의 여유를 두자는 의미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
-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단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실무접촉을 시작, 약 55분 만인 오전 11시 25분께 오전 회의를 끝냈음.
- 남북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양측이 제시한 상봉 일정 등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할 예정

- 남측에서는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인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수석대표)과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이 대표로 나섰으며, 북측에서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박형철 대표가 대표단으로 나왔음.

● 北, 쌀지원 불평...‘겨우 5천t, 차관형식’(9/19, 통일신보)

- 신보는 19일 “남조선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북의 동포들에게 수해 물자를 지원하고 쌀을 보내준다고 법석 떠들었는데 정작 지원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쌀 5천t이었다”면서 “그 심보, 속통의 크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비난
- 신보는 ‘대북지원의 손’이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올해 북의 신의주, 개성을 비롯해 전반적 지역에서 큰물이 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생겼으며 수 많은 논밭이 물에 잠겨 식량사정이 어렵게 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측이 보내겠다는 쌀 5천t은 공화국 주민 하루분의 분량도 안되는 것”이라고 불평함.
- 이 신문은 “그나마 빌려준 쌀을 후에 돈으로 받는다든 차관형식이고 그것마저도 남북관계의 파국적 위기를 북이 초래한 듯이 사실을 거꾸로 묘사하며 갖은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주장
- 이어 신문은 “큰물피해를 입은 동족에게 쌀을 조금 주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통일기금은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가”라며 “남과 북은 한 혈육이고 지금은 통일로 가는 과정이다.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하려면 마음 속의 단힌 문부터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

■ 기타 (대남)

- 南 1함대사령부의 대규모 해상기동훈련(9/14~17, 동해) 실시를 “조선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9/14, 중방)
- 北 ‘조평통’ 서기국, 9/15 國防部の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발표(9/13)를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보도 제964호’ 발표(9/15, 중통·9/16, 중방)
-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며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투쟁 煽動(9/16, 중통·노동신문)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9.20-09.26

9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일, 인민내무군 취주악단 공연 관람(9/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의 공연을 관람
 - 통신은 “조선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은 공연무대에 취주악 ‘당은 장군님의 품’, 트럼펫 독주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금관4중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고 밝힘.
 -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공연 관람을 마치고 공연활동에서 지침이 되는 과업을 제시했다고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이날 공연 관람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현철해 대장 등이 동행

- 北, 당대표자회 28일 개최(9/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준비위원회는 애초에 ‘9월 상순’으로 예고했던 44년만의 당대표자회를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발표
 - 준비위는 “조선노동당 인민군대표회, 도(정치국) 대표회에서는 김정일 동지를 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했다”며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노동당대표자회는 28일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그러나 당대표자회가 연기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음.
 - 준비위는 또 “대표회에서는 혁명적 대고조의 전투장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일꾼들이 대표로 선거됐다”면서 “대표회들은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 있게 과시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北김정일, 깜빡 조는 현상 반복(9/21, 자유아시아방송(RFA);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중국 방문(8/26~30) 당시부터 5분

- 정도씩 깜빡 잠들었다가 깨는 현상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되는 건강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북한이 '9월 상순' 개최를 예고했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연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도
- 방송은 평안북도의 당 고위간부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중국방문 당시였으며 동행한 북한 의료진과 중국 의료진도 빨리 귀국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다”면서 건강이상 증세와 관련해 “현기증이 심해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다 5분 정도씩 깜빡 잠들었다가 깨는 현상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된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치료하면 건강상태가 좋아져 대표자회에 참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회의 일정도 변경시키지 않았다”며 “하지만 노동당 대표자들이 모두 평양에 집결한 이후에도 호전될 것처럼 보이던 김 위원장의 이상증상이 지속됐고 회의장에서 졸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회의를 연기한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당대표자회 연기 배경으로 권력암투, 후계문제 혼선 등 그간 제기됐던 여러 설에 대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며 그 가능성을 부인
 - 또 다른 평안북도 지방 간부도 고위층의 전언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의자에만 앉으면 조는 증상을 보여 자칫 회의장에서 잠들까 봐 회의를 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이 간부는 “지난 14일 북한당국이 지방 당대표들을 돌려보내면서 ‘항상 출발할 수 있도록 대기상태에 있으라’면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임.
 - 한편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방중 이후인 지난 8일 새벽 호흡곤란을 일으켜 긴급처치를 받았다”면서 “원인은 뇌졸중 예방약 부작용으로 보이며, 당시 의료진은 앞으로 석달이 고비라면서 최소 보름간의 휴식과 과도한 업무를 중단하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 때문에 원래 3박 4일로 치러질 예정이던 당대표자회가 하루로 단축됐다”고 말함.

- 방송은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준비위원회가 밝힌 28일 개최도 김 위원장의 건강 회복 여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임.
- **北, 강석주 부총리·김계관 제1부상 승진(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핵협상과 대미외교를 도맡아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내각 부총리에 임명
 - 또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외무성 제1부상에, 6자회담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참사도 외무성 부상에 각각 임명
 - 이에 따라 북한 외무성의 대미외교라인이 모두 승진
- **北신문, 노동당은 ‘김일성黨’(9/23,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고 김일성 주석의 당인 노동당에 유일 영도체계를 확립한 공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 동지의 당”이라며 “장군님(김정일)께서 전당에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당 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셨다”고 밝힘.
 - 이어 김 위원장이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명시토록 지시한 사례를 인용,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고 통일단결을 이룩한 것이 김정일 동지의 가장 큰 공로”라면서 “한 나라의 당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 안에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김정일 동지가 실현했다”고 찬양
- **北황해도 당책임비서 ‘최룡해→박태덕’ 교체(9/2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가 최룡해에서 박태덕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
 - 방송은 25일 황해북도 인민학습당 준공식에 참석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최룡해’ 대신 ‘박태덕’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로 소개
 - 최룡해가 마지막으로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직책으로 호명된 것은 지난 19일 연산군민발전소 준공식 보도에서임.

- 최 전 비서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도 동행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중앙당의 고위직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앞서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24일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가 오는 28일 열릴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핵심 요직인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
 - 최룡해는 고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였던 최현의 2남으로,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노동당 다음으로 큰 조직이었던 청년동맹의 제1비서를 지냈으나 1998년 ‘청년동맹 비리사건’에 연루돼 평양시 상하수도관리소 당비서로 좌천됐다가 2003년 당 총무부 부부장(차관급)으로 재기한 뒤 2007년 황해북도 당비서로 발탁
 - 한편 박태덕 신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의 출신, 경력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 北김정일, 中가극 개작 지도…“북중문화교류 중요”(9/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의 개작 사업을 지도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보도는 지난 20일 통신이 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한 이후 6일만임.
 - 김정일 위원장은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 개작사업을 보고받고 창작중인 가극을 직접 관람한 뒤 “우리 인민은 세계문화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소개
 - 그는 이어 “귀중한 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문화교류는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을 증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
 - 북·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북한은 최근 중국의 무대작품을 재창작해 주민들에게 공연하고 있으며, 중국 고전인 ‘홍루몽’을 개작해 선보인 ‘피바다가극단’은 올해 중국에서 공연을 갖기도 함.
 - ‘량산백과 축영대’는 남녀간의 애정을 소재로 한 월극(여성 배우들만 출연하는 형태의 지방극)으로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평가 속에

인기를 모으면서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함.

- 이날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과 김기남·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가 동행

● 北통신 “당대표자들 평양 도착”…28일엔 열릴듯(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지방 대표자들이 2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통신이 전함.
- 이 통신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26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당대표자회 준비위원회 일꾼들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밝힘.
- 통신의 이 보도를 볼 때 당초 ‘9월 상순’에서 늦춰진 ‘28일’에는 당대표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당대표자회 개최 시점으로 예고했던 ‘9월 상순’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넘긴 뒤 지난 21일에야 당대표자회 준비위원회 명의로 ‘28일 평양에서 연다’고 밝힌 바 있음.

● “北평북도 당 책임비서도 교체…권력재편 조짐”(9/26, 데일리NK; 조선중앙방송; 열린북한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워 당 요직 기용이 예상되는 최룡해(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평해(평안북도 당 책임비서)가 최근 ‘보직 대기’에 들어가는 등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북한 내에서 권력재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전함.
-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인 김평해가 교체돼 평양에서 보직 대기중”이라면서 “평안북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당 책임비서도 상당수 교체됐거나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이 매체는 또 “김평해는 1997년 평안북도 당 조직비서에서 책임비서로 승진한 이후 지난 13년간 같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수시로 수행하는 등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고 전함.
- 앞서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도 최룡해에서 박태덕으로 바뀐 것으로 25일 북한 조선중앙방송 보도에서 확인됐음.
-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24일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

서가 오는 28일 열릴 당 대표자회에서 핵심 요직인 당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했었음.

- 데일리NK는 평양 출신 탈북자를 인용, “김평해와 최룡해는 김정일이 앞을 내다보고 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내각이나 중앙당 고위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이 매체는 이어 “북한은 올해 지방당 간부를 평양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락희(황해남도 당 책임비서)와 리태남(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을 내각 부총리에 임명하는데 이어 각각 함경남·북도 당 책임비서로 있던 태종수와 홍석형을 6~7월 당 부장에 발탁했다”고 말함.
- 이어 “지방당 책임비서의 연이은 교체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질 것에 대비해, 중앙에 새로운 인력을 수혈하고 지방 조직을 정비하는 등 복합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북한 권력 핵심부가 극도로 노쇠한 상황에서 비교적 젊은 60대 초반 인사들을 배치해 후계자인 김정은을 뒷받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임.

김정일동향

- 9/20 김정일, 조선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 공연 관람(9/20, 중통)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당 비서), 리병삼(내무군 정치국장), 현철해(대장) 등
- 9/26 김정일,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 창조사업 지도 및 관람(9/25, 중통)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당 비서) 등

나. 군사

● “北, 병력 1만여명 참가 최대규모 퍼레이드 준비”(9/26, 연합뉴스)

- 북한군이 병력 1만여 명과 미사일, 기갑, 포병 전력 등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 및 군사퍼레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 26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대규모 국가급 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평양 미림비행장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병력 규모가 최대 1만 여명에 달하고 이들은 열병식 및 군사퍼레이드를 위한 예행연습 중인 것으로 파악

- 북한군이 과거 열병식 등에 비해 2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미뤄 이번 행사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
- 이에 당국의 한 관계자도 “현재 진행 중인 준비 상황으로 미뤄 행사 규모가 예년과 다른 대규모 수준”이라고 말함.
- 또 북한군은 대규모 병력과 함께 미사일 및 기갑부대, 포병부대 전력 등도 다수 미림비행장으로 집결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전개된 장비 가운데는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차량탑재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방사포, 자주포, 전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동식 발사대로 미뤄 이미 실전 배치됐거나 개발된 단·중거리 미사일이 행사 당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 된다”고 말함.
- 북한 군인들이 10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음.
- 당국은 미사일 발사대 종류 등으로 볼 때 이번 행사에 단거리인 KN-02 (사정 120km) 미사일과 중거리 노동미사일(사정 1천200km), 신형 중거리 미사일(사정 3천km) 등이 동원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또 다른 당국자는 “장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미사일 관련 장비들도 나와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자유북한군인연합회 소속의 한 탈북자는 “보통 북한군의 열병식과 군사퍼레이드는 인민무력부 행사국이 주관한 가운데 병력은 5천여명 정도 참가한다”며 “이번 행사 준비 규모로 미뤄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참관하는 ‘1호 행사’로 보이며 행사 준비도 국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다”고 말함.

다. 사회·문화

- 北, 추석날 수해 복구 선전(9/2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방송들은 22일 “8월과 9월초의 폭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며 “평안북도와 강원도, 자강도, 황해남도 등의 피해 지역에서 복구사업이 힘 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
 - 매체들은 해당 지역에서 수해 복구 지휘부가 마련돼 시멘트와 가공된

강철을 확보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함.

- 강원도와 자강도에서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공공건물을 다시 짓는 한편 파괴된 철길과 산사태로 끊어진 도로를 이었으며 전력망과 통신, 상수도 시설도 복구했다고 밝힘.
- 또 재령과 신천, 강령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여러 군에서도 양수기를 돌려 침수된 수천 정보의 논과 밭에서 물을 빼고 강과 하천의 무너진 둑 시설 등을 복구하고 있다고 덧붙임.

● **평양 동산동 고분, 보호구역 지정(9/23, 조선신보)**

- 지난해 고구려 벽화 고분이 발견된 평양시 락랑구역의 동산동 언덕 일대가 북한의 ‘유적보호구역’으로 지정
- 신문은 “지난해 10월 말 평양시 10만호 주택건설 공사의 기초굴착 과정에서 발견된 이 고분은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고분이 나온 동산동 언덕 일대가 유적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국가적 관심 속에 보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2 대외

가. 일반

● **北, G20 방해 대책 논의(9/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주도로 대책회의를 열었음.
- 방송은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던 한 소식통이 “9월 초 국방위가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비밀리에 열었다”는 얘기를 탈북 제대군인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에 전했다고 보도
- 소식통은 “국방위가 G20 정상회의를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압살하기 위해 벌이는 세계 금융열강의 ‘정치 모략회의’로 규정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이 논의됐다”고 말함.
- 소식통은 회의에서 한국에 안보 불안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친북단체들

- 이 별이는 G20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아들 김정은이 직접 회의를 주도했다고 소개
- 방송은 회의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대남 기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9월 상순 열릴 예정이었던 당대표 자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갔던 대표자들이 회의를 기다리면서 국내외 정세에 대해 학습을 했는데 대부분 G20 정상회의에 대한 부정적 내용들이었다”고 덧붙임.

나. 6자회담(북핵)

● 中 통한 北 핵기술 수입 우려(9/25,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중국의 위장기업을 통해 유럽 기업들로부터 핵 기술을 사들이는 방식의 핵 밀거래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VOA가 전함.
-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23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밀거래는 국가적으로 운영되며 핵 물질보다는 핵 기술을 거래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의 핵 기술 밀거래망이 적발된 뒤 이에 필적할만한 밀거래 조직은 북한뿐”이라고 말함.
- 그는 “중국에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북한의 밀거래 조직은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평범한 기업으로 위장해 핵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접근 한다”면서 “미국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중국과의 다른 주요 현안들에 밀려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 올브라이트 소장은 “각국의 핵 기술 기밀분류 기준이 달라 몇 단계만 거치면 핵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허점”이라면서 “밀거래 조직 적발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
- 그는 핵 밀거래 제재방안에 대해 “중국에는 핵 밀거래의 철저한 단속이 결국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북한에는 핵 관련 협상 과정에서 핵 밀거래 활동 포기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3 대남

● 北, 실무접촉에 ‘금강산관광 일꾼’ 보낼 예정(9/20, 연합뉴스)

- 북측이 20일 이산가족상봉 장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24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된 ‘일꾼’을 보내겠다는 통지문을 보냈으며, 우리측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24일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상봉장소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광재개 실무접촉에 나갔던 관계 일꾼 2명을 내보내려고 하니 남측에서도 그에 상응한 관계자들이 함께 나와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한적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됨.

● 北매체, ‘전쟁비축미 100만t 보유’ 발언 비난(9/21, 우리민족끼리)

- 사이트는 ‘북한 전쟁비축미 100만t 보유’ 발언과 관련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 사이의 대결을 고취시키기 위한 매우 불순한 모략”이라고 비난
- 사이트는 ‘고약한 속심(속셈)을 드러낸 모략적 망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무려 100만t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 “괴뢰패당의 심보는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비틀고 인도주의 사업을 못하게 하여 현 대결국면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난
- 이어 “그들은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하는 눈곱깨기만 한 수해물자 제공에 대해서조차 ‘투명성’이요, ‘군사전용’이요 하고 까박(트집)을 붙이면서 누추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말함.
- 또 “우리의 남조선어선 ‘대승’호 송환조치와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할 데 대한 제의에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킬 줄 모르는 이런 무례 무도한 패당과 마주앉아 인도주의 사업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모독하는 것은 반인륜적 야만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 남북, 제2차 이산가족 실무접촉 시작(9/24, 연합뉴스)

-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두 번째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24일 오전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시작
-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 대표단이 오전 8시 45분께 도라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 오전 10시 15분부터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북측과 실무접촉에 들어갔다”고 밝힘.
- 당국자는 “북측이 요구한 별도의 협의가 아닌 만큼 북측이 보내겠다는 ‘금강산일꾼’은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실무접촉에는 우리 측에서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인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수석대표)과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이, 북측에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박형철 대표가 각각 나선 것으로 전해짐.
- 북측은 지난 20일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한적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상봉장소 협의를 위해 지난 2월 관광재개 실무접촉에 나갔던 관계자 2명을 24일 실무접촉에 보낼 방침이라며 남측도 상응하는 관계자가 나와 달라고 요구
- 한적은 이에 대해 전날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존 대표단 2명이 당국의 위임을 받아 참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음.
- 김 수석대표는 출발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북측과 장소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함.
- 그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회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며 “일단 상봉장소 문제 위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음.
- 양측은 앞서 지난주 실무접촉에서 상봉 일정(10월 21~27일)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상봉장소와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 北통신, “南, 이산상봉 연기 제안”(9/2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사실을 전하면서 남측이 이미 합의했던 이산가족상봉 일정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힘.

- 이어 “남측은 지난번 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상봉날짜와 명단교환날짜 등을 모두 뒤집으며 늦잡자고(연기하자고) 하는가 하면 상봉장소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고 주장
- 남북 양측은 지난 17일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내달 21일부터 27일까지 갖기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이 일정에 따르면 25일 상봉 대상자 300명의 명단이 담긴 회보서를 교환해야 함.
- 정부 당국자는 상봉일정 연기 제안에 대해 “생사확인 등 상봉이 이뤄지기 까지 1개월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24일 접촉에서 상봉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앞으로 상봉 일정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
- 통신은 또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상봉장소로 하는 문제를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의하자고 하자 남측은 면회소 주장을 철회하고 상봉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자고 하는 등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했다”고 비난
- 이번 접촉에서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행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면회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북측이 구체적인 상봉장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통신은 “쌍방은 10월 1일 개성에서 상봉장소 문제와 관련한 해당 당국관계자들 사이의 접촉과 적십자 실무접촉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 北, 한미 연합훈련에 또 ‘불벼락’ 위협(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한미연합 대 잠수함 훈련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바라지만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선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미국과 괴뢰패당이 북침 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조선반도 긴장완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힘.
- 조평통은 또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앉아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전쟁연습 소동을 벌리는

것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라면서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는 만큼 대화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09.27-09.30

9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후계자 김정은 사진 노동신문에 공개(9/30, 노동신문)

- 북한이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이 함께 찍은 사진을 신문을 통해 공개
- 신문은 1면에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이번 당대표자회 참석자, 당 지도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찍은 사진 3장을 실음.
- 통신이 전한 각 사진에는 맨 앞줄 정중앙의 김 위원장 주변에 적게는 200명, 많게는 1천 명 정도가 앉거나 선 자세로 도열
- 김 위원장의 오른쪽 두 번째에 앉은 김정은은 김 위원장과 비슷한 스타일의 짙은 회색 ‘인민복’ 차림으로, 가볍게 쥔 두 주먹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채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음.
- 김 위원장을 비롯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과 김정은 등 맨 앞줄 사람들은 의자에 앉았지만 나머지는 선 채 사진을 찍음.
- 첫째 줄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 김정은(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조명록(군 총정치국 국장) 순서로, 왼쪽으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김철만(전 정치국 후보위원) 순으로 자리를 잡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당 경공업부장)는 왼쪽에서 다섯 번째임.

[당대표자회의]

● **‘당은 선군혁명 정치참모부’(9/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제3차 당대표자회를 하루 앞둔 27일 ‘선군혁명의 정치적 참모부’로 당을 지칭하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기초한 당의 결집을 촉구
- 신문은 ‘사상의지적 통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이란 제목의 기명 논설에서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는 백전백승의 혁명 참모부를 갖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고 있다”면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과 영도자의 혁명사상을 생명선으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를 이룬 당”이라고 극찬
- 이어 “오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열풍 속에 위대한 기적들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 참모부로 강화발전된 우리 당의 영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처럼 전당에 유일사상 체계가 확고히 선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주장
- 또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해 공고한 사상적 순결체를 이룬 데 있다”면서 “우리 당 안에 수령님(김일성 지칭)이 창시하고, 장군님(김정일 지칭)이 빛내 나가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넘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

● **北통신 “당대표자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9/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27일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
- 통신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했다”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 건설 업적을 되새기며 그이의 입상에 경의를 표했다”고 말함.

● **北, 김정은에 ‘대장 칭호’ 부여(9/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

- 줄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셨다”면서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
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되어 있다”
고 밝혔으나, 대장 칭호를 받은 나머지 3명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음.
- 북한의 대외적인 공식 발표에 후계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명령’에서 대장급 외에 류경에게 상장(중장),
로흥세·리두정 등 6명에게 중장(소장), 조경준 등 27명에게 소장(준장)
칭호를 부여, 대규모 군 장성급 승진 인사를 단행
- 국방위원회도 별도의 ‘결정’을 발표, 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대장을
차수로 승진 발령

● **北당대표자회 개최…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9/28, 조선중앙TV; 조선
중앙방송)**

- 북한 노동당이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
- 이들 매체는 오후 2시에 맞춰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
과 인민군 장병,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김정일 동지를 조
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밝힘.
- 또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최고 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것
은 우리의 수백만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들의 최대 영광이고 행복
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대경사”라고 주장
- 그러나 이날 당 대표자회에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했는지 여부와 총비
서 재추대 외에 다른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
급하지 않음.
- 앞서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오
후 2시부터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중대방송이 있겠다”고 예고
-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 당 총비서로 추대된 1997년 10월 8일에도 북한
매체들은 ‘중대방송’ 예고를 거쳐 오후 5시께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
사위원회 공동 명의의 특별보도를 발표,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당의
공인된 당 총비서로 추대됐음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전함.

-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군사위원회 위원에 오른 김 위원장은, 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 7월부터 당 총비서로 추대된 1997년 10월까지 3년여 동안 이른바 ‘유혼통치’ 기간을 보냄.

● **北, 대표자회 생중계한다더니 ‘조용’(9/28, 열린북한방송)**

- 북한 당국이 28일 오전부터 당대표자회 진행 상황을 TV로 전국에 중계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방송을 하지 않음.
- 방송은 함경북도 무산의 소식통을 인용, “오전 11시부터 당대표자회를 TV로 실황 중계(생방송)할 테니 모든 주민들이 시청하라는 통보가 내려왔으나 낮 12시까지도 방송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인민학교 학생들까지 조퇴를 해 실황 중계를 보라고 했는데 정작 예고한 시간이 돼도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주민들이 당대표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TV방송국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함.

● **北 黨대표자회 개최(9/28, 평양), 김정일 黨총비서 再추대 및 김정은(김정일 3男) 黨중앙 군사위 부위원장과 당중앙 위원으로 선거(9/2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김영남(개·폐회사,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사) 등 참석下 집행부 선거(김정일, 김영남 등 16명)와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할 데 대하여, △당규약개정에 대하여,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의정결정 진행
- 대표자회의에서는 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당중앙 지도기관과 당중앙위 위원·후보위원 및 당중앙 검사위원회 위원선거가 진행
- 당중앙위 2010년 9월 전원회의 결정내용 통보,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 정치국, 당중앙 비서 선거와 비서국 조직결과가 발표됨.
- 당중앙 군사위 조직결과 발표와 당중앙위 부장, 노동신문 책임주필 임명과 당중앙위 검열위원회 선거결과가 발표됐으며 당중앙검사위 제1차 전원회의 결정내용 통보
- 김정일 등 권력핵심 인물 당대표자회 선거 결과

김정일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
·당총비서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정치국 위원 ·당중앙 위원 ·당군사위원장	·당군사총 부위원장 ·당중앙 위원	·당중앙 위원 ·당군사총 위원 ·당 부장	·당 정치국 위원 ·당중앙 위원 ·당 부장

- **김정은, 신설된 黨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임(9/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28일 44년만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통신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28일 김정일 동지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다”면서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추대사를 김영남이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또 “당 대표자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2010년 9월 전원회의 결정 내용이 통보됐으며, 김영남이 폐회를 했다”고 밝혀 이번 당 대표자회가 하루만에 끝났음을 분명히 함.
 -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5명이 선임.
 - 김정은과 함께 ‘군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당 경공업부장)는 당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고,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당 행정부장 겸임)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이 됨.
 - 정치국 위원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최영림·조명록·리영호·김영춘·전병호·김국태·김기남·최태복·양형섭·강석주·변영립·리용무·주상성·홍석형·김경희 등 17명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는 장성택 외에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김락희·태종수·김평해·우동춘·김정각·박정순·김창섭·문경덕 등 15명이 선임됨.

- 특히 리영호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등의 요직을 여러 개 차지해 군부의 새로운 '실세'로 급부상
- 또 모두 4명이던 비서국 비서 중에는 김기남·최태복 2명만 재임명되고, 여기에다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를 비롯해 문경덕·박도춘·김영일·김양건·김평해·태종수·홍석형까지 8명이 새로 비서로 임명됐으나, 누가 어떤 분야 업무를 전담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음.
- 당 부장으로는 기존의 장성택·리영수·홍석형·김경희·오일정·김양건·김정임·채희정·태종수 등이 건재한 가운데 김기남 비서와 김평해·주규창·최희정 4명이 새로 선임됨.
- 이번 당 대표자회는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도 채택,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사상적 전일체로서, 당의 특성에 맞게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의 구성과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새롭게 규제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원의 의무와 각급 당 조직들의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충했다"며 "“당과 인민정권, ‘당마크, 당기’장을 새로 내오고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며 인민군대 내 당 조직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설명

● **北노동당규 개정…서문 ‘공산주의사회 건설’ 삭제(9/29, 조선중앙방송·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규약상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삭제하는 등 당규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이번 당규 개정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이뤄진 것임.
- 북한은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때 헌법을 개정, 헌법 조문상의 '공산주의'란 단어를 모두 삭제
- 방송이 공개한 조선노동당의 개정 당규약 서문을 보면, 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당의 최종 목적이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대체된 것임.

- 또 당의 당면 목적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변경
- 개정 서문은 또 당에 대해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이자 전위부대”라고 규정,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내용을 처음 반영했고, ‘선군정치’라는 용어도 새롭게 인용함.
-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규약 개정에 대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결정서’를 공개, 이번 당규 개정의 취지와 주요 변경사항에 담긴 의미를 개괄적으로 설명
- 통신은 “김일성 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실데 대해서와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킨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업적에 대해 새로 반영했다”면서 “아울러 김정일 동지 중심의 조직사상적 전일체로서 당의 특성에 맞게 당 최고지도기관 구성과 지위, 역할에 대해 새롭게 규제했다”고 밝힘.
- 이어 “당원의 의무와 각급 당조직의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충했고 ‘당과 인민정권’, ‘당마크, 당기’ 두 장(章)을 신설했다”면서 “또한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인민군대 내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당대표자회 기념촬영…김정은도 참여(9/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당 중앙기관 성원 및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참가자와 기념촬영을 했으며 후계자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여
- 그러나 구체적인 기념촬영 일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통신은 촬영에 참가한 당 간부들을 소개하면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군 총참모장에 이어 네 번째로 호명했음.
- 촬영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항일 빨치산활동을 했던 리을설·김철만 등이 참가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참가자들이 앞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당의 전위투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하셨다”고 덧붙임.

● **北방송, 당대표자회에 대표자 1천 653명 참가(9/30, 조선중앙방송; 평양 방송)**

- 28일 단 하루 일정으로 폐막한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 모두 1천 653명의 대표자가 참가
- 방송은 “이번 당대표자회에 조선노동당의 조선인민군 대표회, 도 대표회, 정치국 대표회에서 선거된 1천657명의 대표자 가운데 1천653명(4명 결원)이 참가했다”고 밝힘.
- 이들 대표자는 △당일꾼 대표 672명(40.6%) △군인 대표 451명(27.2%) △국가·행정·경제일꾼 대표 343명(20.7%)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 대표 116명(7%) △과학·교육·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 부문 일꾼 대표 75명(4.5%)으로 구성됐다고 이들 방송은 설명
- 또 여성 대표는 149명(9%)이었고, 회의 진행을 517명이 방청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北주민·군인 “김정은 대장? 어이없다”(9/30, 자유북한방송; 자유아시아 방송(RFA))**

- 27세에 불과한 김정은이 대장 호칭을 받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나서자 북한의 주민들과 군인들이 어이없어하고 있다고 대북 매체들이 전함.
- 자유북한방송은 이틀 전 전화통화가 이뤄진 북한의 남자 주민이 “28일(당대표자회 개최일) 오후 직장 경비실에 7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던 중 김정은이 대장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기가 막혀 할 말을 잊었으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27세가 대장이 돼 후계자로 공식화됐다는 사실을 알면 다들 기가 막혀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힘.
- 이 주민은 또 “이번 당대표자회는 개혁개방이나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극했던 1970년대처럼 후계체제를 비롯거나 체제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정치범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방송에 덧붙임.

-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청진시에 주둔한 9군단 관계자를 인용, “김정은이 대장에 오른 것에 대해 군관(장교)과 하사관들 사이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 “나이 어린 김정은이 대장에 오르자 평양 인민무력부의 일부 간부들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이 군관계자는 이어 “1991년 12월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선포할 때는 후계자로서 경력과 업적이 소개됐다”면서 “김정은은 도대체 뭘 해서 대장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임.
- 이 관계자는 또 “당대표자회가 열린 날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에서 ‘당대표자회 경축행사’를 진행하라는 지사가 각 군부대로 내려왔다”면서 “군내부 방송에서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으로 추대됐다는 내용이 나오자 ‘만세 3창’을 하도록 했다”고 전함.

기타 (대내 정치)

- 北 국방총 결정 제07호, 9/27 ‘리영호’(총참모장, 대장)에게 ‘차수’칭호 수여(9/28, 중통·중방)
- 당대표자회 개최 관련 김일성 父의 ‘당건설 노정, 선군혁명영도-강성대국건설 위업’ 칭송 및 “우리 당의 정치방식이며 승리의 보검인 선군, 대를 이어 선군영장을 높이 모신 우리 당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고 선전(9/28, 중방)
- 육해공군장병들, 김영춘(연설)등 참가下 김정일 黨총비서 재추대 축하 경축대회 및 경축무도회 전승광장에서 진행(9/29, 중통)
- 黨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이영호),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의 약력 소개(9/29, 중통·중방)
- 『반제민전』 중앙위, 9/29 김정일 黨총비서 재추대 관련 축하편지(9/30, 중통)
- 黨대표자회를 “일심단결의 대화합 등의 성과” 自評 및 김정일 黨총비서 재추대는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의 분출”이라며 쏘민의 김정일과 黨노선-정책에 절대적 충성 요구(9/30, 중방·중통·노동신문)
- 김정일 黨 총비서 재추대 평양시 경축대회, 문경덕(黨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연설), 장인수(평양시당 비서/사회) 등 참가下 진행(9/30, 중통·중방)
- 黨 창건(10/10) 65돌 즈음 전국연구토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9/30, 중통)
- 黨대표자회 참가자들, 만경대와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및 김일성종합대학 참관(9/30, 중통)

나. 경제

기타 (대내 경제)

- 北, 3대자연흐름식물길(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 건설로 “670여개소의 양수장과 1,000여대의 양수기와 전동기 대체 및 12만여kw 전기 절약” 등 경제효과 선전(9/27, 중통)
- 黃南·北道 등 전국 각 道·市·郡들에서 벼 가을걷이 시작(9/28, 중통)
- 北‘2월17일과학자·기술자 돌격대’, 전국의 주요 공장·기업소 등에 파견돼 경제강국 건설에 기여(9/29, 중통)
- 황해북도, 유용동물 및 관상용동물 보호증식사업 전개(9/29, 중방)
- 北역포목장 생산능력 확장공사 준공식, 전하철(내각부총리), 고병석(인민봉사총국장) 등 참가下 진행(9/30, 중방)
- 北금야강군민발전소 첫 발전기 무부하 시운전, 9/28 진행(9/30, 중방)

다. 사회·문화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경희극 ‘산울림’ 공연, 9/16~27 함경북도 청진에서 진행(9/28, 중통)
- 北극제수영연맹 수중발레강습, 9/23~27 평양에서 진행(9/29, 중통)
- 北작가동맹 중앙총소설문학분과총 작가들의 “백두산 3대장군 형상” 단편소설 등 창작활동 성과 자랑(9/30, 중방)

2 대외

가. 일반

● 박길연 “核 포기할 수 없다…강화할 것”(9/30, 연합뉴스)

-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자기 방어를 위한 억지력”이라면서 “만일

선군정치에 의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전쟁터로 변했을 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박 부상은 “책임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우리는 다른 핵 보유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 비확산과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고 한다”며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함.
- 그는 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통일과 공동번영, 화해를 향한 전진인 2000년 6.15 공동성명과 2007년 10.4 선언을 거부하고, 반통일적이고 대립적인 이른바 ‘3단계 통일방안’으로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고 비난
- 또 “천안함 사건의 기회를 이용해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대규모로 무력을 이용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의심없이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
-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박 부상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대표단은 지난 6월 9일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을 왜곡한 남한 대표단의 25일 도발적 성명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함.
- 그는 “남한 정부의 일방적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남한 안팎에서 다양한 비판이 야기되고 있고, 군사과학적 관점에서도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면서 “남한 정부는 우리가 제안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실사그룹 파견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천안함 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포함한 다른 관련 당사국들로부터의 반응에 유의하고 모든 관련 현안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의장성명은 한국 정부가 외부 세력과 함께 전쟁 연습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과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에 즉각 착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 또 “한국전 발발 60주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것을 다시 정중하게 제안한다”며 “평화 협정은 가장 효과적인 신뢰구축 조치가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

- 한편 박 부상은 유엔 안보리가 비동맹국가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대표성과 의사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면서, 특히 “유엔내에서 가장 민주적 조직인 총회가 안보리보다 실권을 갖고 있지 못한 비정상적 상황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北노동당 최태복 비서 중국 방문(9/30,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원회 비서가 30일 베이징(北京)을 방문
- 최 비서는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측이 제공한 차량 편으로 시내로 향했으며 일단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향한 것으로 보임.
- 최 비서는 이번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기존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4명의 비서 가운데 김기남과 함께 재임명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비서에 재추대됐으며 기존 김국태·전병호 비서는 탈락되고 최룡해(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문경덕·박도춘·김영일·김양건·김평해·태중수·홍석형 8명이 새 비서로 임명됨.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9/27 駐北 슬로베니아 新任 대사 ‘마리아 아다니아’ 신임장 접수(9/27, 중통)
- 최태복, 9/27 만수대의사당에서 영국공산당 마스레닌주의 대표단과 담화(9/27, 중통)
- ‘호금도’ 中공산당 총서기, 9/28 김정일 당총비서 再추대 축전(9/29, 중통)
- 박길연 北 대표단장, 9/27 유엔총회 제65차 회의 중 진행된 ‘블록불가담운동 연례외무상회의’에서 “성원국들의 연대강화와 평화협정 제의 정당성” 언급(9/29, 중통)
- 北외무성대표단(단장 : 김형준 부상), 9/27 니카라과 대통령과 담화(9/29, 중방)
- 駐말리 北대사 이경선, 9/21 同國 대통령 접견(9/29, 평방)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9/26 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0돌 즈음 기념토론회 중국에서 진행(9/30, 중통)
- 黨중앙위(김영일 등/평양고려호텔),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노동당대표단을 위해 연회 개최(9/29, 중통)
- 駐北 中國대사 류홍재, 9/29 中國 정부 수립 61돌 즈음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개최(9/29, 중통·중방)
- 北노동당대표단(김영일 黨비서), 9/30 핀란드 공산주의노동당 대표단과 회담 (9/30, 중통)
-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9/30 駐北 알제리 대사(‘자말 앳딘 그린’)와 離任 담화(9/30, 중통)

3 대남

● 남북 군사실무회담 2년 만에 열려(9/30, 연합뉴스)

- 천안함 피격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룬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30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림.
- 2008년 10월 2일 이후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이날 실무회담에는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 3명과 리선권 대좌 등 북측 대표 3명이 참석
- 북측 대표단은 오는 9시 35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
- 북측 리 대표는 회의 시작 전 환담에서 “서울에서는 언제 오셨느냐”고 말을 꺼냈고 남측 문 대표는 “아침에 출발했음. 북측은 언제 오셨느냐”고 되물음.
- 리 대표는 “어제 왔습니다. 잘 몰랐는데 밖을 보니 들에는 벼가 잘 익고 산을 봐도 과일이 잘 익고 있더라”며 “북도 남도 수확의 계절인데 어떤 의미에서 4계절 중 가을이 우리의 계절인 것 같다”고 화답함.
- 그는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고 좋은 계절에 북남 회담이 결실을 보는 생산적인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함.
- 이에 문 대표는 “새가 비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참새처럼 처마 밑에 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수리처럼 구름을 뚫고 올라가 비를 피하는 것이다”며 “참새처럼 처마 밑에 숨는 것이 편할 수는 있어도 독수리처럼 푸른 하늘을 보지는 못할 것임. 독수리의 헤안을 가져야 엄청난 시기에 열리는 회담인 만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
- 리 대표는 “독수리는 자기의 생존 방식이 있고 참새는 참새의 방식이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남북은 회담 방식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지를 두고 잠시 신경전을 펼침.
- 리 대표는 “우리가 회담을 오랜만에 열었고 생산적인 회담이 되기 위해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문 대표는 “지금까지 원칙도 그렇고 관례상 군사회담은 비공개로 하자”고 맞받음.

- 리 대표와 문 대표는 한 차례 더 입씨름을 했으나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
- 이번 회담과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회관에서 열린 서울 대행정대학원 조찬세미나에서 “오늘 실무회담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시인 및 사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사후 재발 방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설명
-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과 북측이 제안한 의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장성급 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남측이 제시한 의제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우리 당국에 대한 북측의 비방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완화 문제임.
- 북측은 지난 15일 ‘쌍방간 군사적 합의 이행에 따르는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하자고 처음 제안
- 군 당국은 북측이 언급한 ‘현안문제’는 서해상 우발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합의와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추정

기타 (대남)

- 나라의 통일문제의 현실적 방도는 “연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라며 ‘연방제통일’ 노선 입장 不變 천명(9/27, 중통·노동신문)
- 韓美의 대잠수함훈련(9/27~) 관련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정세를 극단적 상태로 끌고 가는 행위”라고 持續 비난(9/30, 중통·민주조선)
- 北, 주한미군 2사단 항공여단과 南 37사단의 연합공중기동연습(충북 증평과 충주, 9/28) 비난(9/30, 중통)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01-10.10

10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후계자 김정은 한자표기 ‘金正恩’(10/1,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한자 이름이 ‘金正恩’이라고 전함.
 - 통신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일본의 조선통신사에 김정은의 한자 표기가 ‘金正恩’이라고 전해왔다고 보도

- 北당대표자회의…경제부흥과 북·남관계 개선은 연계(10/2, 조선신보)
 - 신보는 2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 달성을 천명한 사실을 거론, “오늘의 국제정세하에서 나라(북한)의 경제부흥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북남관계의 개선은 서로 연계돼 있다”고 주장
 - 신보는 이날 ‘당의 령도강화, 2012년 향한 총공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일성동지의 당’은 수령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해 모든 활동을 벌인다”면서 “강성대국 건설과 조선반도 비핵화, 조국통일은 모두 주석님의 유훈”이라며 이같이 강조
 - 그러나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중앙위원회 앉혀 후계체제를 대내외에 공식 선포한 사실은 함구
 - 또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명시돼 있듯 “조선노동당은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 보장’,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 그리고 ‘계승성의 보장’을 당건설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적대국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없다”면서도 “기존노선의 고수는 정책의 경직성을 의미하지 않고 전환의 국면에서는 오히려 변혁을 위한 대담한 발걸음을 예고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이번에 열린 당대표자회는 지난 10여년간의 선군정치를 반영했으며 선군혁명의 정치적 참모부인 당의 영도적 역할을 더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고 적시한 사실을 상기시킴.

● 北김정일, 당대표자회 뒤 첫 공개활동(10/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전함.
- 예술선전대는 이날 여성중창 ‘조선의 행운’, 남성독창과 방창 ‘햇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여성독창 ‘당을 노래하노라’, 시이야기 ‘대를 이어 태양의 위성이 되리’등을 무대에 올렸으며 공연을 관람한 김 위원장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공연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음.
- 이날 공연에는 김기남, 홍석형 당 중앙위 비서와 김경희, 장성택 당 부장을 비롯해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 국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
- 조선중앙방송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이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다”고 전해 이번 공연이 당대표자회를 축하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

● 北김정은, 김정일 두 차례 방중 모두 동행(10/4, 연합뉴스)

-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두 차례 중국 방문 때 모두 동행한 것으로 전해짐.
-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양복 차림을 하고 경호원처럼 행동하면서 김 위원장을 곁에서 지키는 모양새를 갖췄다”면서 “앞으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전대 수령’(김정일)에 대한 김정은의 충성심을 선전하는 사례로 많이 인용될 것 같다”고 말함.
- 이어 “8월 방중은 5월 방중 때부터 기획됐던 것으로, 김 위원장과 정은, 정철 세 부자가 김일성 사적지를 답사하는 일종의 ‘성지순례’ 성격이 강했다”면서 “김정은을 중국 측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히 비밀로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김정은의 동향은 중국 측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이번 당대표자회 직후 최태복 당 비서가 서둘러 중국에 간 것도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제 김정은도

공식적인 후계자가 됐기 때문에 과거 김 위원장처럼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함.

● 北신문, “김일성 동지의 후손, 영도자중심 단결해야”(10/4, 노동신문)

- 신문은 1면 전체를 ‘편집국 논설’로 편집, 영도자 중심의 일심단결을 강도 높게 촉구
- 노동신문이 편집국논설을 실은 것은 작년 당창건 기념일(10월10일) 직후인 10월 13일 당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조선노동당을 끝없이 빛내자고 촉구한 이후 처음인데, 이 신문의 편집국논설은 게재 전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신문은 이날 ‘일심단결은 조선의 힘이고 승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영도자가 구상을 펼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돼 영도자의 결심을 결사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일심단결의 정신력만 있으면 우리 앞에 못해낼 일이 없다”면서 “이 세상에 우리 군대와 인민처럼 자기 영도자에게 매혹되어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는 군대와 인민은 없다”고 주장
- 이어 “김일성 동지의 후손들이라는 자각을 한시도 잊지 말고 싸워나가야 한다”면서 “김일성 동지의 후손이라는 자각을 갖고 살며 투쟁한다는 것은 수령님의 은덕을 순간도 잊지 않고, 수령님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몸바쳐 싸운다는 것”이라고 강조

● 北김정일·정은 부자, 군 훈련 참관(10/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실시된 군부대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함.
- 이어 “김정일 동지께서 노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해 진행된 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보시었다”면서 “군부대들이 튼튼히 준비된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을 더 강화발전시키는데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셨다”고 밝힘.
- “훈련이 시작되자 지상포들의 화력 타격과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들의 치밀한 협동에 의해 적진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적집단은 삼시에 소멸

- 됐다”면서 “장병들은 김정일 장군님의 손길 아래 천하무적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했다”고 상황을 설명
-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육탄결사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자라났다”면서 “단련된 이 강철의 정예대오, 무적의 대군을 갖고 있기에 사회주의 조국은 금성철벽이고 조선노동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지휘성원(지휘관)들, 훈련에 참가한 군부대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덧붙임.
 - 조선중앙TV가 추후 보도한 기념사진의 첫째 줄에는, 한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에 리영호(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군 총참모장),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정은,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순으로 섰고, 좌측에는 최영림(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 총리), 김기남(당 비서), 최태복(당 비서), 김경희(정치국 위원 겸 당 경공업부장), 박도춘(당 비서) 순으로 도열했으며, 2열부터는 군복 차림의 군인들로 채워짐.
 -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 부장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과 주규창도 훈련 참관을 수행했고, 그밖에 인민군 지휘성원들, 국방공업 부문 일꾼(간부)들이 함께 지켜봤다고 통신은 전함.

● 北군부대 등 김정은한테 충성결의(10/6,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의 군부대에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다짐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함.
- 매체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량강도의 제25국경경비여단과 함경북도의 제27국경경비여단에서 김정일의 당 총비서 재추대와 김정은의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임명을 경축하는 모임을 열었다”면서 “군관(장교)과 병사들이 ‘김정은 청년장군을 받들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구호를 제창했다”고 말함.
- 이어 “이런 충성 다짐 의식이 모든 군부대에서 일제히 열리고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나 기업소 등에서도 곧 열릴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문화성의 소식통으로부터

‘김정은의 후계자 추대를 경축하는 공연이 6일 평양시와 각 시·도·군별로 열린다’는 말을 전날 들었다”면서 “공연에서는 대를 이어 ‘수령복(福)’을 누린다는 내용의 축하연설과 음악 연주, 시 낭독, 무도회 등이 진행되고 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이어 “당국은 주민들에게 명절 옷차림으로 행사장에 나가 경축 분위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선출됐던 1993년에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다”고 전함.

● **北김정은, 軍훈련 참관 이어 두 번째 공개활동(10/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당 창건 65주년에 즈음해 진행된 은하수 ‘10월 음악회’를 관람
- 김정은의 이날 공연 관람은 지난달 28일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면서 후계 구도가 공식화된 이후, 통신이 5일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활동에 해당함.
- 이날 공연 관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겸직)·최영림(내각 총리 겸직)·리영호(군 총참모장 겸직) 세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영춘(인민무력부장)·김국태(당 검열위원회 위원장)·김기남(당 비서 및 부장)·최태복(당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김경희(당부장)·강석주(내각 부총리)·변영립(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리용무(국방위원회 부위원장)·주상성(인민보안부 부장)·홍석형(당비서) 등 11명의 정치국 위원이 동행
- 또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김락희·태종수·김평해·우동측·김정각·문경덕과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 당대표자회 참가자들도 참석

● **北양형섭, 김정은 후계설 확인(10/8, APTN)**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가진 AP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청년 대장’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북한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양 부위원장은 “우리 주민들은 대대로 위대한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우리 주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청년 대장 김정은 동지를 모실 영예를 얻게 됐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국립연극극장 현지도(10/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동행하고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을 현지도
- 조선중앙통신은 9일 새벽 수행 인물들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조선중앙TV가 이날 저녁 현지도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동행 사실이 확인됨.
- 이날 중앙TV를 통해 공개된 노동신문도 1면에 김정은이 동행한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북한 매체들은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김정은의 최초의 공개 활동으로 김 위원장과 더불어 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참관(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한 데 이어 은하수 ‘10월 음악회’를 관람(7일 중통 보도)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또 대동강반에 새로 건설된 주택에 새로 입주한 예술인들인 국립연극단 배우 백승란·최금향·김철진과 리지영 단장의 가정을 방문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시 거리들을 살펴보고 10만 세대의 주택 건설을 조기에 끝낼 것을 강조
- 현지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립(내각 통리), 리영호(군 총참모장)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당비서), 최태복(당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강석주(부총리), 주상성(인민보안부장), 홍석형(당비서 겸 계획재정부장),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태종수·김평해·우동측·김정각·김창섭·문경덕 등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밝혔으나 김정은은 거론하지 않음.

● 北, 당창건 65돌 불꽃놀이…김정일부자 불참(10/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경축 ‘축포야회’(불꽃놀이)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전함.
- 통신은 “축포 야회장들인 당 창건기념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바라 보이는 대동강변과 만경대지구를 비롯한 수도의 곳곳은 10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할 불꽃 전경을 보기 위해 모여온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며 김기남·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연설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이번 ‘축포야회’에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조선노동당 창건 65돌 중앙경축행사 대표들, 항일혁명투사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 과학·교육·문화예술·보건·출판보도 부문 일꾼, 영웅, 항일혁명투쟁 연고자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공로자, 근로자들이 관람했다”며 초총련 축하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 축하단과 대표단, 평양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됐다고 보도
- ‘축포야회’는 작년 김일성 주석 생일(4.15) 때 처음 시작돼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한 데다 ‘5.1절’(노동절)과 당창건 64주년 기념일로 이어졌고 올해 김 주석 생일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 이를 김정은은 ‘업적’으로 선전해오고 있음.
- 통신은 “당 창건기념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상공으로 축포가 연이어 터져 오르며 수도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수놓았다”고 밝히면서 “연설자들은 축포야회가 당의 장구한 역사와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영광의 축전이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답게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는 승리의 대화폭이라고 말했다”고 강조

● 김정일·김정은, 아리랑 공연 관람모습 공개(10/10, 교도통신; BBC)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이 9일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 사절단과 함께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
-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 창설 65주년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전날 밤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을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관람

- 체조를 관람하는 김정일 부자의 영상은 전세계에 공개, 김정은은 공연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중국 공산당 대표단으로 방북 중인 저우융캉(周永康)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으며, 저우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 부자와 동석해 공연을 관람
 - BBC에 방송된 영상에서 김정은은 김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왼쪽으로 한 자리 건너 자리를 잡았으며 김 위원장 부자 사이에는 리영호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군 총참모총장이 앉음. 동석한 저우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의 오른쪽 바로 옆자리에서 공연을 지켜봤으며 김정은의 왼쪽에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앉음.
- **北김정일, 김정은 부자 금수산기념궁전 참배(10/1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이 10일 자정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전함.
 - 이날 참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군 총참모장)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당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강석주(부총리), 주상성(인민보안부장), 홍석형(당비서 겸 계획재정부장),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태중수·김평해·우동측·김정각·김창섭·문경덕 등이 수행
 -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앞서 평양에서 열린 당 창건 65주년 중앙보고대회에도 참석했다고 밝힘.
 - 대회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 영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양 부위원장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이 땅위에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라며 “조선노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화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 열병식 주석단에 김정일·정은 나란히(10/10, 조선중앙TV)

- 북한은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이례적으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를 통해 실황으로 중계
- 오전 10시 열병식 주석단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천히 일어나와 자리를 잡았으며,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
- 주석단에는 화면상으로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리영호(군 총참모장), 김정은, 김영춘(인민부력부장), 리을설(인민군 원수), 리용무(국방위 부위원장), 주상성(인민보안부장)이 서있고 오른쪽으로는 중국 사절단 단장인 저우용강(周永康)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김철만(전 정치국 후보위원),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순으로 자리를 잡음.
- 조선중앙통신도 열병식 시작 직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과 조선인민내무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열병식이 10일 10시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시작돼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 통신은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열병식 시작을 알리는 신호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종대를 선두로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종대들과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 근위 제2해군전대를 비롯한 육해공군 부대 종대들 그리고 조선인민내무군 종대들이 장중한 취주악에 맞춰 위풍당당하게 나아갔다”고 소개

● 北, 당창건 65주년 열병식 생중계…사상처음(10/10,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군부대 열병식을 열고 그 상황을 사상 처음 TV와 라디오로 생중계, 조선중앙TV,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예고 없이 오전 9시30분께부터 11시18분까지 1시간48분 동안 열병 준비상황과 부대 행진을 이어서 중계
- 앞서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가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은 2008년 2월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 2009년 6월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전, 올해 6월 남아공월드컵 본선 포르투갈전 세 차례뿐이고, 세 차례 모두 TV로만 중계됐음.

- 조선중앙TV가 전한 열병식 화면에는 미사일 탑재 차량, 다연장포 탑재 차량, 탱크, 장갑차 등도 등장했는데, 중앙통신은 “주체식 미사일 및 요격 미사일 종합체들이 선군조선의 멸적 의지와 강대성을 시위하며 열병식 마감을 장식했다”고 언급

● 北 열병식에 외신기자단 ‘파격 초청’(10/10, 연합뉴스)

- 북한이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에 외국 언론사를 초청하고 행사를 생중계하는 이례적 조치를 단행
-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일요판 옵서버 인터넷판에 따르면 전날 언론사 취재진 80명 가량이 창건 기념행사의 하나인 군 열병식 취재차 북한에 도착
- 북한은 지난주 초 적대국인 미국 언론사들에 초청장을 보냈고, 취재를 신청한 타국 언론사에도 비자를 발급했다고 옵서버는 보도
- 또한 외국 취재진을 위해 현장에 인터넷 회선이 깔린 프레스센터까지 마련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 CNN 방송은 10일 오전 조선중앙TV의 열병식 생중계 영상을 방송하면서, 열병식장인 평양 김일성광장에 나가 있는 자사 기자를 연결하였으며 요르단과 아랍권 위성 보도채널인 알-자지라도 열병식 장면을 동영상으로 내보냄.
-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NPR)의 루이자 림은 평양발 보도에서 누구도 ‘은둔의 왕국’인 북한이 외국 기자들에게 실제로 문을 열지 예상치 못했으면서 파격적인 방북 허가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비자는 제때에 나왔고 심지어 북한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 북한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기자들에게도 비자가 발급됐다고 전함. 이들은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향하면서 경음악 동영상과 함께 신문 등 읽을거리를 받았다고 함.

● 北 권력기관들, 김정일에 ‘국방중시’ 충성 서약(10/10,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 같은 권력기관들이 공동 작성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한 당 창건 65주년 축하문에서 “군사

- 중시, 국방 중시를 국사 중 제일 국사로 삼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이 축하문은 “모든 일꾼, 당원, 근로자들은 군사 중시, 국방 중시를 국사 중 제일 국사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최우선적 힘을 넣겠다”면서 “아울러 김일성 동지를 당과 혁명의 수령으로 영원히 모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당과 조국을 김일성 동지의 당, 김일성 동지의 조선으로 빛내 수령님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겠다”고 서약
- 축하문은 또 “100년 전 화승대(초기 소총)조차 변변히 없어 외세에 국권을 빼앗겼던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지위에 올라선 것은 선군정치가 안아온 민족사적 대승리”라고 주장
- 이와 별도로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북한을 찾은 해외동포 대표단도 “김정일 장군님을 총비서로 추대하고 김정은 동지를 부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크나큰 감격”이라는 요지의 축하문을 김 위원장한테 올렸다고 방송은 덧붙임.

● 北김정일, 저우융캉 中공산당 상무위원 면담(10/10, 신화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9일 방북한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당서열 9위)를 만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축하편지를 전달받았다고 전함.
- 김정은은 이날 면담에 배석함으로써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진 뒤 처음으로 외교무대에 공식 등장,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친절한 축하편지를 보내오는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호금도 동지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주영강과 담화하셨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중국 공산당과 후진타오 총서기가 저우융캉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준 것은 조선 혁명사업에 큰 격려가 된다”고 말했으며, 저우 상무위원은 “김정일 총서기를 수반으로 하는 새 영도집단의 지도 하에 조선 인민들이 더욱 밝은 미래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함.
- 면담에는 중국 측에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쑨정차

이(孫政才) 지린(吉林)성 당 서기,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가, 북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최영림 내각 총리, 이영호 총참모장,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 배석

● **北당창건 夜會도 생중계…김정일부자 참석(10/10,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10일 오전 열병식에 이어 이날 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경축야회(夜會) ‘번영하라 노동당시대’를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을 통해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25분까지 약 1시간 5분동안 생중계를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전 열병식에 이어 오후 야회에도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고 김일성광장에 모여 있던 북한주민들은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지름.
-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위원장은 서늘한 10월 밤 공기를 감안한 듯 밤색의 두툼한 외투를 입었고, 김정은은 열병식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우측 편으로 리영호 군 총참모장에 이어 섰음.
- 또 주석단에는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도 모습을 드러냄.
- 김기남 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은 야회 시작에 앞선 연설에서 “오늘의 대경축 야회는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 주시려는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구상과 세심한 지도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함.
- 이날 야회는 1장 ‘김일성동지의 당’, 2장 ‘수령님 염원 꽃피는 강산’, 3장 ‘당은 승리의 향도자’, 종장 ‘장군님따라 천만리’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학생과 노동자들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처럼 군무를 쳤으며 광장 주변에서는 ‘카드섹션’을 통해 날아가는 새 등을 형상화하기도 함.
- 통신은 “하늘가에 형형색색의 축포가 터져 오르고 화려한 춤 물결이 설레는 광장에 ‘경축 65’, ‘영광’의 글발이 새겨졌고 불장식배, 돛배들이 오가는 대동강은 황홀경을 이뤘다”고 소개

김정일동향

- 10/ 3 김정일, 국가안전보위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10/3, 중통)
- 10/ 5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 참관(10/5, 중통·중방)
 -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총참모장), 김정은(黨중앙군사총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黨비서), 김경희·장성택(黨부장), 김정각(軍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黨비서), 주규창(黨부장) 등 동행
- 10/ 7 김정일, 은하수 '10월 음악회' 관람 및 「감사」 전달(10/7, 중통)
 - 김영남·최영림·리영호(黨중앙총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김정은(黨중앙군사총 부위원장), 김영춘·김국태·김기남·최태복·양형섭·김경희·강석주·변영립·리용무·주상성·홍석형(黨중앙총 정치국 위원들),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김락희·태종수·김평해·우동측·김정각·문경덕(黨중앙총 정치국 후보위원들) 및 黨중앙총 지도기관 성원들과 黨대표자회 참가자들 동행 관람
- 10/ 9 김정일, 국립연극극장 현지지도(10/9, 중통·중방)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군 총참모장)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당비서), 최태복(당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강석주(부총리), 주상성(인민보안부장), 홍석형(당비서 겸 계획재정부장),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태종수·김평해·우동측·김정각·김창섭·문경덕 등이 수행
- 10/ 9 김정일, 中 공산당 대표단 '저우용강'과 담화 및 '후진타오' 축하편지 접수(김정은 배석)(10/9, 중통)
- 10/ 9 김정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아리랑'공연 관람(10/10, 교도통신)
 - 북한을 방문중인 중국 사절단과 동행
- 10/ 9 김정일, 당 창건 65주년 중앙보고대회 참석(10/10, 중통·중방)
- 10/10 김정일, 금수산기념궁전 참배(10/10, 중통)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군 총참모장)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당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강석주(부총리), 주상성(인민보안부장), 홍석형(당비서 겸 계획재정부장),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태종수·김평해·우동측·김정각·김창섭·문경덕 등이 수행
- 10/10 김정일, 당창건 65주년 열병식 참석(10/10, 중통·중방)
- 10/10 김정일, 당창건 경축야회(夜會) 참석(10/10, 중통·중방)

김정은동향

- 10/ 5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 참관(10/5, 중통·중방)
- 10/ 7 김정은, 은하수 '10월 음악회' 관람 및 「감사」 전달(10/7, 중통)
- 10/ 9 김정은, 국립연극극장 현지지도(10/9, 중통·중방)
- 10/ 9 김정은,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아리랑'공연 관람(10/10, 교도통신)
- 10/ 9 김정은, 당 창건 65주년 중앙보고대회 참석(10/10, 중통·중방)
- 10/10 김정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10/10, 중통)

- 10/10 김정은, 당창건 65주년 열병식 참석(10/10, 중통·중방)
- 10/10 김정은, 당창건 경축야회(夜會) 참석(10/10, 중통·중방)

기타 (대내 정치)

- 黨창건 65돌 즈음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제일 국력이자 무기”라며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라고 강조(10/4, 중방·노동신문)
- 김정일 黨총비서 再추대 축하 함경남도·남포시 경축대회 진행(10/4, 중통)
- 黨대표자회 참가자들, 평양과 지방의 여러 곳 참관(10/4, 중통)
- 北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0돌 기념보고회,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 노두철(내각 부총리),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등 참가下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0/5, 중통)
- 김정일의 黨총비서 再추대에 대한 그간 “黨 강화발전 업적” 칭송 및 尙民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워 나가자”고 독려(10/6, 평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0/4 모범적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등 수여함에 대한 정령 1106호 발표(10/8, 중방)

나. 경제

기타 (대내 경제)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주체철 생산체계 새롭게 확립하고 철생산 정상화 실현(10/7, 중통)

다. 군사

● 北, 미얀마 통해 첨단 군사장비 수입(10/6,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첨단 군사장비를 들여오면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미얀마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회보’(BAS)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과 미얀마 간 핵협력에 관한 분석기사에서 “최근 미얀마 군사정부가 구매한 첨단 군사장비는 미얀마의 현재 과학기술 능력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라면서 “이 장비의 최종 목적이 북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이어 “미얀마는 북한보다 덜 고립돼 있고 불법 밀매조직의 활동도 왕성

해, 일본 등에서 무기 관련 장비를 수입해 북한으로 보내기에 수월한 나라”라면서 “최근 들어 북한과 미얀마 간 외교·군사 관계가 다시 밀접해지고 왕래도 늘어나, 북한행 항공기에 이런 군사장비를 실어 보내면 막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임.

- 또한 이 잡지는 “북한이 아예 미얀마에 무기 공장을 차려 미사일과 핵무기의 성능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얀마 군사정부는 북한에 장소를 제공하고, 북한은 미얀마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식의 거래도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

● 北, ‘신형 축포개발’ 선전(10/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CNC(컴퓨터제어)기술로 신형 축포와 발사장치를 개발했다고 선전해 주목
- 통신은 “100여 종에 달하는 새 축포가 개발됐다”면서 “모의발사와 실제발사의 완전한 일치를 담보하는 CNC 축포 사격체계가 확립되고, 급변하는 대기환경 속에서도 발사를 담보하는 발사조종장치도 개발됐다”고 전함.
- 통신은 또 “프로그램과 조종장치 기술이 100% 조선의 것이고, 축포탄, 도화선, 화약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도 조선식으로 돼 있다”면서 “시험발사를 통해 과학기술적 성과가 입증된 새 축포를 조선의 뜻깊은 경축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당창건 기념일에 ‘축포야회’(불꽃놀이)를 벌일 것임을 시사

라. 사회·문화

● 北 ‘아리랑’ 공연기간 연장…외화벌이 때문?(10/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올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보름 연장했는데 이는 외화를 벌어들여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전함.
- 대북관광 전문업체인 중국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이 방송에 “원래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10.10)까지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같은 달 25일까지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함.
- 방송은 “공연 개막도 작년보다 1주일 정도 빨랐는데 더 연장하는 것을

보면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려 외화벌이를 하려는 것 같다”면서 “올해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함.

- 연인원 10만명이 동원돼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되는 ‘아리랑’ 공연은 고 김일성 주석의 출생 90주년이던 2002년 처음 선보였고, 그 후 2005년과 2007~2009년에 열려 올해 6번째를 맞았음.

● **北당창건 65돌, 주민들에 생필품 특별공급(10/5,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노동당이 당창건 65주년(10.10)을 맞아 1990년대 중반 이후 최대 규모로 주민들에게 ‘명절상품’을 싸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
- 또한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 “당 조직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오는 10일 당창건일에 명절상품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의 당 간부들이 상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말함.
- 량강도 소식통은 “당창건 65주년을 맞아 국가상업망(국영상점과 식당)을 통해 명절 공급을 잘 하라는 지시가 벌써 4번이나 내려왔다”면서 “지난달 30일 지시문에는 세대별로 술 한 병, 기름 500g, 돼지고기 1kg, 치약, 칫솔, 세숫비누, 빨래비누 각 1장, 속옷, 양말, 신발 각 한 켤레를 무조건 공급하고, 모든 국영식당이 10일 하루 동안 국정가격(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함)으로 술과 음식을 팔도록 돼 있다”고 방송에 전함.
- 또한 “지방의 외화벌이 기관들이 명절상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갖고 있는 외화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중국 거래처에 사정해 외상으로 들여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임.

● **北대학생들, 안재욱 노래 부르다 처벌(10/7,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지난달 하순 노동당 대표자회 직후 농촌지원을 나갔던 북한 대학생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합창하다 적발돼 사상비판을 받았다고 보도
- 이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 소식통을 인용, “최근 청진시 제1사범대학 혁명역사학부 학생들이 남한 가수 안재욱의 ‘친구’를 부르다가 도 보위부 간부에게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면서 “‘친구’는 청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전함.

- 소식통은 이어 “대학생들은 함경북도 경성군 오상리로 농촌지원을 나갔는데 잠시 쉴 때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합창으로 번졌다”며 “보위부 간부가 처음에는 농장원을 보내 제지했지만 농장원의 훈시에 반발한 학생들이 더 크게 노래를 불러 일이 커졌다”고 설명
- 또한 함경북도 회령시의 대학생 소식통은 이 방송에 “(청진제1사범대학의) 학부장과 강좌장들까지 보위부 조사를 받았고, 학생 간부들도 매일 사상투쟁회에 회부돼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시점이 당대표자회 직후이기 때문인지 이 사건으로 함경북도 내 모든 대학들이 검열을 받게 됐다”고 전함.
- 이 대학생은 “안재욱의 ‘친구’뿐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으로’(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지칭) 같은 노래도 주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당과 수령을 떠난 순수한 우정, 조국과 혁명을 떠난 사랑 등을 모두 부정하며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노인후원기금 설립(10/7, 조선신보)

- 신보는 “조선(북한)에서 연로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문화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연로자 후원기금’이 새로 설립됐다”면서 “연로자 보호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국제기구, 자선단체, 해외동포들이 기증하는 자선자금을 적립해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함.
- 북한은 과거에도 ‘조선교육후원기금’(2005년 1월), ‘자연환경보호기금’(2005년 3월), ‘조선체육후원기금’(2006년 4월) 등을 설립해 조총련 등 해외 동포와 관련 단체로부터 외화를 모금했음.
- 이와 관련 신보는 2008년 말 “30여개 국가의 단체와 인사가 ‘조선교육후원기금’ 후원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모아진 자금으로 교사(校舍)와 기숙사 건설 및 개보수, 교육설비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北, 주민들 세습비판 차단에 안간힘(10/8,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의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북한 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과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함경북도 청진시의 소식통은 이 방송에 “당대표자회 이후 청진시 수남구

역에서 ‘새끼돼지 어미돼지 모조리 잡아먹자’는 낙서가 발견돼 큰 소동이 벌어졌다”면서 “평성 장마당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을 비방하는 전단이 붙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당국이 이런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을 신고하면 신변을 보장하고 크게 표창한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인민반 회의에서는, 올해 청진시에서만 신고를 열심히 한 주민 5명이 ‘천연색텔레비전’(컬러TV)를 받았고, 8명은 10만원 이상의 상금을 받았다고 선전하기도 했다”고 덧붙임.
- 평안북도 신의주시 소식통도 “비판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연회, 인민반 회의, ‘지방3방송’(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 방송) 등 모든 선전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함경북도 청진시, 자강도 만포시 등의 강연회에서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린 ‘불순분자’들이 공화국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함.
- 신의주 소식통은 이어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이 우리 내부에 불순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교양을 들었다”고 말했고, 청진시 소식통도 “인민반회의에서 ‘남한 안기부(국정원)의 돈을 받은 반동분자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이들을 잡아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방송에 전함.

● 北유도 계순희 은퇴(10/8, NHK)

- 북한 유도 스타 계순희(31)가 은퇴했다고 NHK가 8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조선통신을 인용해 보도
- 조선통신은 계순희가 현재 “(유도 코치인 남편 김 철과 함께) 국제대회에서 자신들의 뒤를 이어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

● 北도 배추 파동…중국산 수입은 적어(10/9,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올 여름 수해와 고르지 못한 날씨로 배추 농사에 큰 타격을 입어 배추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함.
- 이 방송은 중국 단둥으로 이주해 북한을 상대로 교역하는 화교 장모씨의 언급을 인용, “북한도 올해 배추 농사가 크게 흉작이지만 중국에서 북한

으로 배추가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다”면서 “배추 살 돈이 있으면 더 급한 식량을 구입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함.

- 장씨는 또 “한번에 2~3t 규모로 중국산 배추가 북한으로 나가는 해도 이는 각 ‘기업소’(국영기업)가 운영하는 간부용 식당에 공급하는 것이지만 일반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임.
- 북한 거주경험이 있는 다른 화교 류모씨도 ‘북한이 배추 파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배추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수두룩한데 남새(채소) 부족을 신경쓰겠느냐”면서 “모르긴 해도 중앙(당국)에서 혁명정신으로 자력갱생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라고 덧붙임.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쇼팽(뽀스카음악가) 생일 200돌 관련 사진전시회 개막식, 전영진(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참가자 평양대외문화교류센터에서 진행(10/4, 중통·평방)
- 北과학백과사전출판사, 도서 ‘수령님과 혁명전우들’ 새로 출판(10/4, 중통)
- 北평양출판사, 도서 ‘옛 지도로 보는 독도’ 새로 출판(10/5, 중통)

2 대외

가. 일반

● 中 “北최태복, 당대표자회 결과 통보”(10/1, 신화통신)

- 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겸하는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원회 비서가 30일 중국을 방문해 최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의 결과를 중국측에 통보했다고 보도
- 통신은 최 비서가 도착 당일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해 회의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함.
- 이 자리에서 왕 대외연락부장은 “북한 노동당이 며칠 전 당 대표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축하한다”면서 “새로운 국제정세속에서도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간 전통적 우의가 부단히 발전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는데 공헌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

- 이에 최 비서는 “1980년에 이어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동당이 가능하다면 빨리 중국 측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라고 결정했으며 이는 북한 측이 북·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답

● **北기업, 중국 내 남한기업 상대 수주 활동(10/7,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남한 정부의 제재조치로 일감이 떨어진 북한 ‘기업소’들이 중국 내 남한 기업에 은밀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 선양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조모씨는 RFA에 “최근 조선족 사업가로부터 ‘물량의 일부를 북한에서 제조할 생각이 있느냐, 북한 기업소 사람이 나와 있으니 원하면 직접 상담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함.
- 북한에 산 적이 있는 화교 윤모(현 중국 선양 거주)씨도 “북한의 친척이 만든 가발 반제품을 중국 칭다오에 있는 남한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고 이 방송에 밝힘.
-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측 기업소들이 중국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을 보내 남한 기업들을 상대로 은밀히 일감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남한 정부의 제재조치로 북한 기업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함.
- RFA는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으로부터 주문이 끊긴 북측 기업소들이 중국의 남한 기업들을 상대로 수주 활동을 벌이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면서 “북측 기업소들은 중국 기업을 중간에 내세워, 반제품은 북한에서 만들고 완제품은 중국에서 만드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고 설명

■ **기타 (대의 일반)**

- 『제6차 北-美 군부 대화급 실무접촉』, 판문점에서 진행(10/5, 중통-중방)
- 中공산당 대표단(‘주영강’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10/9~13 訪北 예정(10/6, 중통)
- 일본의 『2010년 방위백서』 독도 自國영토 표기는 “재침야망이 실현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持續 비난(10/5, 평방)
- ‘게르하르트 티데만’ 駐北 독일대사, 국경절 즈음 공석웅(외무성 부상),오룡철(무역성 부상) 등 초청下 연회 개최(10/5, 중통)
- 北-中 외교관계 수립(1949/10/6) 61돌 즈음 兩國 관계를 “불패의 친선관계”라며 “조-중 친선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力說(10/6, 중방)

- 駐北 이집트 武官, '군대절' 즈음 北 軍장령·군관 및 駐北 각국 대사관 武官 등 초청下 대동강외교 단회관에서 연회 개최(10/6, 중통)
-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일행과 몽골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대표단 및 방글라데시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단, 北당창건 65돌 경축행사 참석차 각각 평양 도착(10/6, 중통)
- 평양예술단, 중국 절강성·강소성·광둥성의 여러 도시들에서 공연(10/8, 중통)
- 제4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9/20~21),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 즈음 중국에서 진행(10/8, 중통)
- 北적십자회 대표단(단장: 백용호 부위원장), 제7차 亞-太지역 적십자대회 참가차 요르단 향발(10/7, 평방)

3 대남

● 남북, 제3차 이산가족 실무접촉 개최(10/1, 연합뉴스)

- 남북이 1일 오전 10시께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
- 남측에서는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인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수석대표)과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이, 북측에서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박형철 대표가 각각 나옴.
- 또 상봉장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별도접촉에는 남측에서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김의도 위원이 당국의 위임을 받아 나서고, 북측에서는 지난달 24일 접촉에 나선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와 리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나설 것으로 보임.
- 북측은 지난 두 번째 접촉에서 남측이 상봉 장소로 제안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하려면 금강산지구 내 동결·물수 조치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남측이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에 대해 10월 중순께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
- 한편, 양측은 이에 앞선 지난 17일 첫 번째 실무접촉에서 상봉 일정(10월 21~27일)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상봉 일정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임.
-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일정(10월 21~27일)을 최대한 지키면 좋겠지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내일 합의가 이뤄지더라

도 일정은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함.

● **남북, 이산가족상봉 합의…각 100가족씩(10/1, 연합뉴스)**

-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박 7일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
- 남북은 1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제3차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 남북 이산가족상봉은 지난해 9월 26일~10월 1일 이후 13개월여 만에 처음이며, 2000년 이후 18번째임.
- 상봉일자는 남북이 지난 17일 1차 실무접촉에서 10월 21~27일에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상봉 장소문제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춰졌음.
- 상봉 규모는 우리 측이 확대를 요구했지만, 북측의 반대로 기존 규모인 남북 각각 100가족씩 실시하기로 함.
-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이번 상봉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하기로 동의
- 그러나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접촉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
- 금강산관광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접촉 요구에 대해 남측은 추후에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대응
- 북측 방문단의 남측 가족 상봉은 10월 30일~11월 1일, 남측 방문단의 북측 가족 상봉은 11월 3일~5일 각각 이뤄지며, 또 단체상봉은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에서 열림.
- 남북은 오는 5일 각 200명의 이산가족 생사확인의회서를, 8일 생사확인의회서에 대한 회보서를, 20일 상봉 최종명단을 교환할 예정
- 상봉 시작 5일 전에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선발대가 금강산 현지에 파견
- 남북은 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26~27일 개성에서 적십자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이날 실무접촉에 남측에서는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인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수석대표)과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이, 북측에서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박형철 대표가 각각 나섰음.

- 상봉 장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별도 접촉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김의도 실무접촉 수석대표가 나시고, 북측에서는 지난달 24일 접촉에 나온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와 리정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대표로 나왔음.

● 北, “금강산관광 당국간 실무회담 15일 갖자”(10/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통일부에 15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등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통신이 2일 밝힘.
- 통신은 “통지문은 1일에 진행된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협의된데 따라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 문제,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한 북남 당국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북측에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을 비롯한 관계일꾼 3명을 내보낼 것이라고 했다”고 전함.

● 南北, 상봉후보 각 200명 생사확인 착수(10/5, 연합뉴스)

- 오는 30일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남북 양측의 적십자사가 상봉 후보자 각 200명에 대한 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 이하 한적)는 5일 오전 남측 상봉 후보자 200명과 이들이 만나려는 북측 가족, 친척의 인적 사항이 담긴 생사확인 의뢰서를 개성공업지구 내 북측 통행검사소를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 측에 전달하고 북측의 의뢰서도 받았다고 밝힘.
- 북측이 보내온 생사확인 의뢰자 명단과 인적사항은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reunion.unikorea.go.kr)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덧붙임.

● 北매체, 김태영 국방 발언·PSI 훈련 비난(10/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지역 내 라디오 살포 계획’ 발언을 “대화 분위기를 깨는 호전적인 폭언”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북 심리전의 시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함.
- 민주조선은 기명 논평에서 “‘대북 심리전’ 운운한 것은 민심에 도전하는 역적행위이자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 인민군대는 대북 심리

- 전 재개시도에 직접 조준격파를 포함해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했고 이는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
-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때는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고 대북전단을 즉시 살포할 계획”이라면서 “북한지역에서 대북 심리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살포하는 작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우리 군 주관으로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될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이라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 검문, 납치행위를 감행할 경우 전면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 **황장엽, 자택서 사망…심장마비 추정(10/10, 연합뉴스)**

- 황장엽(87)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1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경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좌욕을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황씨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보안요원이 들어가 보니 황씨가 숨져 있었음.
- 황씨는 국정원 요원에 의해 특급 경호를 받아왔으며 이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황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고 별다른 사인이 없는 것으로 미뤄 심장마비 등으로 숨졌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할 계획
- 1923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황씨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거쳐 1949년 모스크바종합대학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공부했고, 1954년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김일성 사상을 주체사상으로 집대성함해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리었으며 1970년 당중앙위원, 1980년 당비서, 1984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87년 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등을 역임함.

■ **기타 (대남)**

- 도라산역 주변 통일 벽화 철거 및 관련시설물 관리 소홀은 “반통일적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시비(10/5, 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11-10.17

10 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통신 김정일, ‘中저우융강 접견’ 보도(10/1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1일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한 저우융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당서열 9위)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고 보도
- 통신은 “주영강은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다시금 열렬히 축하하고 대표단이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다”며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호급도 총서기 동지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중앙영도집단에 인사를 전하신 다음 주영강과 담화를 하고 오찬을 마련했다”고 밝힘.
- 이날 면담에 당 비서를 겸하고 있는 김영일 국제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일의 참석 여부는 언급하지 않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초청했으며, 저우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새 지도부’의 방증을 희망하는 후 주석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신은 또 저우 상무위원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방북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환했다고 소개하였으며 공항에는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김영일 당 비서 겸 국제부장, 주영식 자강도 당 책임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김성기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등이 대표단을 환송하였음.

● 김정일, “中 후진타오 방북 희망”(10/11, 신화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우융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방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은 고위층이 상호 방문하는 좋은 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을 비롯한 중앙 영도집단 구성원들은 중국에 자주 가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통신이 전함.
- 또한 “조선노동당은 조·중 관계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건강하게

발전해온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쌍방은 전략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조·중 양국은 정치 면에서 상호신뢰의 전범을 구축해야할 뿐 아니라 경제 면의 상호협력에서도 전범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부단히 경제협력 분야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자”고 제안

● **김정은 권력서열 6위로 정해진 듯(10/11, 교도통신)**

- 통신은 지난달 28일 열린 북한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지도부에 들어간 김정은의 동정기사가 이날까지 모두 8건에 달한다고 전함.
- 북한 매체의 간부 소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당정치국 상무위원 3명에 이어 김정은을 다섯 번째로 보도

● **저우용강, “김일성, 중국인의 위대한 친구”(10/11, 신화통신)**

- 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방북 중인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10일 고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평양 만경대를 방문해 “김 주석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자 중국 인민의 위대한 친구”라고 극찬했다고 전함.
- 저우 상무위원은 만경대를 찾아 북한 측 안내를 받으며 둘러보고 나서 “나는 여기서 깊은 혁명 전통을 교육받았다”면서 “김 주석은 마오쩌둥 주석 등 중국의 선대 혁명가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 우의를 손수 건설했다”고 함.
- 이어 “김 주석은 양국 인민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다”며 “양국의 전통적 우의가 새 시대에도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北, 열병식 취재제한 없었다(10/11, 마이니치)**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시내에서 펼쳐진 열병식에서 외국 언론에 대한 취재제한은 일절 없었다고 보도
- 이어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의 하나로 진행된 열병식에서 외국 언론의 사진 및 영상 촬영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김정일 부자에 대한 근접취재가 허용됐음은 물론 시민을 상대로 한 취재도 자유로웠다고 전함.

- 신문은 북한 외무성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열병식을 취재한 외국언론은 모두 18개사 95명이었으며 일본에서는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 TBS 등 5개사가 방북했다고 보도
- 마이니치신문 취재진의 경우 지난 8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9일 발급 받았으며 당일 오후 평양에 들어갔으며, 북한이 외국 언론의 비자신청을 간단하게 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함.
- 외국 언론의 숙소인 고려호텔에는 인터넷과 국제전화 사용이 가능한 프레스센터가 설치됐고 컴퓨터 기술자가 배치돼 인터넷 접속 장애 등에 정성껏 대응했다고 전함.

● 北 김정남…‘3대 세습에 반대’(10/12, TV아사히)

- 김정남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서 이뤄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말함.
- 김정남은 곧바로 “(세습에는) 나름대로 그럴만한 내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 요인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김정남은 또 김 위원장의 장남이면서도 후계자가 되지 못한데 대한 질문을 받고 “난 원래 그 점에 대해 유감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함.
- 장남인 자신 대신 동생이 후계자가 된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역시 부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동생(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의 운택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임.
- 동생이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외에서 동생이 필요로 할 때 도움 용의가 있다”며 “언제든지 난 동생을 도울 것”이라고 대답

● 北, 김정은 미화 ‘혈안’…연일 허황한 선전(10/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당국이 후계자 김정은을 미화하기 위해 연일 황당한 내용의 선전을 벌여 주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전함.
- 이어 방송은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당창건 65주년 기념일이었

던 지난 10일 ‘불세출의 영도자를 맞이한 우리민족의 행운’이란 제목의 ‘방송정론’을 모든 주민들한테 들도록 했는데, 김정은을 비현실적으로 미화하는 허황한 내용이었다고 밝힘.

- 방송에 따르면 ‘방송정론’에는 김정은이 정치, 경제, 문화뿐 아니라 역사와 군사에도 정통하고, 불과 2년간의 유학 생활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4개 국어를 숙달한 천재라고 소개
- 또 이에 만족하지 못한 김정은이 7개 국어를 완전 정복하겠다고 결심, 김정일 위원장을 도와 국가 전반의 사업을 지도하는 와중에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함.
- 김정은의 이런 ‘천재성’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 세 살 때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약자로 쓴 한시 ‘광명성 찬가’를 어려운 정자로 받아써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방송정론’은 주장
-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도 김정은 덕분이라고 포장돼 있음. 그가 해외 유학을 나갔을 때 ‘미제와 제국주의 열강’이 일으킨 전쟁을 목격하고 “핵을 가진 자들에게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핵을 갖게 됐다는 얘기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농민 선동자료’ 내용에는 김정은의 농업 부문 업적이란 것들이 장황하게 열거돼 있는데, 김정은이 2008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을 따라 사리원 미곡협동농장에 갔을 때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건물 앞에 게시된 표준비료량 표의 오류를 즉석에서 찾아낸 뒤 새로운 형태의 미생물비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함. 그 방법대로 했더니 이듬해 정보당 최고 15t의 벼를 수확했다고 함.
- 이 선전 자료를 접한 협동농장 주민들은 “(전국의) 농장들을 김정은 대장이 한번씩 다녀가면 우리나라 식량 문제는 저절로 풀릴 것 같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식통은 전함.

● 北, 11일도 휴일…“전부터 김정은 얘기 들어”(10/12, AP통신)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11일 평양을 방문 중인 외신 기자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모습을 드러내기 오래전부터 그에 대해 들었다고 말함.
- 통신에 따르면 박철(23)이라는 남성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취재차

방북한 이 통신 기자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얼굴을 닮았다”며 “젊은 장군(김정은)이 어렸을 때 지능과 좋은 성품 때문에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들었다”고 밝힘.

- 그는 또 전날 텔레비전을 통해 김정은이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지켜보다면서 “김정일 장군과 젊은 장군 김정은이 나라를 이끌면 (발전의) 문을 열고 더욱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통신은 평양 주민들이 이날까지 연휴를 즐겼으며 당국으로부터 음식과 술 등 기념품을 받아 대동강변이나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보도
- 조향미라는 여성은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열병식 중계를 통해 그를 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뻐하며 “우리나라가 강력하다는 것,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과 김정은의 지도력으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에 행복하고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고 전함.

● **조총련 “영도자에 충성, 5~6세까지 이어갈 것”(10/12, 조선신보)**

- 신보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지난 7일 “영도자에 대한 충성의 전통과 업적을 3세와 4세, 나아가서 5세와 6세에 영원히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 책임부의장은 이날 조선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 축하 중앙대회에 참석해 “우리는 조직 안에 주체의 사상 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이어 “주체연호 100년대에 들어서는 2012년에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 것”이라며 “장군님의 영도따라 조국통일위업 수행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특색있게 기여하고 대외활동을 보다 정력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김정일·김정은, 열병식 참가 지휘관과 기념촬영(10/1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지휘관을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
- 이어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병식에 참가한 전체 지휘관들이 당의 군사노선관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높여 사

회주의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사수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다”고 밝힘.

- 그러나 이 통신은 열병식 참가 지휘관과 기념촬영이 언제 어디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이날 기념촬영에는 김정일·김정은 부자와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 무력부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 군중·병중 사령관 등 군부인사와 박도춘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오일정 당 부장 등이 참석

● 北, 軍지원금 징수…주민들 김정은에 불만(10/13,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직후 “군 지원” 명목으로 기업소와 노동자에게 식량과 돈을 강제로 징수하면서 후계자 김정은을 향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양강도 내부소식통을 인용, “당 대표자회 직후 시작된 ‘인민군대 지원사업’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급되어야 할 식량 중 40%를 걷어갔다”며 “원래 지난 6월에 거둬야 하는 것을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미루다가 이번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힘.
- 양강도 당 위원회는 9월말에서 10월초 감자 배급과정에서 군대에 보낼 양으로 1인당 96kg을 원천징수했다고 이 매체는 소개.
- 소식통은 “청년대장 동지가 군대사업부터 틀어쥐면서 국가경제가 다시 엉망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고 전함.
- 또 주민들은 “청년대장(김정은) 동지가 등장하더니 장군님(김정일)보다 더 닷달한다”, “백성 뭇을 빼내서 군대를 먹이자는 식인데 무슨 국가정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냐”는 식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함.

● 中, 김정일 부자에 ‘의미 있는’ 선물…후계 동의?(10/14, 조선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의 당창건 65주년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각각 ‘우호협력 증진’과 ‘전통적 우의 계승’의 뜻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고 보도
- 통신은 13일,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한 저우용강(周永康)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당서열 9위)가 지난 11일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달한 선물 사진을 2장 공개

- 이 사진들을 보면, 김 위원장한테 전달된 액자에는 지난 8월 하순 방중 기간 중국 창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하는 장면과 하단에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을 축하한다.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우의를 부단히 공고하게 발전시키자’는 문구가 들어가 있음.
- 김정은에게 전달된 선물은, 젊은 시절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환담하는 사진과 함께 상단에 ‘상호협력과 전통적 우의를 대대로 전하자’는 요지의 문구가 들어간 접시라고 함.

● 北TV, 김정일 1983년 방중 기록영화 방영 눈길(10/15, 조선중앙TV)

- 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83년 6월 ‘후계자’ 시절 중국 공식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상영
- 이 방송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7년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역사적인 첫 방문을 진행하셔 조(북)·중 친선의 연대기에 새로운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셨다”며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 동지의 중국방문’ 제목의 기록영화를 내보냄.
- 두 시간 분량의 이 영화에는 젊은 시절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초청자인 후야오팡(胡耀邦)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해 덩샤오핑(鄧小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셴넨(李先念) 국가주석, 평전(彭眞)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의 부인 덩잉차오(鄧穎超)와 만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음.
- 특히 당시 김 위원장의 바로 옆에서 지금은 사망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과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이 밀착해 수행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음.

● 北주민, 김정은 공개적 언급 시작(10/16,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 통신 기자가 만난 김일성 종합대학 실내 수영장 안내원은 “청년대장(김정은) 동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장군님(김정일)과 함께 왔다”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이 1968년 나포한 푸에블로호를 안내하는 평양의 한 가이드도 “인민군이 몇 년 전부터 (정은을) 대장으로서는 우러러봐 왔다”고 말하였으며 그는 “우리는 (그를) 영도자 동지(김정일)와 동등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옥류관 현지지도(10/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옥류관 부속 ‘요리전문식당’을 현지지도
- 통신은 “그이께서는(김 위원장) 식당의 건축형식과 내용은 물론 주방설비와 식사실의 비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군인건설자들이 식당을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한데 대해 큰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옥류관 요리전문식당에서는 조선민족요리는 물론 자라, 연어, 철갑상어, 메추리, 왕개구리요리를 비롯한 각종 요리들을 만들어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함.
- 또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동행한 지도간부들과 함께 옥류관 종업원들이 준비한 평양냉면을 맛보고, 평양냉면의 고유한 맛과 전통을 잘 살렸다고 평가했다”고 전함.
- 김기남·최태복·홍석형 당 정치국 위원 겸 비서, 김경희 당 정치국 위원 겸 부장, 강석주 당 정치국 위원 겸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정치국 후보 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 비서가 동행

■ 김정일동향

- 10/11 김정일, 중국공산당 대표단 접견·담화 및 오찬 주최(10/11, 중통·중방)
 - 김영일·김양건(黨비서, 담화 배석·오찬 참석), 강석주(내각 부총리)·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등 오찬 참석
 - 석상에서 ‘주영강’은 중국공산당 중앙영도집단을 대표하여 黨대표자회의 성과적 진행과 김정일 黨총비서 추대, 黨창건 65돌 축하 및 ‘선물’ 전달
- 10/12 김정일, 黨창건 65돌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지휘성원들과 기념촬영(10/12, 중통·평방)
 - 이영호(총참모장), 김정은(黨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주상성(인민보안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군종·병종사령관들 비롯한 군대 지휘성원들, 박도춘(黨비서), 주규창(黨기계공업부장), 오일정(黨부장) 등 참가
- 10/13 김정일, 중국·쿠바·라오스·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영도자들의 北 정권창건 62돌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10/13, 중방)
- 10/17 김정일, 옥류관 현지지도(10/17, 중통)

- 김기남·최태복·홍석형 당 정치국 위원 겸 비서, 김경희 당 정치국 위원 겸 부장, 강석주 당 정치국 위원 겸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 비서가 동행

김정은동향

- 10/12 김정은, 黨창건 65돌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지휘성원들과 기념촬영(10/12, 중통·평방)

기타 (대내 정치)

- 黨창건 65돌 관련 “김일성의 부강조국건설 위업은 오늘 김정일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며 김정일 영도력 칭송(10/11, 중통)
- 黨창건 65돌과 黨대표자회를 “역사적 사변 등”으로 自祝하며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委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全民 총공격 독려(10/13, 중방·노동신문)
- 北 김영일 黨비서, 10.13 브라질 자유조국당 대표단과 담화(10/13, 중통)

나. 경제

● 北, 청진항 부두 ‘도문 부두’ 명명(10/11, 연합뉴스)

- 중국이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항 부두에 대해 북한이 ‘도문(圖門, 중국명 투먼) 부두’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도
- 소식통에 따르면 “투먼에서 북한 남양을 거쳐 청진항을 통해 중국 남방이나 한국 부산으로 가는 화물 운송 항로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승격하는 등 북한이 중국과의 청진항 합작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전함.

● 北, 올해 식량 150만t 부족(10/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북한의 곡물 작황을 현지조사한 결과, 올해 식량 공급이 150만t(총수요의 21% 해당)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 북한에서 올해 어느 정도 식량이 부족할 것인지를 놓고 적게는 ‘50만~100만t’(통일부), 많게는 ‘130만t’(국내 민간연구기관)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왔으나, 국제기구의 현지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처음
-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WFP와 FAO 조사단에 보고한 올해 곡물

수확량은 511만t으로 예상 수요(700만t)보다 무려 189만t이 적으며, 작년 11월 이후 곡물 수입량(30만8천t)을 감안해도 최소 150만t 정도 공급 부족이 예상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WFP와 FAO가 북한의 협동농장들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면서 “이번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늦어도 내달 초까지 북한의 올해 작황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함.

● **北청년동맹, 中지린성 방문…‘경협 희망’(10/14, 중국청년보)**

- 신문은 리용철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대표단이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초청에 따라 3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2일 중국 지린(吉林)성을 방문했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대표단은 방중 이틀째인 13일 김일성 주석이 다녔던 지린의 위윈(毓文)중학교와 베이산(北山)공원 등 혁명 유적지를 참관하고 창춘의 이치(一汽)자동차와 창춘열차회사, 육우 가공업체인 하오위에(皓月)그룹, 섬유 제조업체인 지린화섬(化纖)그룹 등을 시찰
- 대표단은 산업 시설을 시찰한 자리에서 “우리 역시 중공업 육성을 국가 건설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며 “전통적 공업기지인 지린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리용철 비서는 “북·중 친선을 대대손손 전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린성을 방문하게 됐다”며 “양국 청년 교류를 확대, 북중 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함.

● **中투먼, “北근로자 100명 고용키로”(10/14, 연합뉴스)**

- 통신에 따르면, 빠르먼 이달 중 북한의 기술 근로자 100명이 중국 투먼(圖們)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복수의 소식통들에 의하면, 투먼시 경제개발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북중 합자회사인 연변(延邊)금추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가 북한 무역성, 함경북도 해운구락부, 선봉무역회사 등과 북한 근로자의 파견 근무를 위한 노무 협약을 체결, 100명의 북한 근로자가 빠르먼 이달 중 투먼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전함.

- 북한 근로자들은 투먼 경제개발구 내에 건설된 ‘북한공업단지’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20만㎡ 규모의 북한공업단지는 투먼시가 대북 수출무역가공기지로 삼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이 단지 내에는 중국인 소유인 1만3천㎡ 규모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음.
- 투먼의 한 소식통은 “북한 근로자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출퇴근하며 북한 공업단지 내 LED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1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들어오고 점차 고용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공장 준공이 지연되는데다 고용 조건 등을 놓고 북중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 근로자 파견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전함.

● 北,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 10배(10/15, 블룸버그)

- 통신은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시장의 비공식 환율이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도
- 통신은 “평양 창광거리의 양쪽에는 스탈린식 국가 엘리트와 자본주의적 사고의 주민 간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현지 경제상황의 단면을 소개
- 이 통신에 따르면 창광 거리에 있는 고려호텔에서는 외화로 하이네켄 맥주 등 외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공식 환율이 1달러에 100원(이하 북한화폐 단위)이었지만 호텔 맞은편 사설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방북 외국인에게 달러 가격을 보여주며 200원짜리 야채 찜빵을 팔고 있었는데 달러로는 20센트를 받았다고 함.
- 통신은 또 열병식 다음날인 11일 평양 시민들이 창광거리 시장에서 싼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20원, 팔빙수가 5원, 고구마가 1kg에 60원이었다고 전함. 그러나 이곳에서 한 개에 1천700원 하는 소시지 등 상대적으로 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도
- 통신은 그러면서 고려호텔에서는 달러나 유로, 위안화로 스카치 위스키, 시리아산 올리브유 등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평양 시내 거리에서는 포드의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아우디 스포츠카가 달리고 있었다며 대조적인 모습을 전함.

기타 (대내 경제)

- 北, 청진항 부두 '도문 부두' 명명 中 투먼시 “北과 호시무역 곧 개시” 中, 라진이어 청진항도 확보 9월 개통(10/11, 연합뉴스)
- 제6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10/18~21),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예정(10/12, 중통)
- 北, 새로 개발된 흑연재료를 이용한 '전국' 생산 성공으로 흑연공업발전에서 성과 이룩(10/12, 중통)
- 北단천마그네사공장의 국내연료에 의한 '경소마그네사생산공정' 새로 완공, 수입대체 효과와 생산성과 제품의 질 향상, 무공해 등 자랑(10/13, 중통)

다. 사회·문화

● 北, 사진공유 '플리커' 사이트에서도 체제선전(10/11, 우리민족끼리)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19일 플리커에 'uriminzokkiri'란 ID로 회원 등록을 한 뒤 지금까지 모두 26장의 체제선전 사진을 올렸음.
- 가장 최근의 포스팅은 지난 8일 당창건 65주년을 이틀 앞두고 '일심단결된 태양 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승리의 불보라'라는 제목으로 불꽃놀이 사진 8장을 올린 것
- 다른 사진들은 출근길, 수영장 등의 시민들 일상과 만수대 거리(평양 중심가) 정경, 만포시 야경, 천리마기업소 현장 등을 담은 것인데, 제목에는 하나같이 '행복의 웃음 넘쳐나는', '황홀경을 펼친', '사회주의 선경' 같은 체제선전성 문구가 들어가 있었음.
- 북한은 지난 7월 14일 이후 '김정일화(花)' 등 555건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8월 12일 계정을 연 트위터에는 지금까지 735건의 단문을 게시

● 외신기자들, 평양서 트위터도 했다(10/12, 워싱턴포스트(WP))

- 신문은 북한의 지도자와 후계자가 군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제목으로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최근 공개적인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
- WP는 특히 북한이 외국 언론에 전날 열린 군 열병식을 공개했다면서, 비록 북한에 취재차 입국한 외신 기자들이 짜인 일정을 따르고 공식적인 가이드가 기자들을 따라 다녔지만, 일요일 군 열병식 행사의 생중계도 허용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기자들이 머무른 고려호텔에는 프레스룸이 설치돼 있고, 인터넷 접속도 가능했다면서 이를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라고 묘사
- 한 외신 기자의 경우 자신의 캐논 60D 카메라로 촬영한 김정일 스냅사진을 트위터 계정에 올려놓기도 했다고 전함.

● **평양은 특권도시…식량난 농촌과는 판판(10/13, 마이니치신문)**

- 신문은 북한의 수도 평양에 대한 르포기사에서 현재 평양의 모습은 심각한 식량난과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지역과는 판판의 ‘특권도시’였다고 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창건 65주년 기념행사 취재차 평양에 들어간 기자가 지난 11일 오후 8시 반 조금 넘어 평양 대동강변에 늘어선 식당에 들어가 봤더니 초라한 외관과는 달리 칸막이 객실까지 갖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고 함.
- 메뉴 가격표에는 구이용 모듬고기가 22달러, 고급 브랜드인 ‘헤네시-VSOP’가 100달러로 표시돼 있었지만 빈자리가 거의 없는 만석이었고 고객들의 가슴에는 김일성 배지가 달려 있었으며 대형 냉장고에는 수입 맥주와 식료품이 가득차 있었다고 함.
- 시내 곳곳에서 암달러상이 눈에 띄었고 통제가 느슨하기 때문인지 외국인 기자가 말을 걸어도 피하지 않고 달러의 교환비율을 알려줬음.
- 평양역 주변의 ‘신문’이라는 간판의 매점에서는 CD와 DVD도 취급하고 있었고, 매점 앞에서는 한 여성이 세발자전거 짐칸을 노점으로 토마토를 팔고 있었음. 토마토는 1kg에 200엔 정도
-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천막도 있었는데 이 곳에서 사람들은 1회당 북한돈 1천원(약 70엔)을 내고 제비뽑기로 간장, 식용유 등 생필품을 받아가고 있었다고 함.
- 밤이 깊어졌는데도 평양역 앞의 빌딩 옥상에는 ‘조선의 심장 평양’이라는 네온사인이 빛나고 있었음. 지난 6월 중국에서 만난 북한의 한 농촌 출신 여성은 연간 며칠씩 수 시간에 걸쳐 전기가 끊기고 있다고 말했지만 평양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전함.
- 북한은 지난 10일 열린 열병식에 외국기자 95명의 취재를 받아들였으며, 기자 수가 너무 많아 손이 돌아가지 않았음인지 자유행동을 허용.

- 기자가 밤 늦게 숙소인 고려호텔로 돌아오니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국자는 “평양의 야경도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함.

● **北고위층 가족, 해외근무·장기체류 특혜(10/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식량난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 달리 고위층 가족이나 친인척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며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전함.
- 평소 북한 고위층과 연락하며 지낸다는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의 조카는 네 팔 주재 북한 대사로 있다가 얼마 전 말레이시아 대사로 옮겼고, 강석주 내각 부총리의 조카는 현재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관원으로 근무중
-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사위 박모씨와 김영일 당 국제부장의 사위 신모 씨는 같이 독일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
- 이들 특권층은 해외 근무를 하고 귀국해도 외무성, 무역성 등의 편하고 힘있는 자리에 배치되는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아들, 최영림 내각 총리의 딸, 리명수 국방위 행정국장의 조카, 리하일 인민군 차수의 사위 등이 그런 경우
- 이들 특권층은 또 북한의 일반 해외 주재원과 달리 독립주택에 살면서 벤츠 차량을 굴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평양 출신의 탈북자는 이 방송에 “김정일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측근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준다”면서 “이런 측근의 자녀들은 외국에 보내도 망명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김일성대학이나 국제관계대학을 거쳐 외무성이나 무역성에 많이 배치되고 승진과 해외파견시 특혜를 본다”고 말함.

● **평양서도 햄버거 인기…‘심야까지 장사진’(10/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블루진’과 함께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햄버거’가 요즘 북한 평양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함.
- 한 싱가포르 회사가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고 개점한 ‘삼태성청량음료점’에서는 ‘다진 소고기와 빵’(햄버거), ‘구운빵지짐’(와플) 등을 ‘평양사이다’

나 ‘금성생맥주’ 같은 가벼운 음료와 함께 팔았는데, 올해 들어 개선청년 공원유희장(일종의 놀이공원)에 분점을 내면서 햄버거 손님들로 연일 장사진을 치고 있음.

- 특히 놀이공원 분점의 경우 하루 24시간 문을 여는데도 전날 예약해야 겨우 햄버거 맛을 볼 수 있고, 예약을 받지 않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심심찮게 연출된다고 함.
- 한 평양 주민은 이 방송에 “처음에는 외국에서 햄버거 맛을 본 적이 있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찾는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면서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 내화(북한돈)와 달러, 유로, 중국 위안화를 모두 받아 웬만큼만 돈이 있으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전함. 또 이 주민은 또 “햄버거를 처음 맛본 사람은 특유의 느끼한 맛 때문에 별로 맛있다는 생각을 못한다”면서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세 번 먹으면 제 맛을 알고 다섯 번째부터 중독이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분위기를 전함.
- 한편 RFA는 평안남도 간부의 말을 인용, “삼태성청량음료점의 실소유주는 김정희(김정일 위원장 여동생, 당 경공업부장)이고, 김정희의 측근 김경옥이 경공업부 부부장 직함을 앞세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 北, 너무 불투명해 부패지수 측정 불가(10/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해온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에 한번도 오르지 못했던 북한이 16년째인 올해도 평가 자료 부족으로 다시 누락됐다고 보도
- 이 기구의 차니타 리아노 프로그램 책임자는 RFA에 “전세계 국가의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 인지 및 청렴도를 조사해 반영하는 ‘부패지수 순위’에서 북한은 올해도 평가 자료 부족으로 제외됐다”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도 해마다 이 명단에 포함되는데,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지 못했다”고 함.
- 그는 이어 “올해 각국의 부패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등 13개 조사기관의 평가 자료를 참고했다”면서 “특정 국가의 부패지수를 산출하려면 최소한 3개 기관 자료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우 2개 기관 자료밖에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

- RFA는 “이처럼 북한이 부패 순위에서 계속 하락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한다”고 말함.

● **요즘 북한은 외국 음란물 천지(10/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에서 외국산 성인용 음란물이 널리 퍼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 “당국이 국산 DVD만 돌아가는 녹화기 생산을 늘리고 외국산 녹화기의 조종기판을 국산으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장마당에서 외국 음란물을 찾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
-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 방송에 “장마당에 가면 밀수된 중국산 조종기판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도 중국산 복사기만 있으면 DVD 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외국 음란물이 널리 퍼져 요즘에는 녹화기가 있는 집이면 음란 DVD를 한두 장씩 갖고 있을 정도”라고 전함.
- 량강도 혜산시 주민은도 “요즘 장마당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색깔 영화’(음란물)인데 대부분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런 음란물이 미성년자들에게도 급속히 퍼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
- 방송은 “북한에는 영상물 등급이 없고 성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음란물의 폐해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밝힘.

● **북한 체조단체팀 런던올림픽 출전 사실상 좌절(10/15, AP통신; AFP통신)**

- 북한 체조팀은 국제체조연맹(FIG)이 14일 북한 여자체조 선수의 나이 허위 기재와 관련된 재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좌절됨.
- FIG 항소위원회는 이날 FIG의 북한팀에 대한 국제대회 출전정지 조치를 재심한 결과 북한 측 설명이 출전금지 처분을 철회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이라며 청구를 기각
- 지난주 FIG는 북한 여자선수 홍수정이 16일부터 시작되는 로테르담 세계 체조선수권 대회 참가신청 서류에 이전과 다른 생년월일을 기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30일간 모든 국제대회 참가를 불허한다는 징계를 내림.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각계층 인민들, 黨창건 65돌을 맞으며 黨창건기념탑을 찾아 黨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린 金父子 업적 回顧(10/12, 중통)
-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회 폐막식, 10/14 김기남(黨 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안동춘(문화상)·김병훈(문예총 위원장) 등 참석下 진행(10/14, 중통)

2 대외

가. 일반

● 北, 아프리카서 잇단 대형 조형물 공사(10/12, 연합뉴스)

- 북한은 세네갈에서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건립한 데 이어 차드에 서도 독립 50주년 기념물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 공사에 는 총 160억 프랑 세파(한화 370여억 원)가 들었으며 북한의 만수대 해외 사업부가 공사를 맡음.
- 다카르 국제공항 인근 대서양 연안에 세워진 이 조형물은 성인 남자가 여자와 아이를 안은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높이가 50m로 미국 뉴욕 의 자유의 여신상(46m)보다 4m 더 높다고 함.
- 기념상 제막식은 지난 4월 압둘라예 와드 세네갈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19개국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으나 전망대 공사 등 마무리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달에나 일반인에 공개될 예정

● 北고관, “日총리 교체 잦아 대화 어렵다”(10/12,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 고위관리가 일본의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 누구와 대화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이 통신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른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씨가 이날 경유지인 베이징 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함.

- 이노키씨에 따르면 평양에서 만난 고위관리는 “일본의 총리가 자주 바뀌어 북·일 관계와 관련 누구와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일본의 의원단이 방문하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함.

● **北김계관 방중…6자회담 재개논의할 듯(10/12, 연합뉴스)**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 부상이 승진 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일단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날것으로 예상된다”고 확인

● **北, 日 대북정책 비난…유연한 대처 촉구(10/12, 교도통신)**

- 통신은 남북자와 핵, 미사일 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겠다는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유연한 대처를 촉구했다고 보도
- 북한의 송일호(宋日昊, 56)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통신과 인터뷰에서 “과거 자민당 정부가 포괄적 접근이라는 잘못된 대북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에 북·일 관계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함.
- 송 대사는 또 “민주당 주도의 새 정부 역시 이런 (자민당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양국)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 특히 송 대사는 “현재 국면은 일본이 납치 문제에 납치된 상황”이라고 비꼬기도 했으며 양국이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쌓으면 일본 국민이 가진 납북자에 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면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
- 이어 “우리는 납치 사실을 시인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의혹만 키우며 양국 사이에 온갖 장벽들을 만들었다”고 비난
- 그는 핵 문제와 관련 유엔이 대북 제재를 우선 해제해 북한이 평등한 입장에서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
- 한편, 송 대사는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정적으로 나라를 지도하고 있지만 “혁명 달성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확인
- 통신에 따르면, 그는 특히 김정은을 노동당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

출한 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혁명 위업 완수를 원하는 당(黨)과 군(軍), 인민의 뜻이 투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고 전함.

● **중국방부장, 중·북 전통우의 강조(10/15, 연합뉴스)**

-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은 14일 북한의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친선참관단을 맞아 양측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협력을 고위급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량 국방부장은 이날 굳게 다져진 양측의 깊은 우호협력 관계를 거론하며 “중국과 조선은 오랜 세월 상호존중하면서 서로 도왔다”고 강조
- 또 량 부장은 중국과 북한이 자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이익,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킬 임무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이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양측 정부와 군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
- 이에 변인선 부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우호 협력을 증대하기를 원한다며 양측의 윗세대 지도자들이 쌓은 우의를 높이 평가함.
- 변인선은 북한군 참관단이 방중 기간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이룬 성과와 군사적 발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중국인민해방군 초청으로 방중한 북한군 참관단은 남부 윈난(雲南)성도 시찰할 예정임.

● **北, 美정부 접촉 끊기자 민간에 대화 손짓(10/15,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북한이 미국 정부와 다시 접촉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을 잇따라 초청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수전 셔크 전 미국무부 차관보와 토니 남궁 뉴멕시코 주지사 수석고문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고, 추가로 11월 말까지 최소한 4개의 민간 방문단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 외교 소식통은 VOA에 “북한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다시 접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은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북핵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함.

● 北김계관, 오늘 고려항공편 귀국할 듯(10/16,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 고려항공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지난 12일 방중한 김 부상은 도착 당일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 웨이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
- 통신에 의하면 김 부상은 또 13일에는 양제츠 외교부장을 면담했으며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한차례 더 회동한 것으로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10/7 적도기네 독립 42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0/11, 중통·중방)
- 중국 홍콩방송위성TV, 北당창건 65돌 즈음 김정일에게 선물(10/11, 중통)
- 김기남(黨비서), '비슈아나스'(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 등 訪北 각국 및 지역의 주체사상연구 조직 대표단 단장 대표들과 담화(10/11, 중방)
- 김영일(黨비서), '이노끼 간지' 일본 이노끼계농연합주식회사 회장 일행과 담화(10/11, 중통)
- 평양기계대학, 에라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토레스 에스메랄다스기술종합대학'과 "친선 및 과학 교류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10/11, 중통)
- 방순철(평양기계대학 원장), 서호원(北-에라도르친선협회 위원장) 등 참가(10/11, 중통)
- 주북 러대사, 러-北 외교관계 설정 62돌 관련 대사관에서 연회(10/12,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 총리, 스웨덴 再任 '프레드리크 라인펠트' 수상에게 축전 (10/13, 중통)
- 리명철 가봉 駐在 北대사, 駐在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10/14, 중방)
- 北 黨대표단(김영일 黨 비서, 리명철 黨 부부장), 10.14 헝가리 공산주의 노동당대표단과 평양에서 회담(10/14, 중통·중방)
- 김영남,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 '나스리 구스따만' 신임장 접수(10/14,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김계관, 중국에 9.19성명 이행용의 표명(10/15, 연합뉴스)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 정부에 비핵화 원칙을 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외교소식통은 이날 중국측이 김 부상과 협의결과를 한국 정부에 사후 통보한 내용에 대해 “김 부상이 방중 기간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고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중국은 북한의 태도가 여러가지로 전보다 나아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그러나 이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도 그동안 계속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고, 김 부상이 중국측과 천안함 사건을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

● **北외무성, ‘9.19공동성명 이행의지 불변’(10/1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함.
- 대변인은 이날 김 제1부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앙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초청에 따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북중)관계와 6자회담 재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 등 문제들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토의했다”며 이같이 말함.
- 이어 “우리는 6자회담 재개에 준비되어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참가국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서두르지 않고 인내성 있게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3 대남

● **남북, 금강산서 신계사 복원 3주년 법회(10/1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북 불교계가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사찰 복원 3주년 합동법회를 개최했다고 보도
- 통신은 “합동법회에는 북측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교직자와 금강산 신계사 승려, 신자가 남측에서 불교 조계종 승려, 신자가 참가했다”며 “연설자들은 합동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은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이행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서로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려는 북남 불교도의 통일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통신은 “합동법회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신계사로의 참배길을 열어나가고 북·남관계를 개선해 나라의 통일과 평화변영을 위한 실천행에 적극 떨쳐나서려는 북·남불교도들의 결의를 담은 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고 덧붙였다.
-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등 5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금강산 지역에서 북한에 대북수해지원용 쌀 30t을 전달하고 법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北, 황장엽 前비서 장례일에 “하늘이 내린 저주”(10/14, 우리민족끼리)

- 매체는 ‘배신자의 운명’이란 논평에서 황 전 비서를 ‘황가 놈’이라고 부르며 “유례없는 고난의 시절이 닥쳐오자 우리 당과 제도를 등지고 혈분이 (피분이)들까지 다 버린 채 일신의 향락과 안일을 찾아 남쪽으로 뺄소니 찼던 자”라면서 “일점 혈육도 없는 타향의 차디찬 곳에서 누구도 모르게 명줄이 끊어졌으니 이보다 비참한 최후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주장
- 이 사이트는 또 황 전 비서가 북한의 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에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 “세계가 지켜보는 평양에서 당 창건 65돌을 맞는 환희와 감격이 터져오르고 선군 대오의 발구름 소리가 진감하는 시각이었다”면서 “하늘도 이 날을 보라고 살려둔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

● 北, 황前비서에 온갖 욕설…두 차례 비난글(10/1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황前비서의 죽음에 대해 독설을 퍼붓는 글을 두 차례나 올림.
- 이 매체는 오후 3시께 첫 번째 비난글을 올렸다가 20분 만에 내린 다음 4시간 40여분 뒤에 훨씬 비난 강도가 세지고 험한 욕설이 동원된 글을 다시 올림.
- ‘천벌을 받은 인간추물의 비참한 종말’로 제목이 바뀐 두 번째 글은 “황가 놈의 급사는 하늘이 내린 천벌이며 조국과 인민, 민족을 반역한 변절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푹푹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강도를 높임.
- 또한 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일 황 전 비서가 세상을 떠난 것을 겨냥, “세계를 진감(진동)시킨 평양에서의 지난 9월의 역사적 사변과 10

월의 우렁찬 발걸음 소리, 폭풍같은 만세환호성에 북동이 터지고 심장발작을 일으켜 황천객이 됐을 것”이라며 주장

- 이어 황 전 비서에 대한 훈장 추서와 국립현충원 안장에 대해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의 광대극”이라고 덧붙임.

● 北, “금강산 당국회담 하루빨리 갖자”(10/14, 연합뉴스)

- 통신은 통일부의 보도를 인용,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북측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이 이날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인편으로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가질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보도
- 북측은 앞서 지난 2일 “금강산지구 우리 측 부동산 문제와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
- 이날 북측의 회담 조속개최 촉구는 남측이 12일 “남북적십자회담(26~27일)과 이산가족 상봉행사(10/30~11/5)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 우리 입장을 알리겠다”고 통보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임.
- 북측의 조속한 회담 촉구에도 남측은 이미 북측에 알린 대로 “회담 여부에 대해 추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회담이 열려도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北, 심리전방송·전단살포 ‘물리적타격’ 위협(10/15,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남측이 대북 심리전방송과 반공화국 빼라(전단) 살포행위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방송수단과 빼라살포 지점에 대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 타격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 통신은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남측에 전달한 항의통지문에서 “우리는 긴장 격화를 바라지 않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행위나 그 어떤 사소한 도발행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북측 단장은 이어 “최근 남측 국방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대북 심리전방송의 주파수 변경에 따른 라디오 살포와 대형전광판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고 용납못할 또 하나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

- 그는 또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 군대의 대응방식이 따라서(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면서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군대의 대응방식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변

● 北신문, PSI훈련에 “노골적인 선전포고”(10/16,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북한이 한국이 주관하는 첫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이 13~14일 부산에서 실시된 것과 관련, “우리(북)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도발이며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
- 신문은 이날 ‘대화와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해상봉쇄는 전시에나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날강도적인 적대행위가 가져올 것이란 군사적 충돌과 북남관계의 악화뿐”이라고 강조
- 이어 “지금 북과 남에 필요한 것은 총포소동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추동하기 위한 대화의 분위기”라며 “북남관계의 파국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남조선 당국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덧붙임.
- 민주조선은 이날 미국에서 열린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핵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불안정 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데 대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모든 물리적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보복타격으로 침략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낼 것”이라고 주장

■ 기타 (대남)

- 南 정부는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남공동선언들의 고수 이행 △連北 화해정책 전환 △북침전쟁연습 중단 등을 실현하여 “대화와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10/12, 평방)
- 정부의 ‘9/28 서울수복행사’ 관련 “동족에 대한 대결분위기를 조장하는 정치적 도발”로 持續 비난 및 南 당국은 “우리(北)의 제안(이산가족상봉 등)에 호응해 對北정책을 전환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 촉구(10/12, 중방)
- 통일부장관의 남북통일 관련 해외발언(독일통일 경험을 토대로 통일준비 등) 관련 “南당국이 ‘체제통일’ 야망을 계속 추구한다면 남북관계는 파국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10/13, 중통·노동신문)

- '제42차 韓美 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공동성명 등) 관련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전쟁모의"라며 "우리(北)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10/14, 중통·노동신문·민주조선)
- 我軍의 「2010 육군정책보고서」 '주적' 표현은 "동족대결"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주적론'을 고집하면서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데 대해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豪言(10/14, 중방)
- '民主平統' 수석 부의장의 對北정책 海外강연회 발언(北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등) 관련 "최근 남북간 일련의 긍정적 움직임(적십자 실무접촉 등)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이라고 비난(10/14, 평방)
- "조국통일3대원칙은 가장 정당한 통일원칙"으로 조국통일 실현에서 "연방제방안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다"고 持續 주장, 선동(10/14, 중통·노동신문)
- 北축구팀, 10/14 한국팀 상대 2:0 승리('2010 아시아 19세미만 축구선수권대회' 4강전) 및 결승 진출 보도(10/15, 중방)

10.18-10.24

10 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은, 中대표단과 외교무대서 침묵(10/18, 요미우리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저우용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지난 9일 면담에서 인사만 했을 뿐 발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
 -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김 국방위원장과 함께 저우용강 상무위원을 만났으나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악수만 했으며 김 국방위원장의 말을 열심히 듣기만 했다고 전함.
 - 신문은 저우용강과의 면담은 김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에게 첫 외교무대가 되었지만 자유로운 발언은 용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

- 北김정일, 中가극 관람 후 “북·중친선 불변” 강조(10/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전통가극 ‘량산백과 축영대’를 피바다 가극단이 개작한 공연을 관람하고 “중국 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 60돌이 되는 때 중국 동지들의 협조를 받아 또 한 편의 가극을 완성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조·중 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밝혔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또 “문화교류는 나라들 사이의 호상 이해를 두터이하고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피바다 가극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겸직), 강석주(내각 부총리 겸직)와,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당 비서 겸직)가 수행

- **北, 평양에 김정은 전시관 설치…우상화 본격화(10/19,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우상화 자료가 전시된 ‘김정은관(館)’이 평양 조선혁명박물관 내에 설치돼 이미 당 간부들에게 공개됐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관’ 정면에는 ‘김정은 대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사진이 걸려 있다”면서 “지난 7월 초부터 당과 군의 고위 간부들이 일부 관람했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내년 초 김정은 생일(1월 8일)을 기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김정은관’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의 위상이 1980년 6차 당대회 직후 후계자로 공표됐을 때의 김정일과 비슷한 수준임을 의미한다”면서 “조선혁명박물관 안에 ‘김정일관’이 만들어진 것도 6차 당대회 이듬해인 1981년의 김정일 생일(2월 16일) 때”라고 설명

- **후진타오, 北에 쌀 50만t 지원 약속(10/22, 도쿄신문)**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북한에 쌀 50만t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
 - 신문은 중국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8월 27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경제제재로 식량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 1월까지 쌀 50만t 이상을 지원받고 싶다고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 측은 50만t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이어 쌀 50만t은 중국 통화로 약 22억 위안 상당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북한 지원은 그동안 금액 기준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지원액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
 - 또 당시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에 대해 설명했고, 중국 측은 ‘북한 노동당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함.

- **北양형섭, 김정은 후계 재차 확인(10/23, 신화통신)**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밝혔던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인 표현으로 김정은의 위상을 재차 확인

- 통신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중국부녀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송시우옌(宋秀岩) 당 중앙위원 겸 전국부녀연합 부주석을 만나 “최근 열린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동지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조선 혁명 발전에서 매우 깊은 의의를 갖는다”고 밝힘.
- 이어 양 부위원장은 “김정일 동지가 김일성 주석이 창건하신 조선노동당을 계승했듯이 앞으로는 조선노동당의 혁명 사업을 김정은 동지가 계승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인민들에게 매우 깊은 믿음과 격려가 되고 있어 조선의 혁명 사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

● **귀보승 中당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북(10/23,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 통신은 귀보승(郭伯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고위군사대표단이 2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공항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 대사 등이 대표단을 영접, 대표단은 대표단은 마샤오텐(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퉁스핑(童世平) 총정치부 부주임, 리안동 총장비부 부부장, 진은하 총후근부 부부장, 왕홍요 심양군구 부정치위원, 풍조거 제남군구 부사령원, 조육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전리화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주도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 등으로 구성
-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환영의식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재경 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리 부위원장과 귀 부주석이 북한군 명예 위병대를 사열
- 신화통신은 이날 대표단의 방북 소식을 전하며 “북·중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역내 평화를 지키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도

● **北·中, ‘軍친선협조 발전’(10/2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리영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참모장은 23일 중국 군사대표단을 위한 국방위원회 주최 연회 연설을 통해 “(대표단의 방

- 문은)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그는 “미제 침략자를 반대해 항전을 벌이는 과정에 피로 맺어진 조·중친선의 유대가 더욱 강화됐다”며 “(북·중간) 공동의 노력에 의해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중국 귀보슝(郭伯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온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새 세기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전망을 확신하게 된다”고 화답함.
 - 이 자리에는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김명환 상장,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배석
 - 중국 군사대표단은 귀 부주석을 단장으로 마샤오텐(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퉁스핑(童世平) 총정치부 부주임, 리안동 총장비부 부부장, 진은하 총후근부 부부장, 왕홍요 심양군구 부정치위원, 풍조거 제남군구 부사령원, 조육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전리화 국방부 외사판 공실 주임, 주도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 등으로 구성

● 北·中, 수뇌부 ‘아리랑’ 관람(10/24, 조선중앙방송)

- 중국인민해방군의 6.25전쟁 참전 60주년을 맞아 귀보슝(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중국인민군 관계자들이 대거 방북한 가운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함께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며 친선을 다짐.
-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에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짐.
- 북측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최영림,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김기남·최태복·양형섭·주상성,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양건·김영일·최룡해·리태남·김정각이 참석
- 중국측에서는 귀보슝(郭伯雄)을 비롯해 마샤오텐(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퉁스핑(童世平) 총정치부 부주임, 리안동 총장비부 부부장, 진

은하 총후근부 부부장, 왕홍요 심양군구 부정치위원, 풍조거 제남군구 부사령원, 조육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전리화 국방부 외사판 공실 주임, 주도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이 참석

- 방송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세대를 이어 공고히 발전시켜나가려는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친선아리랑장(章)은 공연을 더욱 뜻깊게 장식했다”고 전함.
- 안동춘 문화상은 이날 연설에서 “조·중(북·중)친선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공동의 재부(재산)이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패의 친선”이라고 강조
- 방송은 이어 방송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주년을 맞아 만든 이 영화는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전선에서 용약(용기있게) 떨쳐나와 상감령 전투에서 무비의(뛰어난) 용감성을 발휘한 황개강 영웅을 비롯한 중국 인민지원군 용사들의 빛나는 위훈을 감명깊게 보여준다”고 설명

● 中 軍대표단, 인민지원군 열사묘 참배(10/24, 반관영통신)

- 통신은 중국군 대표단이 북한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인민지원군 열사묘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의 6.25 참전 6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중국군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열사묘에서 참배하면서 북·중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의 강화를 다짐한 것으로 보임.
- 중국군 대표단의 참배에는 북측에서 최창식 보건상, 이영철 당 국제연락부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성기 외무성 부상 등이 동참

■ 김정일동향

- 10/19 김정일, 창작 완성된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 관람(10/19, 중통·중방)
 - 김기남·최태복·홍석형(정치국 위원/당비서), 김경희(당부장), 강석주(내각부총리), 장선택(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정치국 후보위원/당비서) 등
- 10/20 김정일, 동대원은하피복공장 3직장 등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10/20, 중방)

기타 (대내 정치)

- 인민보안부 대표단(단장: 허영호 부부장)과 베트남 공안성 대표단간 회담,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19, 중통)
-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자주통일·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수호의 정치”라며 그 정당성 강조(10/20, 중통)
- 김기남(黨비서), 중국 인민일보대표단(단장: 마리 부총편집)과 담화(10/20, 중통)
대표단 단장은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의지 표명
- 김정일 노작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20돌과 ‘일생산 및 재정총화방침’ 제시 40돌 기념 중앙보고회, 최영림(내각총리), 홍석형(黨비서), 박수길(내각부총리 겸 재정상/기념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1, 중통)
- 訪北 中 인민지원군 노병대표단, 대성산혁명열사릉에 헌화(10/21, 중통)

나. 경제

● 中 훈춘-北 원정리 잇는 신두만강대교 추진(10/18, 연합뉴스)

- 통신은 북한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획득, 동해 항로를 확보한 중국 훈춘(珲春)시가 북한 원정리와 연결되는 두만강대교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와 훈춘시에 따르면 훈춘시는 노후한 훈춘-원정리 간 기존 두만강대교를 대체할 신두만강대교 건설을 추진, 최근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함.
- 연변주와 훈춘시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신설 교량 건설 사업 승인과 사업비 지원을 요청
- 두만강대교 상류 50m 지점에 세워질 새 다리는 두만강대교보다 42m가 늘어난 577m 길이에 왕복 4차로(폭 25m)로 건설할 계획이며 완공되면 연간 120만t의 물류를 통관할 수 있게 된다고 예상
- 연변주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창춘(長春)에서 열린 동북아무역박람회에서 북한과 신두만강대교 신설에 합의했으며 북한도 적극적”이라며 “이미 설계가 완공됐으나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신두만강대교의 착공 시기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말함.

● 中 접경지역, 북한 근로자 대거 유입(10/18, 아사히신문)

- 신문은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투먼 등지에 북한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린성의 조선족자치주 투먼시는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 근로자 100명을 이달 중 받아들일 방침이며, 단둥시도 약 1천명의 북한 근로자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함.
-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북한과 가까운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국경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고임금을 찾아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연안 도시 등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함.
-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급등하자 이 지역의 기업체들은 저렴한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음.

● 中BYD, 北서 인기...올해 500대 판매(10/19, 신화통신)

- 통신은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비야디(比亞迪, BYD)가 북한에서 올해 500대 이상의 승용차를 판매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
- 통신은 BYD가 북한에서 환영받는 몇 안 되는 외국산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올해 500대 이상의 승용차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평양에 애프터서비스센터를 개설, 차량 무료 수리와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
- 이어 BYD가 지난 18일 북한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한 제6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진베이(金杯)승용차와 가전업체 하이얼(海爾) 등 중국의 유명 업체들과 함께 참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임.
- 통신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평양 국제상품박람회에 중국과 러시아, 독일, 스위스 등 19개국 14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이 64개에 이른다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제6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10/18~21)' 개막식, 리태남(내각부총리), 리용남(무역상), 김문정(조선국제전람회 사장/개막연설) 등 참가자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0/18, 중통)
- 예성강6호발전소·연산군민발전소 완공 및 연하발전소 등 1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완공 임박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중소형발전소 건설 자랑(10/18, 중통)
-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 인회토를 이용한 효능높은 '유기질광물비료' 개발로 농업생산에서 성과 이룩(10/20, 중통)

다. 군사

- 北·中, 중공군 6.25참전 60주년 띄우기(10/20, 해방군보; 신화망; 노동신문)
 -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20일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중공군 노병들이 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과 함께 방북해 북·중 우의를 다졌다고 보도
 - 이들은 중공군의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북했으며 북한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연회를 베풀었다고 해방군보는 전함.
 - 신화통신의 인터넷사이트인 신화망은 이날 ‘중국과 조선(북한)의 피로 맺은 우의가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제목으로 북·중 우의를 강조하는 노동신문의 기사를 게재
 - 신화망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조·중 양국민의 민족과 혈맥은 다르지만, 선대가 피로 맺은 우의가 이후 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더 아름답게 변창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에 국경은 그어져 있으나 양국 우의에는 한계가 없다”고 전함.
 - 신화망은 위 노동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오는 25일이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 60주년”이라고 강조

기타 (대내 군사)

- 中 인민지원군의 ‘한국戰’ 참전(66만1,736명) 60돌 관련 “戰勢회복, 원조물자 제공과 전후복구 지원” 등 경의표명 및 “피로써 다져진 조·중친선은 시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역설(10/21, 중통)

라. 사회·문화

- 北혜산시 고교생들, 중국서 폭약 밀반입(10/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량강도 혜산시의 고등중학생(중고교 통합 학제) 3명이 당창건 기념일 다음날인 이달 11일 중국에서 폭약 10kg을 밀반입하다 체포됐다고 전함.
 - 방송은 혜산시 소식통들을 인용, “혜산시 송봉고등중학교에 다니는 강모군 등 학생 3명이 중국에서 폭약을 들여오다 붙잡혀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리고 국경도 일시 봉쇄됐다”면서 “왕덕역(김정일 전용역)으로 통하는

철교를 폭파하기 위해 폭약을 밀반입했다는 소문 등이 나돌고 있으나 정확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힘.

- 강군 등은 알고 지내던 국경경비대원들과 짜고 각각 5kg의 폭약이 든 가방 2개를 갖고 들어오다 마을 어귀에서 노동자 규찰대에 적발돼 도보위부로 끌려갔으나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고 전함.
- 셋 다 만15세의 노동자 집안 출신인 이들은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들이었는데, 당 창건 65주년(10월10일) 직후의 특별경계기간에 국경경비대까지 끼고 폭약을 밀반입해 당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설명
- 사진 직후 량강도 당국은 고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있는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탑과 왕덕역 등 도내 주요 건물 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짐.

● 남한 드라마, 하루면 북한에 간다(10/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최근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져 방영 다음날이면 북한 ‘장마당’(시장)에서 녹화 DVD를 살 수 있다고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지난 18일 미국 뉴욕대학 내 아서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Arther L. Carter Journalism Institute)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위성을 통해 방송되는 KBS, MBC 드라마가 북-중 국경과 가까운 연변 등에서 DVD로 만들어져 북한 쪽에 팔린다”면서 “밤에 방송된 드라마가 빠르면 그 이튿날 북한 내에서 유통되는 상황”이라고 밝힘.
- 지로 대표는 또 “VCR테이프는 부피가 크고, 복사도 번거로워 요즘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북한과 싱가포르 회사가 합작해 만든 ‘하나DVD’라는 재생기가 새로 나왔는데, 이 재생기로도 남한드라마를 볼 수 있다”고 덧붙임.
-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파 속도도 빨라져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함.
- 방송도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요즘 북한에선 성인용 음란물이 급속히 퍼져 집집마다 1~2장씩 갖고 있을 정도”라면서 “미성년자와 대학생들도 이런 음란물을 많이 접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함.

● 北당창건일 때 김일성 사후 최대규모 ‘명절공급’(10/22,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 때 북한 주민들에게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최대 규모의 ‘명절공급’이 이뤄졌다고 전함.
- 방송은 량강도 대흥단군의 간부 말을 인용, “10월10일을 맞아 주민들에게 이틀분 식량과 여러가지 생필품이 국정가격으로 공급됐다”면서 “비록 양은 적었지만 수령님(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이렇게 많이 공급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함.
-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 감자 산지인 대흥단군의 경우 군내 9천500여 세대별로 술 2병, 감자당면 1kg, 감자 물엿 1kg, 식초 1병, 콩기름 1병, 돼지고기 1kg, 세숫비누 1장, 신발 1켤레, 칫솔, 치약이 공급됐다고 보도
- 북한의 ‘명절공급’이란 김일성·김정일 부자 생일 등 국가 기념일에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국정가격으로 각종 생필품을 파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이번에 장마당에서 500원 정도인 옥수수 술 1병이 국정가격 5원에, 1천200원 정도인 콩기름 500g이 국정가격 8원에 공급됐다고 소식통은 설명
- 방송은 “대흥단의 기초식품공장과 전분공장에 감자술과 감자물엿을 더 많이 빼돌리려는 간부들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면서 “감자기 술이 많이 풀리면서 음주로 인한 사고도 많았는데 대흥단군에서도 주민과 감자를 실은 트랙터가 음주운전으로 전복돼 4명이 숨졌다”고 전함.

● 중국 방문 北주민 50%는 ‘취업목적’(10/22,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지난해 중국을 공식 방문한 북한 주민 10만여명 중 절반은 ‘취업목적’이었다고 전함.
- 방송은 중국의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의 ‘2009년 중국 여유통계 공보’를 인용, “2009년 한해 동안 중국에 공식 입국한 북한 주민은 10만3천900명으로 지난해 10만1천824명보다 2.02% 증가했다”면서 “입국 목적별로는 5만2천100명(50.1%)이 취업, 1만9천400명(18.6%)이 회의나 사업, 4천100명(3.9%)이 관광이었고 나머지는 친지 방문(3백명), 기타 목적(2만8천명)이었다”고 밝힘.
- 성별로는 남성이 9만1천800명으로 여성(1만2천100명)을 압도했고, 연령

대별로는 45~64세가 4만8천600명, 25~44세가 4만6천500명임. 입국시 교통수단은 선박(3만5천800명), 비행기(2만7천800명), 기차(2만1천900명), 자동차(1만4천600명), 도보(3천800명) 순이었음.

● **‘남북합작’ 평양과기대 25일 정식 개교(10/22, 연합뉴스)**

- 남북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오는 25일 정식 개교,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 평양과기대 총장을 맡은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설비가 완비됐고 교수진도 모두 갖춰졌다”며 “25일 정식 개교한다”고 밝힘.
- 그는 “개교에 맞춰 평양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17명의 외국 교수가 23일 선양(瀋陽)에서 고려항공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온 외국인 교수들”이라고 전함.
- 연변과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40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선발, 4명의 외국 교수가 이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숙사와 구내식당 설비 등의 문제로 그동안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에 대한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비가 완비되고 교수진도 확보돼 25일부터 대학원과 학부 수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
- 이 관계자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전공 관련 영어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전공과목 수업은 내년 신학기부터 시작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한국 교수들도 수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평양과기대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설립에 합의, 지난 2002년 착공식을 하고 2003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년 만인 지난해 9월 완공했으나 컴퓨터 등 과학 기자재 반입과 남한 교수들의 장기 체류를 놓고 남북한이 이견을 보여 개교에 차질을 빚은바 있음.

● **北시장 쌀가격, 추수철 맞아 대폭 하락(10/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추수철을 맞아 평양의 장마당(시장)에서 쌀가격이 kg당 북한 돈 1천원에서 700~800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도
- 중국을 방문한 평양주민 조모(여)씨는 “햅쌀이 나올 때쯤 상인들이 비축

해 뒀던 쌀을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늘 일시적으로 쌀값이 하락한다”며 이같이 전함.

- 조씨는 “이 쌀은 완전히 도정한 중국 쌀과도 차이가 나는, 품질이 낮은 알곡”이라며 “쌀값 하락 현상은 오래 가지는 못하고 12월 즈음이 되면 다시 오르는데 돈이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쌀값이 떨어져도 이로운 게 없다”고 말함.
- RFA는 북한에서 살다 나온 화교들의 말을 빌려 “외부에서 지원된 쌀이 빼돌려졌다가 시장에 흘러나오거나 새로 수확된 쌀이 불법적으로 새나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면서 시장의 쌀 수요가 적어져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임.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 제6권 증보판 출판(10/20, 중통)
- '은하수 10월 음악회',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 中(10/20, 중방)
-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돌 기념 사진전시회(10.21~26) 개막식, 대외문화교류센터에서 최창식(보건상/연설) 등 참가자 진행(10/21, 중방)
- 중국영화상영주간, 홍광순(국가영화위원장), 류홍재(駐北 中 대사) 등 참가자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10/21, 중통)
-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첫 공연,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10/21, 중통)

2 대외

가. 일반

- **中저우융캉, 北 노동당 친선대표단 만나(10/1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경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단장으로 한 노동당 친선대표단을 만났다고 보도
 - 이 자리에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제이(劉結一)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최병관 중국주재 북한대사가 배석했다고 전함.

- 저우융캉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은 “두 당, 두 나라 친선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면서 “김정일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

● 日정부 “일본행 탈북자 현재 100명 이상”(10/20, 교도통신)

-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부(副)대신은 20일 현재까지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가 100명 이상이라고 밝힘.
- 마쓰모토 부대신은 이날 참의원(상원) 남치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100명을 넘는다”고 말했다고 보도
- 이들 대다수는 1960~70년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동포나 일본인 처,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짐. 마쓰모토 부대신은 상세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통신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등의 진술을 인용, 일본행 탈북자가 약 18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함.
- 아리타 의원은 지금도 중국 내 일본 공관에 탈북자 10여명이 머물고 있고, 길게는 2년 가까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요청함.

● 北문경덕 일행, 中 상하이·베이징 참관(10/21,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중국을 방문 중인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경덕(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친선대표단이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시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보도
- 지난 16일 중국을 방문한 이 대표단에는 평양과 함께 남포(특급시), 라선(특별시)에 9개 도까지 12개 시·도의 당 책임비서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대표단은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조선관과 중국관을 돌아봤으며 중국공산당 제1차 대회장 기념관, 상해 도시건설계획전시관, 동방명주(東方明珠) 텔레비전탑을 참관했다”고 전함.
- 또 이들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주경기장과 베이징 도시계획전람관, 중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국가대극원, 철도부와 교통운수부 도로 과학연구원, 베이징시 원림녹화국 등을 돌아봤다고 방송은 밝힘.

- 방송은 이와 함께 대표단은 중국측 인사로 류치(劉淇) 베이징시 당서기,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났으며 대외연락부와 상하이·베이징시 당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덧붙임.

● 北, ‘유엔 北인권 논의는 정치적 음모’(10/23, 로이터통신)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22일 북한에 대한 비난은 북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라며 북한 인권 관련 유엔 보고서를 공격
- 이 보고서는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것으로, 유엔총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다르스만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 물, 위생, 보건의 향유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도록 하기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박 차석대사는 다르스만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유엔총회의 연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스템을 고립시키고 질식시키기 위해 적대 세력들에 의해 조장되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
- 그는 “목적은 명백하다”라며 “인권 신장과 보호는 말 뿐이고 실제로 그들이 하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언급
- 박 차석대사는 19쪽에 달하는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열망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춰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해 우리의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충분히 공고히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

● 北시·도 책임비서, 中동북3성 방문 후 귀국(10/23, 연합뉴스)

- 통신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단체 방문했던 북한의 시·도당 책임비서 12명이 7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환했다고 보도
- 통신은 대표단이 20일부터 사흘간 지린(吉林)성의 지린시와 창춘(長春)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의 식품가공 및 궤도교통, 화학공업, 기계제조 기업과 농업기지를 돌아봤다고 전함.
- 또한 대표단이 헤이룽장성 지빙쉬안(吉炳軒) 서기와 지린성 쑤정차이(孫政才) 서기를 만나고 각 성의 당과 창춘시·지린시 당이 마련한 연회에도 초대됐다고 덧붙임.

● 北, 주중 대사 6개월만에 전격 교체(10/2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4월 부임한 최병관(崔炳寬) 주중 대사를 6개월만에 전격 교체
-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최병관 대사는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일부 주중 외교 사절들에게 이임인사를 하고 지난 23일 평양으로 떠났다고 함.
- 최대사의 후임으로 발령받은 지재룡(池在龍, 68) 당 국제부 부부장은 25일 평양에서 중국군의 6.25 참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베이징에 정식 부임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지재룡 신임 대사는 이미 중국 외교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박의춘 외무상, 주북 스웨덴 대사 '바르브르 엘름'과 담화(10/18, 중통)
- 최근 일본에서 '간도대지진 조선인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회' 결성은 "日정부가 과거청산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속 촉구(10/18, 중통·노동신문)
- 당중앙위, 中 '습근평'(習近平)의 당중앙군사위 부주석 피선(중국 공산당 제17기 제5차 전원회의) 관련 "대를 이어 조·중친선 공고발전 기대" 등 요지의 축전 발송(10/19, 중통)
- 오극렬(국방위 부위원장)·박재경(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참석하 中 인민지원군 老兵 대표단 위한 연회 개최(10/19, 중통)
- 中 '주영강'(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 방중 北 당친선 대표단(단장 문경덕 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 접견(10/19, 중통)
- 北, 중국공산당 중앙위 제17기 제5차 전원회의(10/15~18, 베이징) 진행 소식 상세보도(10/19, 중통)
- 최근 미국의 예멘에 대한 군사원조 등 관계강화 움직임은 "예멘을 장악하고 '아덴만'을 그들의 통제권 안에 넣으려는 것"이라고 주장(10/19, 중방·노동신문)
- 오극렬(국방위 부위원장)·박재경(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참석하 中 인민지원군 노병 대표단 위한 연회 개최(10/19, 중통)
- 박의춘(외무상), 주북 세계식량계획(WFP)대표(클라우디아 폰 로엘) 신임장 접수 및 담화(10/20,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통신, '핵 보유 정당' 주장(10/2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우리의 핵역제력 보유는 천만번 정당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은 핵무기를 가진 교전일방이 비핵국가인 교전일

- 방에 대해 핵위협을 끊임 없이 가한 데 있으며 그 장본인은 미국”이라며 “우리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해 핵억제력을 보유했다”고 주장
- 또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에 핵억제력 보유로 단호히 맞섰기에 조선반도에서 핵불균형 상태가 끝장나고 전쟁 발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면서 “핵억제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보검이고 핵억제력 보유는 천만번 옳은 선택”이라고 말함.
 - 이어 “미국이 1950년대부터 현 오바마 행정부까지 반세기 이상에 걸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계획해온 사실이 최근 비밀해제된 미 행정부 문서들에 의해 확인됐다”며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

3 대남

● 北신문, 금강산 실무회담 조속 개최 재촉구(10/18, 노동신문)

- 신문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면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의 조속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
- 신문은 이날 개인필명 논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 회담을 15일 갖자는 북측 제안에 대해 남측이 ‘추후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북남관계 개선을 외면하는 매우 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나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신문은 이날 ‘화해와 협력은 겨레의 지향, 시대의 요구’라는 제목의 별도 논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협력은 조국 통일의 필수적 전제이고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다”고 주장

● **남북적십자,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 교환(10/18, 연합뉴스)**

- 통신은 남북 적십자사가 18일 오전 개성공업지구 내 북측 통행검사소에서 이산가족 상봉후보자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했다고 보도
- 대한적십자사(한적)는 북측의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62명의 가족(총 1천 304명)이 현재 생존해 있음을 확인해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결과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힘.
- 또 북측은 남측의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40명의 가족(총 780명)이 북한에 살아있다고 알려왔음.
- 한적은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에서 받은 생사확인 결과를 상봉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상봉 후보자의 나이, 북측 가족의 직계 여부 등을 따져 최종 상봉대상자 100명을 선정한 뒤 오는 20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할 예정
- 상봉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로 정해졌는데, 북측 방문단의 남측 가족 상봉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흘간 먼저 이뤄지고 하루를 쉬 뒤 내달 3~5일 남측 방문단이 북측 가족을 만난다고 함.

● **‘황장엽 암살’ 남파간첩 또 적발...1명 구속(10/19, 연합뉴스)**

- 최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이 또 적발돼 구속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해 국내에서 황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모(46)씨를 19일 구속
- 검찰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국내 입국을 준비한 다음 태국을 경유해 지난 8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음.
- 이씨는 1998년부터 5년여 간 간첩 교육을 받은 뒤 2004년부터 5년여 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 잠입을 준비했으며,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노동당 중앙당 부부장급 또는 북한군 대좌(대령)급 이상의 특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짐.
- 이씨는 공안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을 때 탈북 동기 등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조사를 받은 끝에 신분과 침투 목적이 탄로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지난해 초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와 '35호실', 북한군 인민무력부 산하 경찰국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맡는 경찰총국을 출범시킨.
- 지난번에 검거한 김씨 등은 군 경찰국 출신인 반면 이씨는 노동당 35호실 출신인 것으로 전해짐.

● 北, 적십자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해와(10/22, 연합뉴스)

- 북측이 오는 26~2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회담에 참가할 3명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고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밝힘.
- 북측 대표단은 최성익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단장)을 비롯해 적십자회중앙위 박용일 중앙위원, 조정철 부부장 등 3명이며 이날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명단을 통보
- 우리 측은 전날 김용현 대한적십자사(한적)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 등 3명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

기타 (대남)

- '한·미연합공군훈련' 진행과 관련 "우리(北)에 대한 엄중한 도전,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등으로 지속 비난과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 주장(10/19, 중통·평방)
- 'PSI훈련'(10/13~14)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훈련이 초래할 것이란 "군사적 충돌과 남북관계 악화 뿐"이라고 위협(10/19, 중통)
- 대북 급변사태 대비 '개념계획-5029'를 '작전계획단계'로 격상 및 완성 계획에 대해 "실현될 수 없는 흡수통일 개꿈"이라고 지속 비난(10/19, 평방)
- 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정안(이적단체 해산 자유화) 국회제출 관련 "파쇼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비난하며 보안법 폐지 투쟁 선동(10/20, 평방)
- 南 PSI 훈련의 日 해상자위대 참가 관련 "反北 압살과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백년속적에게 재침의 뱃길을 서슴없이 열어주는 망동"이라고 지속 비난(10/20, 중방)
- 南 여수 군인폭동사건(1948/10/20) 62돌 즈음 同 사건을 "미국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애국적 장거"로 평가하며 "駐韓美軍 철수와 反정부 투쟁" 선동(10/20, 중방)
- 남측은 "외세와 야합하여 핵전쟁연습 소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韓美연합공군훈련' 진행 및 금년 현재 실시된 'PSI훈련'과 '연합대잠수함훈련' 등 韓美 군사훈련 지속 비난(10/21, 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25-10.31

10 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매체, 중국군 참전기념 ‘北·中친선’ 강조(10/25, 노동신문;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의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영원불멸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 발전이 빠르게 이룩되어 나라의 면모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놀라운 발전 면모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며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
- 이 사설은 또 “날로 좋게 발전하는 조·중친선의 협조관계는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떠밀어주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전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면서 “조·중친선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
- 평양방송은 ‘조·중친선의 길 위에 새겨진 숭고한 우의’라는 제목의 별도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조·중친선의 전통은 오늘 두 나라 영도자들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로 계승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
- 민주조선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중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 노력에 의해 더욱 공고·발전될 것”이라는 요지의 사설을 실음.
- 조선중앙TV는 1983년 제작된 47분 분량의 중국군 참전 기록영화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24일 오후 방영한데 이어 25일 오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안녕히 가시라 전우들이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내보냄.

● 中귀보송, ‘북·중 혈맹’ 거듭 강조(10/25, 신화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귀보송(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24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기념식에서 북·중 관계가 피로 맺어졌음을 거듭 강조

- 통신에 따르면, 귀 부주석은 이날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를 참배한 뒤 60년 전 인민지원군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돕기 위해 압록강을 넘었다면서 이들이 흘린 피가 확고한 북·중 우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함.
- 특히 고 김일성 주석의 보살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로 열사묘가 잘 관리됐다면서 이날 추모식은 역사를 기억할 뿐 아니라 미래를 열어나 가려는 뜻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어 양국 국민이 기성세대가 다져놓은 우호관계를 이어가고 양국의 번영, 평화, 안정에 더욱 이바지해야 한다고 덧붙임.
- 이날 열사묘 참배에는 중국 방북단과 함께 북한의 최창식 보건상, 이영철 노동당 국제연락부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성기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 귀 부주석 일행은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현화하기도 했음.

● 北김정은, ‘총탄보다 식량이 중요’(10/25, 요미우리신문)

- 신문은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권 후계자로 떠오른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과거에는 식량이 없어도 총탄이 없으면 안됐지만, 현재는 총탄이 없어도 식량이 없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노동당 간부들에게 배포된 내부 문서에 실림.
- 신문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인 김 부위원장은 “우리 국토는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다. 다만 우리에게겐 수령(고 김일성 주석)의 복, 장군(김 위원장)의 복이 있다. 대대손손까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세습에 관련한 발언도 했다고 전함.

● 김정남, 세습반대 발언으로 목숨 위협해질 수도(10/25, 연합뉴스)

- 통신은 만 13년간(1988~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요리사로 일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명)씨가 김정남의 세습반대 발언과 관련, “공공연히 권력세습에 반대하고 ‘북한’이라는 호칭을 쓴 건 자신의 목숨을

- 위태롭게 할 만하다”면서 “북한에서 (이런 김정남을) 위협하게 여겨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후지모토씨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정남 대 김정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북한에선 공화국이나 조선이란 말을 쓰며 김정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이라는 호칭이어서 (김정남 발언을 전해 듣고) 대단히 놀랐다”면서 “별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며, 본인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말한 것 같다”고 설명
 - 그는 또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개혁개방을 할 것 같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민들이) 잘 먹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외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해도 5~6년간은 종전의 정치(선군정치) 방식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 수 없고, 김정은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
 - 그는 김정은에 대해 “7살 때부터 접해왔는데 형들하고 놀 때도 항상 이끄는 형태여서, 탁월한 리더십이 어릴 적부터 뚜렷했다”고 회고
 - 하지만 김정남에 대해서는 “김정일 관저에서 스시를 만들면서 김정일이 마련한 파티를 해야 할 수 없이 많이 지켜봤는데 김정남이 참석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함.
 - 후지모토씨는 이어 “김정은이 공식 등장해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에 김 위원장의 실질적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과 여동생 여정은 있는데 김정철은 없어서 걱정했다”면서 “하지만 김정철은 내가 농구시합 심판을 봤을 때 ‘당신 때문에 졌다’고 항의한 것 외에는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상냥하고 순해 김정은과 잘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그는 김정일 위원장 곁에서 경험한 에피소드와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은 비교적 담담히 밝혔으나 ‘김정남이 망명할 가능성이 있느냐’, ‘북한이 왜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보느냐’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음.
 - 그는 끝으로 “김정은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모두 폐쇄하고 사람들을 석방하길 원하며,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해 납치해간 사람들도 전부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면서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김정은이) 꼭 개혁개방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함.

● 北김정일·정은 부자, 中참전60주년 군중대회 참석(10/25,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중국군의 6.25참전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군중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
- 김정은이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60주년 열병식과 경축야회 이후 15일 만임.
- 방송은 군중대회에 김 위원장 부자 외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군 총참모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귀보송(郭伯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군사대표단, 노병대표단이 자리를 함께했다고 소개
- 군중대회 보고자로 나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국방위 부위원장 겸직)은 “조·중친선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패의 친선”이라면서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의지와 염원에 따라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영구불변할 것이며 대를 이어 빛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적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둬온 경고와 국제사회의 반대를 거역하고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는 선군의 기치 밑에 다져온 자위적 핵 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킬 것”이라고 위협
- 귀보송 부주석은 군중대회 연설을 통해 “지금 세계는 평화를 구축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조를 촉진하는 것이 각국 인민의 염원으로 되었다”며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신념은 변하지 않고 평화를 수호하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유지를 위한 북측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촉구
- 그는 “우리 사이의 친선은 중·조 두 나라 인민과 군대가 피로써 맺은 것이고 오늘의 평화는 중·조 두 나라 인민과 군대의 거대한 희생으로 얻은 것”이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반드시 대대로 전할 것이고 부단히 깊어질 것”이라고 말함.

● 시진핑, “6.25참전은 침략에 맞선 정의”(10/25, 연합뉴스)

- 최근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돼 차기 국가주석이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북한과의 혈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 시 부주석은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을 초청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참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밝힘.
- 시 부주석은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단결함으로써 항미원조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는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함.
- 시 부주석은 “중국 인민은 시종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흘린 피로써 맺어진 위대한 우정 잊어본 적이 없으며 조선 정부와 인민의 관심 또한 잊은 적이 없다”고 덧붙임.
- 그는 “60년 전에 발생한 전쟁은 제국주의가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전황이 신중국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조선 정부의 요청이 있고 나서야 마오쩌둥 동지는 나라를 지키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 것”며 자국 참전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

● **北김정일·정은 부자, 보위부 시찰…이달에 두번째(10/2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군 제10215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해, 부대의 임무수행 방식을 이해한 다음 군인들의 훈련을 보셨다”면서 “훈련 결과에 큰 만족을 표시하고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셨다”고 보도
- 또 “부대 군인들이 계급의 총창(총검)을 틀어잡고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적 전취물인 어머니 조국과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다”고 덧붙임.
- 통신이 언급한 인민군 ‘제10215군부대’는 인민보안부와 함께 북한의 양대 공안기관으로 꼽히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대외명칭이라고 함.
- 이번 시찰에는 김정은 외에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보위부 제1부부장과 군 장성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김정일, ‘북·중우호 세대계승’ 재차 강조(10/26, 신화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피로 맺은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가 다음 세대에도 계승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

- 김 위원장은 25일 평양에서 귀보슝(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중 우의는 세대를 거쳐 계승될 필요가 있으며 이 바통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우리 어깨에 걸린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힘.
- 이어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은 조·중 우의의 중요한 상징”이라며 “우리는 지원군이 피로서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원하고 마오안잉 동지를 비롯한 많은 지원군 장병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후진타오 주석과 쌍방 관계에 관해 광범위한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이제는 양국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양국 지도자 사이에 쌓은 공통인식을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한편 이날 접견 자리에 배석함으로써 지난 9일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면담 참석 이후 두번째로 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은 기념 촬영을 할 때 주변인 귀 부주석과 나란히 섭으로써 남다른 위상을 과시

● **김정일·정은 부자, 전 중국군사령부 건물 방문(10/2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군의 6.25참전 60주년기념일 다음 날인 26일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평안남도 회창군에 보존된 전 중국군 사령부 건물을 방문하고 중국군 열사묘에 참배했다고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령부 건물 내 작전지휘실, 지하 갱도, 군인 회관 등을 둘러보고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두 나라 공동의 역사적 책임이고 중대한 사명”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또 “조·중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의 변함없는 의지와 염원에 따라 전통적인 조·중 친선은 대를 이어 길이 빛날 것”이라면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 인민과 함께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
- 이어 김정일 위원장은 또 회창군에 있는 중국군 열사묘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 묘도 참배,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중국) 지원군 열사들이 발휘한 희생정신과 전투적 우의는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공동의 위업을 위해 생명을 바친 지원군 열사의 묘를 잘 관리해 그들의 빛나는 업적이 영원히 전해지게 해야 한다”고 말함.

-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비롯,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이상 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겸직)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겸직)·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이상 당 비서 겸직), 주규창·우동측(당 중앙군사위원 겸직), 당 중앙군사위 위원인 김명국(군 총참모부 작전국장)·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직)·김원홍(보위사령관)·정명도(해군사령관)·리병철(공군사령관)·김영철(인민무력부 경찰총국장)·윤정린(호위사령관)이 수행

■ 김정일동향

- 10/25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지휘부 시찰(10/25, 중통)
 - 이영호(총참모장), 김정은(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정각(軍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軍대장) 등 동행
- 10/25 김정일, 10.25 ‘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1950/10/25) 60돌 즈음 ‘우의탑’에 화환 전달(10/25, 중통·중방)
- 10/25 김정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돌기념 군중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0.25, 중통·평방)
 - 김영남·최영림·이영호(정치국 상무위원들), 김정은(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정치국 위원/보고) 등 참석
- 10/25 김정일,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및 여러 대표단들을 만나 담화 및 만찬(10/25, 중통)
 - 이영호(총참모장), 김정은(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강석주(내각부총리) 등 참가
- 10/26 김정일, 평남 화창군 ‘모안영’墓와 中인민지원군 열사묘에 화환 전달 및 前 中인민지원군 사령부 방문(10/26, 중통·중방)
 - 리영호(총참모장), 김정은(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黨비서) 등,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등 동행

■ 김정은동향

- 10/25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지휘부 시찰(10/25, 중통)
- 10/25 김정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돌기념 군중대회, 평양체육관 참석(10.25, 중통·평방)

- 10/25 김정은,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및 여러 대표단들을 만나 담화 및 만찬(10/25, 중통)
- 10/26 김정은, 前 中인민지원군 사령부 방문(10/26, 중통·중방)

기타 (대내 정치)

- 北영국친선의원단 대표단(리종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영국 北제정당의원단 대표단(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사이 회담,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0/25, 중통·중방)
- 北청년동맹 제43차 전원회의, 10.25 이용철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10/26, 중방)
- 北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최영림(내각 총리)·이태남(내각 부총리/보고) 등 참가下 진행(10/27, 민주조선)

나. 경제

기타 (대내 경제)

- 단천마그네사공장, 광범기(함경남도당책/준공보고) 참가下 무연탄·알탄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대상들 준공식 진행(10/29, 중방)
- 北, 10/28 개건된 향만루식당과 상점, 능력확장된 선홍식료공장 조업식 진행(10/28, 중통)
- 北·브라질, 이용남(무역상) 등 참가下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식 진행(10/28, 중통·중방)

다. 군사

● 北군부, 김정은 우상화 선전 개시(10/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군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이달 중순 북한군의 군단 정치위원 회의가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렸다”면서 “이 회의에서 김정은 우상화 선전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이번 회의는 김정은이 당 권좌(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이후 처음 군부 내 고위 당일꾼들이 소집된 것”이라면서 “군단 정치위원들이 처음 김정은에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이 회의 이후 북한군 총정치국이 김정은을 선전하는 내용의 ‘학습제강’을 각 부대에 내려보냈다”면서 “함경북도의 한 부대에 배포된 자료에는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 초기 혁명활동 시기의 한별(김일성의 20대 때 별명) 동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어느 노투사(원로투사)의 발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

- 군 부대 정치일꾼들은 김정은에 대해 “조국통일을 이를 비상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사적 돈벌이 차량 집중 단속(10/26,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 당국이 사적인 돈벌이에 이용되는 기관이나 기업소 소유 차량(일명 ‘씨비차’)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해 물류 적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함.
-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 “인민보안부(경찰청 해당) 지시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씨비차로 쓰이는 승용차, 승합차, 2t 이하 소형 화물차 등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면서 “교통보안원(교통경찰)들이 길거리에서 차량 등록증, 검사증, 운전면허증을 검사해 차량의 소속 기관과 운전자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인민보안부는 각 도 컴퓨터에 등록된 간부 차량과 사업용 차량만 제외하고 모두 몰수할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군대의 외화벌이 기관들이 갖고 있는 차량도 검열 대상인데 적발된 차량은 경무대(헌병)가 처리한다”고 설명
- 이 소식통은 이어 “노동자가 100명도 안 되는 생활필수품 공장도 모두 씨비차를 굴리며 돈벌이를 하는데 씨비차가 없어지면 당장 중하위급 간부나 이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곤란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도·소매상과 시장을 통해 먹고 사는 일반 주민들도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임.
- 통신은 단속 배경과 관련, “씨비차를 쓰다 보면 황해도 사람이 함경북도 회령까지 이동하는 일도 어렵지 않아, 북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비 사회주의 요소’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씨비차 단속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함.

● 北간부, 김정은 생일선물 준비 돌입(10/26, 데일리NK; 열린북한방송)

- 데일리NK는 북한의 간부들이 내년 후계자 김정은의 생일(1.8)에 바칠

‘충성의 선물’ 마련 경쟁에 들어갔다고 전함.

- 매체는 평양의 내부소식통 전언이라며 “청년대장 동지의 생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당 각 부서는 물론이고 도 당위원회,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1급연합기업소 등이 외화벌이 단위를 총동원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
- 특히 리영호 군 총참모장은 직접 ‘청년대장 동지의 생신에 올릴 선물을 든든히 준비하라’는 특별지시를 군에 하달했고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 조선인민군미술창작사에는 ‘선물제작조’가 구성돼 선물의 품목, 비용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매체는 “북한의 해외공관도 조만간 선물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소식통을 인용, “중국 주재 북한 외교일꾼과 외화벌이 일꾼 사이에서 김정은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함.
- 이어 “북한의 각급 단위들은 통상 김일성 생일(4.15), 김정일 생일(2.16)과 관련 6개월 전부터 선물 제작조를 결성해 선물 마련에 들어간다”며 “내년 1월 김정은 생일까지 시간이 짧아 일부 단위에서는 아예 ‘현금으로 가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임.

● 北사이트, 내부서버로 이전…도메인주소 사용(10/26, NK지식연대)

- 폐쇄적인 인트라넷 이용에 집중해왔던 북한이 최근 웹사이트 서버를 해외에서 내부로 이전하고 도메인주소를 사용하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대외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단체는 ‘조선체신회사’ 간부 서모씨를 인용, “북한이 지난 9일 내부서버를 이용해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를 개설한 데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던 ‘우리민족끼리’, ‘김일성종합대학’ 사이트는 11월 중에 내부서버로 이전한다”면서 “‘조선외국문출판사’, ‘조선무역’등 국제비즈니스 사이트와 ‘조선의 금강산’ 등도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전함.
- 서씨는 또 “지난 8월 20일께 북한에서 최초로 월드와이드웹(WWW)에 접속했다”고 밝힘.
- 북한은 그동안 대남관계자 등 일부사람들에게 IP주소(<http://175.45.179.68>, 조선중앙통신)를 활용한 인터넷에 접속을 허용

● 北, ‘곰 세마리’ 유행…‘3대세습’ 패러디도 나와(10/27, NK지식연대;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에서 남한 동요 ‘곰 세마리’의 가사를 바꿔 김정은 권력세습을 패러디한 노래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최근 회령시 오산덕중학교 교실과 화장실에서 ‘곰 세마리’의 가사를 “한 집에 있는 곰 세 마리가 다 해먹고 있어 / 할배곰(김일성) / 아빠곰(김정일) / 새끼곰(김정은) / 할배곰은 똥똥해 / 아빠곰도 똥똥해 / 새끼곰은 미련해”로 바꿔 적은 쪽지가 발견됐다고 전함.
- 이 단체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 “살찐 김정은의 모습을 본 누군가가 남한의 동요로 풍자한 것”이라면서 “보안당국이 즉각 ‘반동유인물’로 규정해 수거한 뒤 출처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쪽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별 뜻 없이 ‘곰 세 마리’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면서 “원산시 해방고등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타를 치며 ‘곰 세마리’ 노래를 부르다가 보안부에 끌려가 밤새도록 매를 맞았다”고 전함.
- 이어 이 소식통은 “당대표자회 이후 김정은 후계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면서 방화 미수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당국이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고 덧붙임.
- RFA는 이달 8일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당대표자회 이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새끼돼지 어미돼지(김정일·정은 부자 지칭) 모조리 잡아 먹자’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함.

● 北주민들, 식량문제 해결 못한 당대표자회에 실망(10/27, 좋은벗들)

- 매체는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북한의 9.28당대표자회가 민생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은 채 끝나자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전함.
- 단체는 평안남도 평성시 간부의 전언을 인용, “입만 열면 인민 생활을 더 높은 단계로 올리자고 했던 당국이 44년 만에 당대표자회를 열어 놓고도 이런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자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밝힘.
- 이 간부는 또 “청년대장(김정은 지칭) 이름으로 배려(배급)가 나올 만도

한데 그런 것조차 전혀 없다”면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벌써 ‘누가 되든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올바른 지도자로 인식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임.

- 평성시 시당에서 17년간 일했다는 다른 간부는 이어 “새 지도자가 등장하면 식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장군님(김정일 지칭) 말씀을 억지로라도 따르지만 나중에 후계자가 방침을 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함.
- 단체는 “당대표자회 이후 사회질서 위반자들을 대대적으로 붙잡아 조사하는 등 통제가 더 심해졌다”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새로운 영도자가 생긴다는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
- 또 “도당 비서에 이어 시·군당 책임자들도 대폭 물갈이되는 분위기”라면서 “특히 보위부 등 보안 기관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임.

● ‘주라기 공원’ 티셔츠 입은 평양 소녀 ‘눈길’(10/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의 평양 거리에서 한 소녀가 할리우드 영화 ‘주라기 공원’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고 보도
- RFA가 홈페이지에 올린 이 사진 속의 소녀는 공룡의 그림자를 형상화한 도안 아래 영화 ‘주라기 공원’의 영어 타이틀(Jurassic Park)이 크게 들어간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음.
- RFA에 사진을 제공한 미국의 위성사진분석 전문가 커티스 벨빈씨는 “중국에서 만든 티셔츠가 여과없이 북한의 장마당에서 팔린 것 같다”고 말함.
- RFA는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문화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글씨가 들어간 옷, 가방 등을 북한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물건을 쓰는 북한 주민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임.

● 북송 장기수들, 김정일체제 선전단으로 활동(10/29, 데일리NK)

- 매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현재 북한 ‘김정일체제’를 선전하는 공연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
- 이어 이날 22명의 북송 장기수들이 가족과 함께 북한체제 찬양조의 노래와 연설을 하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

- 이 동영상에서 장기수들은 전원 양복 차림에 훈장을 달고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같은 가사의 노래를 합창하기도 함.
- 장기수 이재룡(67)씨는 북한에서 맞은 아내와, 김 위원장이 ‘축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딸을 데리고 나와 ‘축복받은 나의 삶’이란 노래를 불렀고, 리두균(84)씨는 김 위원장을 영원히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시를 낭송
- 김중중(85)씨는 강연에서 “(북한에) 오기 전 고향인 경북 안동에 가봤는데 1950년대보다 낙후돼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기도 함.
- 이들 북송 장기수들은 평양시 평춘구역에 있는 ‘운정관’이란 공연장에서 한 번에 8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매체는 설명
-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이나 정권수립일 같은 주요 정치일정을 전후해 해외동포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며칠씩 공연을 한다”면서 “해외동포방문단이 공연을 볼 때는 후원금을 받아 외화벌이도 하고 있다”고 밝힘.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北 대동강 칠감공장에서 생산된 ‘다기능수성칠감’,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등 여러 대상건설에 이용(10/28, 중통)

2 대외

가. 일반

- 유엔사·북한군, 27일 7차 대령급 회담(10/26, 연합뉴스)
 - 통신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제7차 대령급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힘.
 - 유엔사와 북한군은 지난 7월 15일 1차 대령급 회담을 개최한 이후 여섯 차례 회담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룰 장성급 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함.

- 유엔사는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평가단을 소집하자는데 입장인 반면 북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거듭 주장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北지재룡 신임 주중대사 부임한듯(10/2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지재룡이 임명됐다”며 대사 교체 사실을 공식 보도
- 1942년생인 지 신임 대사는 김일성종합대학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뒤 34세 때인 1976년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위원장으로 기용된 인물로 외무성 순회대사를 거쳐 체코와 유고슬라비아 대사에 이어 1993년 1월부터 옛 공산권 국가들과의 ‘당 대 당’ 외교를 전담하는 노동당 국제부의 부부장을 맡아왔음.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지 신임대사가 이번 주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오늘 오전 도착한 인물이 지 대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힘.

기타 (대의 일반)

- 北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일본 법무상 등 총련 학교대상 ‘무료화제도’ 문제점 제기(10/13, 중의원 예산심삭) 언급 관련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며 비인도적행위”라고 反총련·反北정책 시정 촉구 (10/26, 중통)
- 미국의 ‘임계전핵시험’ 성과적 진행 공개는 “미국이 말하는 ‘핵군축’, ‘핵전파방지’는 어불성설이며, 그 누구의 ‘위협’을 입버릇처럼 외우는 것 또한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비난(10/26, 중통·노동신문)
- 김영남, 駐北 덴마크 新任대사 ‘피터 리솔트 한센’ 신임장 접수(10/27, 중통)

나. 6자회담(북핵)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핵억제력 보유 정당성 주장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실현 입장 不變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과 美國에 “對北 핵위협 중단 및 6자회담 재개에 성실히 임할 것” 등 요구 (10/28, 중통·평방)

3 대남

[이산가족 상봉 관련]

● 남북적십자회담 첫날…이산상봉 정례화 협의(10/26, 연합뉴스)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26일 오전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시작됨.
- 단장인 김용현 대한적십자사(한적) 사무총장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은 이를 일정으로 출퇴근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봉 정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대표단은 또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북측은 쌀, 비료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구. 북측 단장인 최성익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이 이룩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이런 견지에서 열리는 적십자회담도 임무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남 온 겨레는 북남 사이에 화해와 협력이 이뤄지고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풀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성의에는 성의로 대화하면서 회담을 잘해서 북남 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이 회담을 지켜보는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줘야 한다”고 말함.
- 또한 김용현 단장(대한적십자가 사무총장)에게 “김 수석대표가 뭐 좋은 안을 갖고 왔으면 잘 될 것이고…”라고 언급
- 이에 대해 김 단장도 “최 단장께서 좋은 안을 갖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실을 위해 열심히 하자”고 제의
- 김 단장은 “오는 3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지는 이산가족상봉을 앞두고 남북이 이렇게 마주 앉아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데 대해 굉장히 기대가 크다”며 “우리 남측 뿐 아니라 북측 동포들도 상당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함.

- 이어 “그동안 적십자회담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어느 회담보다 더 좋은 성과와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 北, ‘연 3~4차례 이산가족 상봉’ 제의(10/26, 연합뉴스)

- 통신은 북측이 적십자회담 첫날에 금강산관광 재개 다시 요구했으며 이에 남측은 월1회 상봉 및 재상봉·고령자 고향방문 촉구했다고 보도
- 북측은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다시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1년에 3~4차례의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
- 북측 대표단 최성익 단장은 이날 오전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강산면회소 등 남측 시설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업무와 관련한 당국 간 실무회담이 시급히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
- 북측은 상봉 정례화와 관련, “설과 추석 등 명절을 기본으로 1년에 3~4차례 각각 100명 규모로 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사업도 병행하자”면서 “남북 사이에 필요한 것은 도와주는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자”고 말함.
- 통신은 또 북한이 “현재 중단된 판문점 적십자 채널 복원을 위해서도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전함.

● 北, 쌀 50만t 비료 30만t 지원 요구(10/27, 연합뉴스)

- 통신은 북측이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쌀 50만t과 비료 30만t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
-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은 전날 회담에서 쌀 5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오늘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함.
- 그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이런 대규모 지원은 적십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당국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북측 대표단은 우리 측이 어제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쌀, 비료를 제공하면 풀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함.
- 그는 “북측은 아울러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상봉장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실무회담이 빨리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말함.
- 남측 대표단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25일 남측 지역인 문산에서 차기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
- 회담 관계자는 “차기 적십자회담에 대해 북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차기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과 북측이 요구한 쌀, 비료 등 인도적 협력사업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 그는 북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요구와 관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몰수 조치는 남한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함.

● **이산상봉 정례화 ‘불발’…내달 차기회담(10/27, 연합뉴스)**

- 남북은 26~2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
- 통신은 다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측이 요구한 쌀, 비료 등 대규모 지원 문제는 오는 11월 25일 차기 적십자회담을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

● **이산가족 상봉 재개…남측 가족 435명 금강산으로(10/30, 공동취재단)**

- 13개월만에 성사된 ‘2010년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0일 북한의 금강산에서 열림.

- 1차 상봉(10/30~11/1)에서는 북측 방문단 97명이 우리 쪽 가족 435명을 만나고, 내달 2일 하루 쉬고 이어질 2차 상봉(11/3~5)에서는 남측 방문단 96명이 북한쪽 가족 207명을 상봉함.

● **남북 이산가족 533명, 금강산서 60년만에 상봉, 전사처리된 ‘국군출신 4명’ 北에 생존(10/30, 공동취재단)**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0일 오후 3시 10분께부터 북한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시작
- 최종 명단에 오른 북측 상봉 신청자 97명과 남측의 가족 436명은 가족 별로 배치된 테이블에 앉아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으며 남북 이산가족 들은 약 2시간 동안 첫 만남을 가진 뒤 오후 7시부터 우리 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
- 특히 상봉 장소에 나온 북측 신청자 중에는 국군 출신인 리종렬(90), 리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 4명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끄.
- 이들은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국군으로 참전했으나 전쟁 중 행방불명돼 1957년 우리 정부에 의해 일괄 전사처리됐음.

●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오붓한 가족 만남(10/31, 공동취재단)**

- 금강산에서 이틀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산가족들은 31일 아침부터 가족끼리 따로 만나 오붓한 시간을 보냄.
- 하루 전인 30일 첫 만남에서 60년만의 재회로 눈물을 쏟아낸 북측 상봉 신청자 97명과 남측 가족 436명은 가족별로 모여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이산의 한을 풀었음.
- 오전 9시부터 두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개별 상봉에서 남측 가족 들은 생필품과 의류, 손목시계, 의약품 등이 든 선물보따리를 북측 가족에게 전하였으며 북측 상봉 신청자들은 술과 가족사진, 도자기 등을 담은 종이 가방을 가져와 남측 가족에게 선물함.
- 낮 12시부터 금강산호텔 2층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이산가족들은 배로 빛은 북한의 백로술과 봉학맥주, 인풍포도술을 서로 권하며 즐겁게 식사한 후 오후 4시부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1층 대연회장에서

두시간 동안 다시 단체상봉을 진행
 - 상봉 첫날 저녁에도 이산가족들은 남측이 주최한 환영만찬을 함께 하며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가족 만남을 이어감.

- 北, “남측, 군사회담 거부 결과 통감할 것”(10/2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북 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이 최근 남측이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안을 거부했다면서 “대화 거절로 초래되는 북남 관계의 파국적 후과(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 이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10월 22일 쌍방 군부가 이미 이룩한 군사적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군사실무회담을 갖자고 남측에 제의했다”면서 “그러나 남측은 함선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북남 군사적 합의 이행 문제의 ‘불명확성’을 운운하며 회담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힘.
 - 이 대변인은 또 “북남 관계를 돌이켜보면 쌍방 관계가 극도에 달했을 때도 회담 제의 자체를 거부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쌍방 합의이행을 공공연히 회피하는 남측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대는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신문, 李대통령 ‘北비핵화’ 발언 비난(10/30,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을 강조한 데 대해 “반통일적 녂두리”라고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김항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꿈은 조국의 평화통일이고 그 첫 걸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이라고 말함.
 - 신문은 이날 ‘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녂두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집권세력이 ‘비핵화’를 떠드는 것은 결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반공화국 핵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북남관계는 개선될 수 없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도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

기타 (대남)

- 北, “남북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現 남북대화 분위기 고수 이행’ 강조(10/25, 중통·노동신문)
- 통일부장관의 對北발언(핵문제해결 없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불가능)을 “핵문제를 구실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거부하려는 보수패당의 속심을 대변한 것”이라며 ‘동족대결정책 철회’ 촉구(10/25, 중통·노동신문)
- 南 육군참모총장의 국회 국정감사 ‘주적’ 등 발언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깨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호전적 망발”이라고 비난(10/26, 중통·민주조선)
- 南北 적십자회담 진행(10/26~27, 개성), 남측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문제 토의만 고집, 인도주의 협력사업 활성화문제는 외면 한다”고 주장(10/27, 중통)
-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과 개성관광재개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南 보수패당은 ‘北 급변사태’ 망발을 늘어놓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下 통일야망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지속비난하며 反정부투쟁 선동(10/28, 평방)
- 南당국이 ‘남북적십자회담(10/26)’에서 “우리(北)의 금강산관광재개 노력까지 걸고들며 상봉행사는 안 해도 좋다고까지 하는 불순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주장(10/28, 중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10월

북한동향 일지

<9월 일지>

일시	내용	보도일자
9월01일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수 '김영향', 문평제련소 지배인 '우두태' 등에게 생일상 전달	중방(9/1)
	김정일, 평양곡산공장 기술재건에 이바지한 기술자 등에게 「감사」 전달	중방(9/1)
	김영남, 중국 인민해방군 심양군구 대표단과 담화	중통(9/1)
	최병관 駐中 北 대사, 8/31 駐在國 '온가보' 국무원 총리 의례방문	중방(9/1)
9월02일	北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구려 벽화무덤(평양시 낙랑구역 동산동) 발굴	중통(9/2)
	태풍7호 '곤파스'의 영향으로 北 여러지역에서 폭우와 강풍 발생	중통(9/2)
9월03일	강능수(내각 부총리), 평양체육관에서 개막된 黨 대표자회의와 黨 창건 65돌 경축 국가미술전람회 참석	중통(9/3)
	김영남, 스위질랜드독립 42돌 즈음 同國 국왕에게 축전	중통(9/5)
9월04일	北, 피랍·억류(8/8) 중인 남측 어선 '대승호' 선박과 선원 석방 결정	중통(9/4)
9월05일		
9월06일		
9월07일	김정일, 백두산선군혁명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한세, 대학병원 의사 최용림 등) 「감사」 전달	중방(9/7)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및 「감사」 전달	중통·중방(9/8)
	김영남과 박익춘 외무상, 브라질 독립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	중통(9/7)
9월08일	김정일, 정권 창건 62돌 즈음 공훈국가합창단의 '9월 음악회' 관람	중통(9/8)
	김정일, 중국 호금도 주석의 큰물피해 관련 위문전문에 대한 답전 발송	중방(9/8)
9월09일	김정일, 정권 창건 62돌 즈음 은하수관현악단의 '9월 음악회' 관람	중통(9/9)
9월10일	김정일, 시리아 대통령과 베트남 총비서 생일 축전 각각 발송	중통(9/10)
	김정일, 정권 창건 62돌 즈음 '은하수 9월 음악회' 관람	중통(9/10)
9월11일	김정일, '3월5일 청년광산' 현지도	중통(9/11)
	北우표발행국,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돌 즈음 기념우표(묶음 전지 1종, 개별우표 1종) 발행	중통(9/11)
9월12일	김정일, 자강도 만포문화공장 현지도	중통(9/12)
9월13일	北국가우표발행국, 김일성 생일 100돌 즈음 연재우표(소형전지 2종, 묶지 5종, 2010년 4월까지 발행) 발행	중통(9/13)
9월14일	김정일, 러시아 '메드베제브' 대통령 생일 관련 축전 발송	중통(9/14)
9월15일	김영남, 訪北 라오스 안전보위성 대표단과 담화	중통(9/15)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 '비슈와나스'와 담화	중통(9/15)

9월16일	김정일, 100살 장수자 이학녀(平南 문덕군 읍 거주) 노인에게 '생일상' 전달	중통(9/16)
	유엔사 北 군부 대좌(대령)급 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	중통·중방(9/16)
9월17일	'제12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강능수(내각 부총리), 홍광순(국가영화위원회장/개막사), 양만길(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	중방(9/17)
9월18일		
9월19일		
9월20일	김정일, 조선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 공연 관람	중통(9/20)
9월21일	김정일,故오대형(인민예술가, 만수대창작사 조각가)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9/21)
	박길연, 北대표단 단장으로 '유엔총회 제 65차 회의'에서 연설	중통(9/24)
9월22일		
9월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강석주를 내각 부총리로, 김계관을 외무성 1부상으로, 이용호를 외무성 부상으로 임명.	중통(9/23)
9월24일	중국 사법대표단(단장: 장소근 사법부 부부장), 평양도착	중통·평방(9/24)
9월25일		
9월26일	김정일,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 창조사업 지도 및 관람	중통(9/25)
9월27일	김정일, 인민대학습당에 도서 자료 전달	중방(9/27)
	김정일, "김경희·김정은·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 수여"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 하달	중통·중방(9/26)
9월28일	김정일 참석하에 당 대표자회를 개최	중통·중방·노동신문·조선중앙TV(9/29)
	김정일 黨총비서 再추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평양체육관광장에서 진행	중통(9/28)
	김정일 黨총비서 再추대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전승기념탑평양체육관 개선문광장 무도회장들에서 진행	중방(9/28)
	北국방총결정 제 07호, '리영호'(총참모장, 대장)에게 '차수' 칭호 수여	중통·중방(9/28)
9월29일	김정일, 黨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및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중통(9/29)
9월30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진행	중통(9/30)
	김정일, 혁명과업 수행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모범을 보인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 과학자 등에게 「감사」 전달	중방(9/30)
	김정일과 김영남·최영림, 중국 호금도(국가 주식)·오방국(全人大 상무위원장)·온가보(국무원 총리)에게 中 정권 창건 61돌 축전	중통(9/30)

〈10월 일자〉

일시	내용	보도일자
10월01일	김정일, 黨총비서 再추대 인민보안부 경축대회 주상성(인민보안부장) 및 인민보안부 일꾼 등 참석下 진행	중통·중방(10/1)
	최태복, 중국 류운산 당 중앙위 정치국위원과 담화	중통·중방(10/1~2)
10월02일	최태복, 중국 주석 호금도 면담	중통·중방(10/2)
10월03일	김정일,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중방(10/3)
10월04일	김정일, 黨총비서 再추대 축하 함경남도·남포시 경축대회	중통(10/4)
10월05일	김정일·김정은,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 참관	중통(10/5)
	박길연 외무성 부상 일행, 유엔총회 참가 후 귀국	중방(10/5)
10월06일	日朝 국교정상화연락회 공동대표, 귀국	평방(10/6)
10월07일	김정일·김정은, 은하수 '10월 음악회' 관람 및 「감사」 전달	중통(10/6)
	黨창건 65돌 중앙경축행사 대표들, 인민문화공전에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중통(10/7)
10월08일		
10월09일	김정일, 새로 건설된 국립 연극극장과 예술인들의 살림집 현지지도	중통·중방(10/9)
	김정일·김정은,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黨창건 65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	중통(10/9)
	김정일·김정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 관람	중통(10/9)
	김정일, 中 공산당 대표단 '저우용캉'과 담화 및 '후진타오' 축하편지 접수 (김정은 배석)	중통(10/10)
10월10일	김정일·김정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중통(10/10)
	김정일·김정은, 당창건 65돌 경축 열병식 관람	중통(10/10)
	김정일 위원장, 中 호금도 총서기 축하편지 접수 및 주영강과 담화	중통(10/10)
	김정일, 당창건 경축야회(夜會) 참석	중통·중방(10/10)
10월11일	김정일·김정은, 당창건 65돌 대경축야회 '번영하라 노동당 시대' 관람	중앙TV/현지실황 중계(10/10)
	김정일, 중국공산당 대표단(단장:저우용캉)과 접견 및 오찬	중통·중방(10/11)
10월12일	김정일·김정은, 당 창건 65돌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지휘성원들과 기념촬영	중통·평방(10/12)
	北 각계층 인민들, 黨창건 65돌을 맞으며 黨창건기념탑을 찾아 黨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린 金父子 업적 回顧	중통(10/12)
10월13일	김정일, 여러 나라(중국·쿠바·라오스·우크라이나 등) 당 및 국가 영도자들의 北 정권창건 62돌 축전에 대한 答電 발송	중방(10/13)
10월15일		
10월16일	北 黨선전대표단(단장 : 문경덕 당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 및 베이징 도착	중통·중·평방 (10/16)

10월17일	김정일, 새로 건설된 옥류관 요리전문식당 현지지도	중통(10/17)
10월18일		
10월19일	김정일, 창작 완성된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 관람	중통(10/18)
	문경덕(당 중앙위 비서), 조선노동당 친선대표단 단장으로 中 '저우융캉' (공산당 중앙총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서기) 접견	중통(10/19)
10월20일	김정일, 동대원은하피복공장 3직장 등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10/20)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중국 인민일보대표단 단장과 담화	중통(10/20)
10월21일	김영춘(인민무력부장), 中남 인민지원군 노병대표단과 담화	중통(10/21)
10월22일	김영춘, 중국 인민해방군 문예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 접견 및 김정일 '선물' 접수	중통(10/22)
10월23일	노동신문·민주조선, 中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소개·중앙TV의 김정일 訪中 보도 '양산백과 축영대' 공연·사진전시회와 중국 영화상영주간 등 "평양시의 朝-中친선 분위기 고조" 소개	중통(10/23)
10월24일	김정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한국전쟁) 참전 60돌 즈음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平南 회창군)에 화환 전달	중통(10/24)
10월25일	김정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한국전쟁) 참전 60돌 즈음 우의탑에 화환 전달	중통(10/25)
	김정일·김정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한국전쟁) 참전 60돌 기념 군중대회 참석	중통(10/25)
	김정일·김정은,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및 여러 대표단들을 만나 담화 및 만찬(10/25, 중통)	중통(10/25)
	김정일, 방북중인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중국인민지원군 노병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지휘성원들 등 접견 및 만찬	중통(10/25)
	김정일·김정은,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지휘부 시찰	중통(10/25)
10월26일	김정일·김정은, 평안남도 회창군 '모안영'묘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묘에 화환 전달 및 전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 방문	중통(10/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中 北 대사 '지재룡' 임명	중통(10/26)
	국방위와 中 고위군사대표단 사이 회담, 평양에서 진행	중통(10/26)
10월28일	김영남·최영림·박의춘, 체코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수상·외무상에게 각각 축전	중통·중방(10/28)
10월29일	김영남,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지진과 해일 피해관련 위문전문	중통(10/29)
10월30일	김영남과 최영림, 알제리 혁명 개시 56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	중통(10/31)
10월31일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